

제8차(2005)년도
한국 가가와 개인의 경제활동

-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

남재량 · 성재민 · 이상호
최효미 · 신선옥

목 차

제1장 머리말	1
제2장 한국노동패널 8차 조사의 개요	13
제1절 한국노동패널조사란	13
제2절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과 설문내용	18
1.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18
2. 설문내용	19
제3절 조사방법과 조사결과	24
1. 조사과정 및 조사방법	24
2. 조사결과 및 원표본유지율	29
제4절 응답 가구와 가구원의 특성	33
1. 응답 가구의 특성	33
2. 조사성공 가구원의 특성	37
제5절 이사·분가가구와 신규 조사자의 특성	41
1. 이사가구의 특성	41
2. 비원표본가구(분가가구)의 특성	43
3. 비성공가구의 특성	44
4. 신규 조사자의 특성	46
제6절 한국노동패널의 가중치	48
1. 1차년도 조사의 가중치 부여방법	48
2. 2차년도 조사 이후의 가중치 부여방법	49
3. 가중치 변수 및 이용방법	51

제3장 조사가구의 특성	52
제1절 가구 및 세대 구성	52
제2절 가구주 및 가구원의 특성	57
1. 가구주의 특성	57
2. 가구원의 특성	58
제3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	60
제4장 가계 경제	64
제1절 가구소득	64
1. 가구의 총소득	65
2.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66
제2절 가구소비	67
1. 생활비	68
2. 저 축	72
제3절 주거형태 및 비용	74
1. 입주형태 및 주거비용	75
2. 주택의 종류 및 주거비용	77
제4절 자산 및 부채	78
1. 부동산자산	79
2. 금융자산	81
3. 가구의 부채	84
제5절 자녀 교육	86
제5장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89
제1절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90
1. 경제활동상태	90
제2절 취업자의 특성	97
1. 산업·직업·인구학적 특성별 취업자의 분포	97

제3절 미취업자	103
1. 구직활동	103
2. 희망 일자리의 특성	105
제6장 임금근로자의 특성	110
제1절 임금근로자의 특성	110
제2절 근로시간	114
1. 평균근로시간	115
2. 초과근로시간	118
제3절 임 금	119
1. 임금지급주기 및 임금산정방식	119
2. 월평균 임금	122
제4절 비정규직 근로자	127
1. 비정규직의 규모	127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129
제7장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131
제1절 종사상 지위	131
제2절 근로시간	134
1. 근로시간의 규칙성과 주 평균근로일수	134
2. 주당 근로시간	135
제3절 근로소득	139
제4절 사업체의 창업	143
제8장 생활·직무 만족도 및 생활과 건강	145
제1절 생활 만족도	146
제2절 직무 만족도 및 불일치도, 조직 몰입도	150
1. 직무 만족도	150

2. 직무불일치와 기술(기능)의 유용성	155
3. 조직 몰입도 및 직무 만족도	159
제3절 생활과 건강	161
제9장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부가조사	165
제1절 노동조합 가입	165
제2절 노사협의회	169
제3절 인적자원관리와 근로자대표제도	172
제4절 노동조합에 대한 의견	176

표 목차

<표 2- 1> 1~8차년도 조사 결과 비교	15
<표 2- 2> 1~8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19
<표 2- 3> 8차년도(2005년) 설문내용	20
<표 2- 4> 각 연도별 조사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	26
<표 2- 5> 각 연도별 조사방식(본인, 대리인, 본인+대리인 응답) 분포	26
<표 2- 6> 조사성공 가구의 평균방문횟수	27
<표 2- 7> 시기별·지역별 조사진행률 추이	28
<표 2- 8> 각국의 가구패널 조사와 KLIPS의 원표본가구 유지율	30
<표 2- 9> 지역별 원표본가구 유지율	32
<표 2-10> 1~8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응답횟수	34
<표 2-11> 소득분위별 평균응답횟수 및 계속응답가구 비중(원가구 대비)	35
<표 2-12> 1~8차년도 계속응답가구의 가구주 특성	36
<표 2-13> 1~8차년도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횟수	38
<표 2-14> 1~8차년도 계속응답 가구원의 특성	40
<표 2-15> 각 8차년도 비원표본가구수	43
<표 2-16> 8차년도 비성공가구의 지역별 분포	44
<표 2-17> 각 비성공가구 방문횟수	45
<표 2-18> 각 비성공 사유별 평균방문횟수	46
<표 2-19> 8차년도 신규 조사자의 인구학적 특성	48
<표 2-20> KLIPS의 가중치 사례 수	50
<표 2-21> KLIPS의 가중치 변수명	51

<표 3- 1> 연도별 가구원수 변화 추이	53
<표 3- 2> 연도별 세대구성 변화 추이	55
<표 3- 3> 연도별 가족구성 형태별 변화 추이	56
<표 3- 4> 연도별 가구주의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 분포 추이 ...	58
<표 3- 5> 1~8차년도 조사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59
<표 3- 6> 2~8차년도 출생자의 특성	61
<표 3- 7> 2~8차년도 사망자의 특성	62
<표 4- 1> 연간 가구 총소득	66
<표 4- 2> 2~8차년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	69
<표 4- 3> 8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월평균 생활비	69
<표 4- 4> 주요 항목별 생활비 비중	71
<표 4- 5> 8차년도 부족한 생활비 마련방법	72
<표 4- 6> 2~8차년도 가구의 저축 유무 및 월평균 저축액	73
<표 4- 7> 8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월평균 저축액	73
<표 4- 8> 2~8차년도 가구의 입주형태 분포	75
<표 4- 9> 2~8차년도 가구의 주택종류 분포	78
<표 4-10> 부동산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	80
<표 4-11> 8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부동산자산 분포	81
<표 4-12> 금융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	82
<표 4-13> 8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금융자산 분포	83
<표 4-14> 부채잔액 분포	85
<표 4-15> 8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부채잔액 분포	86
<표 4-16> 8차년도 가구내 자녀유무 및 자녀 수	87
<표 4-17> 8차년도 자녀의 사교육 비용 및 부담 정도	87
<표 4-18> 8차년도 고등학교 이하 자녀의 사교육 이용 종류	88
<표 5- 1> 연도별 분석 자료의 사례 수 : 1~8차년도	89
<표 5- 2> 경제활동상태비교 : 1~8차년도	91
<표 5- 3>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 1~8차년도	93
<표 5- 4> 연령별 실업률 : 1~8차년도	94

<표 5- 5> 경제활동상태의 이동	95
<표 5- 6> 7차년도 → 8차년도 성별 경제활동상태 이행	96
<표 5- 7> KLIPS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 1998~2005년	97
<표 5- 8> 경황조사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 1998~2005년	98
<표 5- 9> 노동패널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	
1998~2005년	99
<표 5-10> 경황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 1998~2005년	99
<표 5-11> 산업 및 직업별 취업자 분포	100
<표 5-12>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산업 분포 : 8차년도	101
<표 5-13>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별 분포 : 8차년도	102
<표 5-14> 특성별 구직방법 : 8차년도	105
<표 5-15> 연도별 미취업 구직자 희망하는 고용형태 :	
1~8차년도	106
<표 5-16> 연도별 미취업 구직자가 희망하는 근로시간형태 :	
1~8차년도	106
<표 5-17> 인구학적 특성별 미취업 구직자의 희망 고용형태 :	
8차년도	107
<표 5-18> 미취업자가 희망하는 근로시간형태	108
<표 5-19> 미취업자가 구직시 주로 겪는 어려움	109
<표 6- 1> 각 연도별 임금근로자의 수와 비중 : 1998~2004년	111
<표 6- 2> 임금근로자의 특성별 분포	113
<표 6- 3> 연도별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	
1998~2005년	115
<표 6- 4>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	
2004년	116
<표 6- 5>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117
<표 6- 6>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	
2005년	117
<표 6- 7> 임금근로자의 초과근로	119

<표 6- 8> 임금지급주기 및 임금지급방법 : 2005년	120
<표 6- 9> 임금근로자 특성별 성과급제 실시 여부 : 2005년	121
<표 6-10> 연도별 월평균 임금 비교	122
<표 6-11> 임금소득분배 추이	124
<표 6-12>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 임금 : 2005년	125
<표 6-13>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	125
<표 6-14>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 직업별 및 사업체 특성별 임금 ..	126
<표 6-15>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과 비정규직	128
<표 7- 1> 각 연도별 비임금근로자의 수와 비중 : 1998~2005년	132
<표 7- 2> 1~8차년도 비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비교	132
<표 7- 3>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산업별 종사상의 지위 분포	133
<표 7- 4>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 및 주 평균근로일수	135
<표 7- 5>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 평균근로시간	137
<표 7- 6>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	137
<표 7- 7>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138
<표 7- 8> 연도별 월평균 소득 비교	139
<표 7- 9> 비임금근로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월평균 명목소득 : 2005년	141
<표 7-10>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월평균 소득 : 2005년	142
<표 7-11>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적자액 : 2005년	142
<표 7-12> 사업체의 창업 여부와 상속 여부	143
<표 7-13> 종사상 지위별 자본금 구성비	143
<표 8- 1> 항목별 생활 만족도 분포 : 2005년	150
<표 8- 2> 항목별 직무 만족도 분포 : 2005년	153
<표 8- 3> 인구학적 특성별 교육불일치 결과 : 2005년	156
<표 8- 4> 인구학적 특성별 기술(기능) 불일치 결과 : 2005년	157

<표 8- 5> 인구학적 특성별 기술(기능) 유용성 결과 : 2005년	157
<표 8- 6> 인구학적 특성별 조직 몰입도 및 직무 만족도 점수 결과 : 2005년	160
<표 8- 7> 인구학적 특성별 전반적 건강상태 : 2005년	162
<표 8- 8> 가구 소득수준별 건강상태 비교 : 2005년	163
<표 9- 1> 사업체 노조 유무 × 노동조합원 여부	166
<표 9- 2> KLIPS와 노동부 및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비교	168
<표 9- 3>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탈퇴 및 가입 의향	168
<표 9- 4> 노조 유무별 노사협의회 운영 여부	170
<표 9- 5> 노사협의회 잘 운영되고 있는지	170
<표 9- 6> 나의 직장에 노조와 노사협의회가 필요한지	170
<표 9- 7> 노조 유무별 노조와 노사협의회가 필요한지	171
<표 9- 8> 노사협의회 유무별 노조와 노사협의회가 필요한지	171
<표 9- 9> 문 15-1.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논의하는 통로 존재 유무	172
<표 9-10> 문 15-2. 해당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173
<표 9-11> 문 15-3. 해당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174
<표 9-12> 정기적인 팀(반, 부서) 회의	174
<표 9-13> 소집단 활동	175
<표 9-14> 청원 통로	175
<표 9-15> 제안 제도	176
<표 9-16> 문 23. 노동조합의 근로조건 영향력	177
<표 9-17> 임금근로자 임금분위별 노동조합의 근로조건 영향력 인식	177
<표 9-18> 문 24. 노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179
<표 9-19> 문 25. 노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역할	179
<표 9-20> 문 26. 노동조합에 대한 견해	179

그림 목차

[그림 2-1] 노동패널조사 연도별 계속응답 가구수	34
[그림 2-2] 각 연도별 조사성공가구원 대비 원표본가구원수 추이	38
[그림 2-3] 각 연도별 계속응답 가구원수 추이	39
[그림 2-4] 8차년도 이사가구 분포	42
[그림 2-5] 각 연도별 전체 응답가구 대비 비원표본가구의 비중	43
[그림 2-6] 비원표본가구원이면서 신규로 조사에 추가된 이유 (2~8차년도)	47
[그림 3-1] 8차년도 거주지별 가구원수 비중 및 평균 가구원 수	55
[그림 3-2] 8차년도 3세대가구의 지역별 비중	56
[그림 3-3] 사망자의 사망원인	63
[그림 4-1] 가구 총소득 대비 소득원천별 비중	67
[그림 4-2] 8차년도 가구의 가구구성별 월평균 생활비	70
[그림 4-3] 8차년도 가구의 저축 목적 분포	74
[그림 4-4] 8차년도 거주지별 자가의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	76
[그림 4-5] 8차년도 거주지별 전·월세평수, 임대보증금 분포	77
[그림 4-6] 8차년도 소유 부동산자산의 종류 분포	80
[그림 4-7] 2~8차년도 금융자산의 종류별 금액 추이	82
[그림 5-1] 최근 6년간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인구비율 비교 : 2000~05년	92
[그림 5-2] 최근 6년간 실업률 비교 : 2000~05년	92
[그림 5-3]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 8차년도	96
[그림 5-4] 미취업자의 구직방법 : 8차년도	103

[그림 5- 5] 성별·근로시간형태별 평균 희망임금	108
[그림 6- 1] 임금근로자의 학력 분포	111
[그림 6- 2] 임금근로자의 연령 분포	112
[그림 6- 3] 임금근로자 중 성과급을 받는 사람의 비중 추이 :	
2005년	121
[그림 6- 4] 다양한 정의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	128
[그림 6- 5]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및 시간당 임금액	130
[그림 7- 1] 1~8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136
[그림 7- 2]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소득 차액 비교	140
[그림 8- 1]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점수 : 1998~2005년	146
[그림 8- 2] 연령별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점수 추이	147
[그림 8- 3] 교육수준별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점수 추이	148
[그림 8- 4] 소득수준별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점수 : 2005년	148
[그림 8- 5] 경제활동상태별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점수 : 2005년	149
[그림 8- 6] 항목별 생활 만족도 점수 비교 : 2005년	150
[그림 8- 7]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 추이 : 1998~2005년	151
[그림 8- 8] 각 항목별 직무 만족도 점수 비교 : 1998년/2005년	152
[그림 8- 9] 성별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 : 2005년	153
[그림 8-10] 고용형태별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 : 2005년	154
[그림 8-11] 산업별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 : 2005년	154
[그림 8-12] 직업별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 : 2005년	155
[그림 8-13] 산업별 직무불일치 및 기술(기능) 유용성 비교 :	
2005년	158
[그림 8-14] 직업별 직무불일치 및 기술(기능) 유용성 비교 :	
2005년	159

[그림 8-15] 직업별 조직 몰입도 및 직무 만족도 점수 비교 :	
2005년	161
[그림 8-16] 산업별 건강상태 비교 : 2005년	164
[그림 8-17] 직종별 건강상태 비교 : 2005년	164
[그림 9- 1] 유노조 사업체의 비조합원들의 노조 비가입 이유	167
[그림 9- 2] 임금근로자의 임금 분위별 노조원 비율	178

제 1 장

머리말

본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제8차 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한 것이다. KLIPS는 기존의 단편적인 조사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노동시장에 관한 미시자료를 패널로 얻기 위해 실시하는 종단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이 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부의 지원을 받는 한편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는데, 1998년에 제1차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매년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05년에 제8차 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¹⁾ 이 보고서는 여덟 차례에 걸친 패널조사 가운데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을 마친 제8차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1~7차 조사 결과와도 비교하고 있다.²⁾

KLIPS는 1998년 제1차 조사에서 5,00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표본 가구와 이들 가구를 구성하는 13,321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다. 패널조사의 사활은 무엇보다도 최초 추출된 표본을 이후 조사에서도 얼마나 많이 조사하는가에 달려 있다. KLIPS는 지난 제7차 조사에서 원표본인 5,000가구의 77.3%를 조사하는 데에 성공하여 패널조사로서

* 본 연구는 남재량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노동패널팀의 성재민(제5장, 제9장), 이상호(제2장, 제3장, 제5장), 최효미(제4장, 제6장, 제7장), 신선옥(제3장, 제8장) 연구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 1) 2006년 10월 현재 제9차 조사가 마무리되었으며 이 조사 역시 높은 표본 유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 2) 각 연도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은 해당 연도의 기초분석보고서를 찾아보면 된다.

2 제8차(2005)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생명력을 잘 유지해 왔다.

이번 제8차 조사에서 원표본가구 유지율은 76.5%이다. 이는 PSID, SOEP, BHPS 등을 비롯한 외국의 우수한 패널조사에 결코 뒤지지 않는 결과이다. 이제 KLIPS는 적어도 표본 유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도 계속 성공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확고한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제8차 조사도 역시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였다. 이번에도 노동패널팀원들은 조사 현장을 세 차례에 걸쳐 방문하여 조사원들의 조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조사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욱 원만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차적인 노력에 추가하여 데이터 클리닝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입력 단계를 마친 자료상의 오류들을 다시 걸러 바로잡는 과정을 거쳤다. 게다가 학술대회용으로 미리 공개한 자료를 사용한 학술대회 발표자들의 문제제기와 조언들은 KLIPS 자료의 질을 높이는 데에 또 한 번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2006년 2월 2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된 제7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 총 26편의 논문이 제출되었으며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를 통하여 3편의 우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 역시 많은 참가자들의 열기 속에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들에 비추어 우리는 KLIPS가 양과 질 모두에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노동패널팀은 앞으로 거듭될 차수에서도 조사가 성공적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자료 사용자 제위 깨서도 KLIPS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기탄없이 패널조사의 발전을 위한 조언을 주시기 바란다.

KLIPS는 자료 사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왔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노동패널이라는 양질의 자료를 가지고는 있으나 분석 기법상의 한계로 인해 자료에 들어 있는 정보들을 충분히 그리고 엄밀하게 활용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 지난 제6회 학술대회는 특별 분과(special session)를 마련하여 패널자료 분석방법론에 대한 강연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 번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노동패널팀은 2007년 2월에 개최될 제8회 학술대회에서

다시 한번 패널 분석방법론에 대한 강연을 기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KLIPS 자료를 사용하는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보다 우수한 패널 분석방법론을 사용하여 더욱 엄밀하고 풍부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수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KLIPS의 발전을 위한 유익한 제언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제언이 다시 KLIPS의 발전을 가져오고 이에 따라 KLIPS의 사용을 촉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다면, 우리는 우리의 경제와 사회, 문화 등의 측면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우리 사회의 발전에 훌륭한 밑거름의 역할을 할 것이다.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다각도로 이루어졌다.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를 마련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미 지난 보고서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FAQ는 노동패널자료의 사용과 관련하여 팀에 접수되는 질문들 가운데 빈도가 높은 질문들을 29개로 추려 이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 것이다. 이를 사용자 지침(user's guide)에 추가하고 홈페이지에 올려 두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SAS와 SPSS 프로그램도 함께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FAQ는 그동안 자료 사용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는 FAQ의 문항을 더욱 늘리고 내용을 보완하여 홈페이지에 올려 두었다. 자료 사용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에 대한 이용자의 적극적인 문의는 앞으로도 FAQ를 더욱 확충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이제 KLIPS의 구성과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자. KLIPS은 기본조사와 부가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조사는 매년 반복되는 기본적인 내용들로 구성된다. 부가조사는 패널조사를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여 기본조사에 덧붙여 실시하는 추가적인 조사이다. 기본조사는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의 경제활동을 주로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에 대한 조사는 가구의 구성과 가구 소득 및 소비, 주거 등의 내용을 조사한다. 가구원에 대한 조사는 가구를 구성하는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실시하며 취업자 개인(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과 미취업자 및 신규 진입자에 대한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내용은 개인의 경제활동, 노동력 상태, 소득, 노동시장 이동 등 다양하다.

4 제8차(2005)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본 보고서의 구성도 KLIPS의 설문과 유사하다. 제2장은 제8차 조사에 대해 개관하고 있으며, 제3장과 제4장은 가구에 대한 주요 조사 자료들을 분석한 것으로서 각각 조사가구의 특성, 가계 경제 및 자녀의 사교육과 보육에 대해 다룬다. 제5장부터 제8장까지는 가구원에 대한 조사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3장은 가구와 가구원의 현황 및 구성 변화를 인구통계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한다. 제4장은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해 살펴본다. 제5장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해 분석한다. 제6장과 제7장은 각각 개별 근로자 가운데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근로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제8장은 응답자 개인들의 생활, 경제활동, 직무 등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 제9장은 부가조사 결과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KLIPS는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3차 조사에서 처음 실시된 부가조사는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반영하여 청년층에 집중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4차 조사에서는 건강과 은퇴에 대한 부가조사를 실시하였고, 제6차 조사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을 반영하여 중·고령자에 대한 조사를 부가조사로 실시하였다. 제7차 조사는 ‘근로시간과 여가’에 대해 조사하였다. 제8차 조사는 ‘노동조합과 노사관계’³⁾를 조사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 분야의 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제 KLIPS은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뿐 아니라 노사관계 분석에 필요한 자료까지 제공하는 보다 풍부한 패널자료가 되고 있다.

이제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간략히 정리하자.

제2장은 8차년도 패널조사의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 표본 유지율, 응답가구와 가구원 특성, 이사분가가구와 신규 조사자의 특성 등과 같은 전반적인 조사개요를 다루고 있다. 8차년도 조사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원표본 3,823가구 및 분가한 1,027가구를 합하여 총 4,850가구에 대한 조사를 성공하였다. 개인응답자는 전체 11,580명으로 이 중에서 기존 조사자가 11,199명, 새로 진입한 신규가구원이 381명이었다.

3) 제9차 조사는 ‘청년’에 대해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표본 유지율을 살펴보면 1차년도 원표본 5,000가구 대비 원표본유지율은 76.5%로 전년도 원표본유지율 77.3%에 비해 0.8%p가 하락하였다. 또한 소멸가구를 제외한 유효표본가구(8차년도 4,935가구) 대비 표본유지율은 77.5%로 전년도 유효표본유지율 78%보다 0.5%p가 하락하였다. 7차년도에 약 15%p 수준으로 차이가 났던 지역간 성공률 격차는 더욱 좁아져 8차년도에는 약 10%p 수준으로 좁혀졌다. 면접 방식에 있어서도 응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대면이 85%를 넘어서고 있어서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8차년도의 전반적인 조사성과는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가구와 가구원들의 현황 및 구성변화를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제1절에서는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가구주의 특성과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에 대해서 알아본다.

우선 가족구성 측면에서 8차년도에 조사된 평균 가구원수는 3.2인이며, 4인 가족(35.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세대별로는 가구주와 그의 자녀 혹은 부모가 같이 사는 2세대 가구가 66.4%로 2/3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의 가구추계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으며, 핵가족화의 진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가구주의 구성은 남성이 82% 이상이 가구주라고 응답하여 여전히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남성중심의 가계구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5세 이상 가구원의 평균연령은 41.4세로 나타났다.

제4장은 가구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특성들을 살펴보고 있다. KLIPS에서는 가구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항목을 측정해 오고 있다. 8차년도 조사에서는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해 각 항목별 액수와 종류에 대해 조사하였다. 제1절에서는 가계소득 부문으로서 가구의 총소득 및 각 항목별 소득분포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가구의 소비를 생활비와 저축 항목으로 구분하여 알아본다. 제3절에서는 가구의 주거형태에 대해 살펴보고, 제4절에서는 가구의 자산과 부채의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6 제8차(2005)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는 자녀교육에 대해 알아본다.

연도별로 가구 총소득의 추이를 살펴보면, 8차년도 연간총소득은 3,110만원(월평균 259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87만원 늘어났으며, 실질소득으로 환산하면 7차년도에 비해 71만원 증가하였다.

월평균 생활비는 전년도에 비해 6만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활비의 증가폭은 4차년도까지 점차 커지다가 5차년도부터는 완만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8차조사에서는 가구소득에 비해 생활비 지출이 많은 가구에 대해 부족한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분석결과 저축이나 예금·적금의 해약을 통해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은행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한다는 응답도 25.9%에 달했다. 또한 현금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도 11.1%에 달해, 대부분의 가구는 금융기관을 통해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8차년도 조사가구 중 저축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68.5%이며, 월평균 저축액은 44만 8천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사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48.5%를 차지하여 2차년도 조사(49.5%) 당시보다 약 1.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채잔액은 2차년도 1,843만 8천원에서 8차년도 2,989만 7천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재수생 이하 자녀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이용실태와 대학(원)생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다루고 있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2.0%였으며, 2명인 경우가 5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17.1%의 가구만이 대학생 자녀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대학생 자녀는 1명인 경우가 7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용은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경우에는 40만 5천원(자녀당 교육비는 25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대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평균 502만 7천원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당 평균 409만 9천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이하 자녀들이 이용하는 사교육기관에 대해서 살펴보면, 학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55.8%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제5장은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KLIPS의 경제활동상태 구분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상태 구분과는 다소 다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상태는 15세 이상으로 조사대상 기간⁴⁾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실제 수입이 있는 노동을 제공했으면 취업자로, 그 기간에 그런 노동을 위한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하며, 이들을 묶어 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한다. 반면 KLIPS는 조사일에 노동을 제공하고 있었으면 취업자로 보며, 그렇지 않은 사람 중 지난 1주(또는 4주)간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한다는 차이가 있다. 조사대상 기간만 고려하면 되는 횡단면조사와 달리, 중단적으로 바뀌는 모든 일자리 변동 상황을 기록해야 하는 KLIPS의 특성상 미취업자와 구분되는 의미로서 취업자를 정의할 때 현재 일하고 있는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의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할 때 2005년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통계청 61.0% 대비 노동패널 56.4%로 낮게 나타났지만, 1998년 이후 추이 자체는 별 차이가 없었다. 두 자료는 가구 조사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 각각의 조사 특성을 반영하여 경제활동상태 분류 기준이 다소 상이하고, 조사대상 기간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치의 차이가 크지 않고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볼 때 20%가 약간 넘는 탈락률에도 불구하고 KLIPS가 비농가 부문의 경제활동을 여전히 대표성 있게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실업률의 경우는 최근 3년간 격차가 생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6장은 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특성들을 살펴본다. 8차년도에는 전체 4,085명의 임금근로자가 조사되었으며,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 비율은 1차년도 62.4%에서 꾸준히 늘다가 8차년도에 다소 감소하여 65.8%에 이른다. 임금근로자 전체의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학력별로는 고졸자의 비중이 33.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대졸자로 23.4%를 차지한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가 29.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4) 조사일 바로 전 주가 조사대상 기간이다.

8 제8차(2005)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다음으로는 40대가 26.8%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공공서비스업⁵⁾이 33.4%로 가장 높았으며, 광공업(24.6%)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여성의 경우에도 공공서비스업 종사자가 38.5%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산업은 광공업이 아니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5.0%)이었다. 직종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가운데 생산직이 38.7%로 가장 많았고, 전문관리직(28.6%)이 그 다음이었다. 그러나 여성은 전체 분포에 비해 사무직(23.0%), 서비스직(22.8%)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형태별로는 대다수가 민간회사(73.6%)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정부기관(9.4%)이 그 다음이었다. 성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7장은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특성들을 살펴본다. 8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수는 2,125명이었으며,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34.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8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용주가 23.3%, 자영업자 57.4%, 그리고 가족종사자는 19.4%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는 교육수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고용주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가족종사자는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8차년도에는 54.1시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4차년도 조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5차년도 조사에서 소폭 상승한 후 다시 감소한 것이다.

제3절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명목소득(이하 월평균소득)과 월평균실질소득을 살펴보았다. 먼저 지난 8년간 월평균명목소득의 추세를 살펴보면, 1998년 132만 2천원에서 2차년도에 127만 8천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에는 238만 9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8차년도(2005년) 들어서는 오히려 감소하여, 224만 2천원에

5) 공공서비스업에는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및운동관련산업, 기타 공공·수리및개인사업 등이 포함된다.

그쳤다. 또한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실질소득으로 환산하여 살펴 보면, 이들은 2차년도와 6차년도, 8차년도에 부(-)의 성장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월평균소득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간 소득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KLIPS에서 조사된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은 임금근로자보다 높았으며 그 격차는 1차년도 21만 8천원에서 5차년도 73만 2천원으로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다가 6차년도에 62만 7천원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다시 7차년도 이후 격차가 다소 증가하여, 8차년도에는 75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임금근로자의 창업과정에 대한 분석이 제4절에 제시되어 있다. 고용주와 자영업자 중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가진 경우(유형 7)는 299명으로 조사되었다. 창업주체와 관련하여, 가족 또는 친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기(8.5%)보다는 본인 스스로 창업한 경우(86.0%)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창업을 통해 사업체를 시작하게 된 응답자에게 사업비용을 어떻게 조달하였는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응답대상자의 77.0%가 본인의 가족 및 친지를 통해 사업비용을 조달하였으며, 정부의 보조 및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제8장은 15세 이상의 개인이 응답한 생활 만족도, 직무 만족도, 개인의 건강과 생활에 대해 알아본다. 앞장까지는 객관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생활과 경제활동을 다루었지만, 이 장에서는 응답자 개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개인의 생활과 경제활동의 만족도를 다룬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1절에서는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이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으로 가족의 수입, 여가생활, 주거환경, 가족관계, 친인척관계 및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다. 분석한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가 높아졌다(1998 → 2005 = 2.89 → 3.24). 성별로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가구의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2절에서는 직업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로 직무 만족도, 직무 몰입치도를 비롯하여 조직 몰입도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1998년에는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불만족의 응답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1999년부터 최근까지는 만족의 응답비중이 상회하였다. 2005년을 대상으로 항목별 직무만족의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일의 내용(39.1%)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임금/보수(43.3%)에 대해서는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2005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기술(기능)수준의 직무불일치를 살펴보면, 교육불일치 측면에서 취업자 10명 중 2명 정도(19.8%)가 하향취업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연령별로는 젊은층일수록, 교육수준별로는 대재 및 중퇴자를 제외하고 고졸자의 하향취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기술(기능)불일치를 살펴보면, 취업자 중 18.4%가 직무에 비해 기술(기능) 수준이 과잉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응답유형 역시 교육 불일치와 유사한 구조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조직 몰입도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높고,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제3절에서는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살펴본다. 개인의 건강에 관한 문항들을 통해 현재의 건강상태, 육체적 장애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본다. 2005년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50.7%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자신이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55.8%로 여성의 응답 비중 45.9%보다 9.9%p 높게 나타났다.

제9장은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에 대한 부가조사를 소개하고, 몇 가지 항목에 대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노동조합 참가 성향에 대하여 보다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노조원인지, 사업체에 노조가 있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질문항목뿐 아니라 조합원을 위해서는 탈퇴할 의향이 있는지, 비조합원을 위해서는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추가로 질문하였으며, 노동조합 가입에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되어 온 평소의 정치사회적 가치관, 노조가 근로조건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노조 도구성 인식 등도 질문하였다. 노동조합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조합원이 아니라면 조합원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얼마나 활동할 것 같은지도 질문하였다.

상기의 문항들을 이용해 비노조원들 중 노동조합 가입을 희망한 사람들이 모두 노조원이 된다면 노동조합 조직률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 계산해 보았더니 현재 11%대의 조직률이 무려 42.4%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에 노동조합을 원하지만 이런 저런 장벽들로 인해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소위 좌절된 수요가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노사협의회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노사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관심이 있는지, 실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노사관계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식으로 근로자측 대표를 선정하는지 등을 14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결과를 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76.4%는 사업체에 노사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단지 14.4%만이 노사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9.2%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법적으로는 3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자기가 다니는 회사는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50.2%는 법적 설치 의무가 없는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가 노사협의회와 관련된 법을 어기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운영이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거나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면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체 조사가 아니므로, 정확한 수치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노사협의회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노사협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여덟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질문해 보았더니 평균으로 볼 때 잘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부가조사는 회사의 인적자원관리와 근로자참여제도에 대한 질문도 포함하고 있다. 어떤 제도가 존재하는지, 내실있는 운영 여부, 직장에 이런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직장에서 업무나 복리후생 등과 관련하여 개별 근로자들이 행사하는 영향력 정도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또한, 직장에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불만을 느끼고 있는지, 불만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해소하는지도 임금, 근로시간, 노동강도,

승진, 고용계약의 연장 등 11가지 항목을 이용해 조사하였다. 대체로 실제 근로자참여제도 같은 인적자원관리제도의 확산 정도나 근로생활에서의 영향력은 근로자들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가조사는 노동조합에 대한 여론 조사도 포함하고 있다. 여론 조사에서는 노동조합의 근로조건 영향력, 노동조합이 선거나 법률 제정 등에 미치는 영향력, 사회경제적 역할, 기타 노동조합의 역할들에 대해 모든 패널 참가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좀더 크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등 대체로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아마도 노동조합을 실제 경험했는지가 노동조합에 대해 상이한 인식을 낳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제 2 장

한국노동패널 8차 조사의 개요

제 1 절 한국노동패널조사란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조사(longitudinal survey)로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06년 10월에 9차년도 실사까지 완료되었다.⁶⁾

패널자료는 횡단면적 자료와 시계열자료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점에서, 외국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패널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1960년부터 패널조사를 시행한 미국의 경우 현재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1966년부터 시작된 NLS(National Longitudinal Survey)와 1979년부터 시작된 NLSY(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그리고 가구와 개인의 소득 및 소비에 초점을 맞추어 1968년에 시작된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등의 패널조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청년층

6) 한국노동패널조사와 연구는 노동부의 고용보험 연구사업비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울러 본 조사는 통계청의 공식 승인을 받아 수행되고 있다(통계청 승인번호 : 33601).

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패널조사로는 미국 국가교육통계센터(National Education Statistics Center)에서 주관하여 1988년부터 조사되고 있는 국가교육중단연구조사인 NELS(National Education Logitudinal Study)와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BPS(Beginning Post-secondary Student Longitudinal Study), 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B&B(Baccalaureate and Beyond Longitudinal Study) 등이 진행되고 있다. 그 외에도 1993년에 시작된 캐나다의 SLID(Survey of Labor and Income Dynamics), 1991년에 시작된 영국의 BHPS(British Household Panel Study), 1984년에 시작된 독일의 GSEP(German Socio-Economic Panel) 등이 있다.⁷⁾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3년 ‘대우패널’이 시작된 이래 최근에는 여러 대학 및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시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우선 1993년 대우경제연구소에 의해 수행된 한국가구패널조사(Korea Household Panel Study : KHPS)는 앞서 언급한 대로 최초의 본격적인 패널조사이지만, 1998년 7차 조사를 끝으로 중단되었다. 대우패널의 경험은 서베이 조사체계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한국의 상황에서 커다란 도전이었다. 이러한 대우패널의 성과와 한계는 1998년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로 이어졌으며, 각 정책과 학문분야에서 보다 새로운 자료를 갈망하던 욕구들로 인해 자연스럽게 패널조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특히 2000년 이후 개인표본이나 특정집단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패널조사들이 시도되고 있다. 우선 청년층의 고용, 교육 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중앙고용정보원에서 2001년부터 15~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가 있다. 2002년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활패널’이 시작되었으며, 2004년에는 한국직업능력개발

7) 아시아 지역의 패널조사로는 1993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인도네시아의 IFLS(Indonesia Family Life Survey)를 비롯하여 일본의 JPSC(Japanese Panel Survey on Consumers), 대만의 PSFD(Panel Study of Family Dynamics), 2001년도부터 조사가 시작된 호주의 HILDA(Household, Income and Labor Dynamics in Australia) 등이 있다. 한편 전세계의 패널연구 현황에 대해서는 미국의 PSID 홈페이지 중 세계 각국의 패널조사를 소개한 페이지(<http://www.isr.umich.edu/src/psid/panelstudies.html>)를 참고.

원의 청년층 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과 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패널 구축이 시작되고 있다. 2005년에 시작된 조사로는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한국복지패널’,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패널’ 등이 있다. 이 외에도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자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빈곤패널’ 등이 있다. 한편 개인이나 가구 단위의 조사가 아닌 사업체나 기업체 단위의 패널구축도 향후 본 궤도에 이를 전망이다. 대표적인 것들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을 비롯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 기업패널조사’ 등이 있다. 이렇듯 국내에서 20여 개 이상의 패널조사들이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단계에 있다.

지금부터는 KLIPS의 진행상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표 2-1>을 통해서 조사 연도별 경과를 살펴보면, 1998년에 실시된 1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원표본 5,000가구 총인원 17,505명 중 3,775가구의 조사에 성공하여 원표본 성공률은 75.3%였으며, 추가 표본으로 1,227가구를 조사하여 총 조사된 가구는 5,000가구였다. 이 중 15세 이상 가구원 13,738명 중에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은 13,317명이었다.

<표 2-1> 1~8차년도 조사 결과 비교

	조사성공 가구수 ¹⁾	원표본 가구수 ²⁾	표본 유지율 ³⁾	분가 가구수	가구원 수 ⁴⁾	실사 기간
1차조사('98)	5,000	5,000	100.0	-	13,321	6~10월
2차조사('99)	4,509	4,379	87.6	130	12,042	7~12월
3차조사('00)	4,267	4,045	80.9	222	11,206	5~10월
4차조사('01)	4,248	3,865	77.3	383	11,051	5~10월
5차조사('02)	4,298	3,798	76.0	500	10,966	4~ 9월
6차조사('03)	4,592	3,862	77.2	730	11,543	4~ 9월
7차조사('04)	4,762	3,863	77.3	899	11,661	4~ 9월
8차조사('05)	4,850	3,823	76.5	1,027	11,580	4~10월

주: 1) '조사성공가구'는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유효표본가구와 조사 성공한 분가가구를 포함한 총 조사성공가구임.

2) '원표본가구'는 1차년도 조사 당시 원표본이었던 5,000가구 중 해당연도에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의미함.

3) '표본유지율'은 1차년도에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해당연도에 조사 성공한 유효표본가구의 비임.

4)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 수.

1999년에는 한국노동패널 제1차 조사에 포함된 원(原)표본가구⁸⁾에 대하여 제2차 조사가 실시되었다.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제2차 조사에 성공한 유효표본가구⁹⁾는 4,379가구로 표본유지율은 87.6%이며 원표본가구의 가구원이 분가하여 새로 일가를 이룬 경우 이들을 추적조사한 130 분가가구¹⁰⁾를 포함하여 제2차 조사에 포함된 총 가구수는 4,509가구였다. 개인응답자를 기준으로 볼 때, 제2차 조사는 1차 조사에 포함된 15세 이상 가구원 13,321명 중에서 11,237명을 재조사하는 데 성공하여 84.4%의 표본유지율을 기록하였다.

2000년에는 제3차 KLIPS가 실시되었으며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제3차 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4,045가구로 원표본가구의 표본유지율은 80.9%이며 분가한 222가구를 포함하여 제3차 조사에 포함된 총 가구수는 4,267가구였다. 이어서 제3차 조사의 총 응답가구원은 11,206명이며 이 중 기존 조사자는 10,740명이고 신규 조사자는 466명이었다. 1차 조사에 포함된 15세 이상 가구원 13,321명 중에서는 10,540명을 재조사하는 데 성공하여 79.1%의 표본유지율을 기록하였다.

2001년에 실시된 제4차 조사에는 총 4,248가구가 조사되었으며, 이 중 원표본가구는 3,865가구로 77.3%의 표본유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분가한 가구는 383가구이며 총 응답가구원은 11,051명이었다. 가구원의 표본유지율을 살펴보면, 1차 조사에 포함된 15세 이상 가구원 13,321명 중에서 4차 조사에 성공한 가구원은 11,051명이었으며 이 중 기존 조사자는 10,607명, 신규 조사자는 444명이었다. 4차 조사에 성공한 가구원 중 원표본가구에

8) '원표본가구'는 제1차년도에 표본으로 추출되어 1차 조사완료된 유효표본가구를 의미한다.

9) '유효표본가구'는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표본가구를 의미하며 조사대상 표본가구에 속한 면접대상 가구원, 특히 우선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응답한 '면접대상자'들이 설문지의 거의 모두와 핵심적 문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하여 조사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조사대상가구의 가구원 중 가구주와 그 배우자 및 자녀들과 조사일 현재 경제활동 중인 가구원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하며 우선 조사대상 전원에 대한 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만이 '유효표본가구'에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10) '분가가구'는 1차년도 조사시에는 '원표본가구원'이었으나 조사 이후 결혼이나 세대 분리 등으로 '원표본가구'로부터 분가하여 독립적으로 형성한 가구 또는 분가하여 들어간 다른 가구를 말한다.

속하는 가구원은 10,332명이며 신규 조사자 중 원가구원은 240명이었다.

2002년에 실시된 제5차 KLIPS에는 원표본 3,798가구 및 분가한 500가구를 합하여 총 4,298가구가 조사에 성공하였으며, 원표본유지율은 76%로 전년도에 비해 1.3%p 감소하였다. 표본유지율을 개인단위로 살펴보면 조사에 성공한 개인 10,966명 중에서 기존 조사자는 10,557명이며, 새로 진입한 신규 가구원도 409명에 이른다.

2003년에 실시된 제6차 KLIPS에는 원표본 3,862가구 및 분가한 730가구를 합하여 총 4,592가구의 조사에 성공하였으며, 원표본유지율은 77.2%로 전년도에 비해 1.2%p 증가하였다. 한편, 개인응답자는 전체 11,543명으로 이 중에서 기존 조사자가 10,985명, 새로 진입한 신규 가구원이 558명이었다.

2004년에 실시된 제7차 KLIPS에는 원표본 3,863가구 및 분가한 899가구를 합하여 총 4,762가구의 조사에 성공하였으며, 원표본유지율은 77.3%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개인응답자는 전체 11,661명으로 이 중에서 기존 조사자가 11,217명, 새로 진입한 신규 가구원이 444명이었다.

2005년에 실시된 제8차 KLIPS는 원표본 3,823가구 및 분가한 1,027가구를 합하여 총 4,850가구에 대한 조사를 성공하였으며, 원표본유지율은 76.5%로 전년도에 비해 0.8%p정도가 하락하였다. 한편, 개인응답자는 전체 11,580명으로 이 중에서 기존 조사자가 11,199명, 새로 진입한 신규 가구원이 381명이었다.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실사 현황은 지난해에 이어 8차년도에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 4~5년간 1%p 이내에서 표본이탈률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원표본가구를 포함하는 전체 표본 역시도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종단면조사로서 향후 장기간에 걸쳐 성공적으로 조사가 수행될 경우 각종 노동정책의 수립 및 평가,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노동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기초자료로의 입지를 드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절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과 설문내용

1.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KLIPS 자료는 크게 가구용과 개인용으로 나뉘며, 개인용은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나뉘고, 취업자는 다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뉜다. <표 2-2>를 통해서 연도별로 노동패널 자료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8년 1차년도 조사자료는 가구용 자료와 개인용 자료로 나뉘고, 개인용 자료는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자로 구성되어 있다. 1999년 2차년도 조사자료는 개인의 노동시장의 진입과 탈퇴 및 이동을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일자리별 유형 설문을 개발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밖에 가구용, 개인 공통, 그리고 연령이 15세가 되거나 혼인 등으로 조사가구에 편입되어 조사에 새로 참여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응답자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00년에 실시된 3차년도 조사자료는 가구용 조사자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용 자료는 다시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자로 나누었다. 2001년 4차년도 조사자료부터는 개인용 조사자료 중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묶어서 취업자용으로 통합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가구용 자료, 개인용 중 취업자용, 미취업자용, 신규용 자료라는 구조는 2005년 8차년도 조사자료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가구용 및 개인용으로 구성되어 매년 비슷한 내용을 반복 조사하는 본 조사 자료와는 달리 2000년 3차년도부터는 중요한 쟁점에 대한 심층조사를 위해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3차년도에 청년층의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이동을 심도있게 파악하고자 처음으로 ‘청년층’ 부가조사를 실시한 이래, 2001년 4차년도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건강과 장애, 그리고 의료기관 이용에 대해 질문하고 만 45세 이상의 개인응답자들을 대상으로는 은퇴 여부, 은퇴 시기, 은퇴 이전 일자리 특성에 대해 파악하는 ‘건강과 은퇴’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6차년도에는 4차년도 부가조사에서 다루었던 ‘건강과 은퇴’라는 주제에서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은퇴과정에 집중하여 만 50세(1953년 4월 30일 이전 출생자) 이상의 개인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중고령자’ 부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7차년도에는 법정근로시간의 점진적 단축과 이로 인한 생활 시간 사용의 변화와 여가시간 사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모든 개인응답자에 대하여 ‘근로시간과 여가’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8차년도에는 모든 개인응답자에 대해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에 대한 실태와 인식을 파악하고자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2-2〉 1~8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1차년도 (1998)	2차년도 (1999)	3차년도 (2000)	4차년도(2001) 이후 ~8차년도(2005)까지
가구용 자료			○	○	○	○
개 인 용 자 료	유형 ①~⑧		×	○	○	○
	개 인 공 통	취 업 자	임금 근로	○	○	○
			비임금 근로		○	
		미취업자	○		○	
신규용 자료			×	○	○	○
부가조사 자료			×	×	○	4, 6, 7, 8차년도(5차 제외)

주: 3차년도에는 청년층, 4차년도에는 건강과 은퇴, 6차년도에는 중고령자, 7차년도에는 근로시간과 여가, 8차년도에는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에 대한 부가조사가 실시되었음.

2. 설문내용

KLIPS의 8차년도 설문지는 본 설문 부분으로 가구용 설문, 예비조사 설문, 유형설문, 취업 및 미취업자용 설문, 신규 조사자용 설문으로 구성되며, 이 외에 ‘노동조합과 노사관계’를 주제로 한 별도의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구성별 설문내용¹¹⁾을 조사 자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3 참조).

11) 1~8차년도 조사자료의 설문내용은 ‘각 연도별 설문지 및 KLIPS 1~7차 User’s Guide’를 참조.

〈표 2-3〉 8차년도(2005년) 설문내용

<p>가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의 인적사항 ▪ 변동 가구원(추가, 분가, 사망) 관련 문항 ▪ 가족관계와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관련 문항 ▪ 주거 관련 문항 ▪ 자녀교육 및 자녀보육 관련 문항 ▪ 가구의 소득 ▪ 가구의 소비 ▪ 가구의 자산과 부채 ▪ 가구의 경제상태 및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 항목
<p>예비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조사시 일자리 응답내용 확인과 현재 지속 여부 ▪ 지난 조사 이후 새로운 일자리 종사상 지위와 현재 지속 여부
<p>유형 ①, 유형 ② 유형 ⑤, 유형 ⑥ (임금근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관련 변경사항 ▪ 일자리 형태 및 규모 ▪ 근로계약 관련 문항 ▪ 근로시간 관련 문항 ▪ 임금 관련 문항 ▪ 일자리를 통한 사회보험 가입 여부 ▪ 일자리의 노동조합 ▪ 일자리 그만둘 당시의 상황 ▪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 ▪ 구직활동 관련 문항
<p>유형 ③, 유형 ④ 유형 ⑦, 유형 ⑧ (비임금근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관련 변경사항 ▪ 일자리의 종업원 수와 가족종사자의 수 ▪ 일자리의 근로시간 ▪ 일자리의 매출액과 소득 ▪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상황 ▪ 구직활동 관련 문항 ▪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 ▪ 현재 하는 사업의 가치(금액으로 환산) ▪ 사업체의 장기적 전망 ▪ 임금근로자로의 전직 의사 ▪ 사업체 시작 당시 비용 혹은 투자액 ▪ 사업비용 조달방법 ▪ 창업과정의 어려움

〈표 2-3〉의 계속

취업자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상태(취업) ▪ 현재 하는 일의 고용상의 특성 ▪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 근로시간 관련 사항 ▪ 직무만족도 ▪ 현재 하는 일의 교육, 기술 수준 적합도 ▪ 구직활동 및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구직시 어려움(공통) ▪ 교육 및 직업훈련(공통) ▪ 사회보험 수급 관련 사항(공통) ▪ 정규교육 관련 사항(공통) ▪ 혼인상태(공통) ▪ 생활만족도 및 경제적 여건(공통)
미취업자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상태(미취업) ▪ 구직활동, 구직방법,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구직시 어려움 ▪ 교육 및 직업훈련 ▪ 사회보험 수급 관련 사항 ▪ 정규교육 관련 문항 ▪ 혼인상태 ▪ 생활만족도 및 경제적 여건
신 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설문문의 모든 내용 포함 ▪ 만 15세 이후의 이전 일자리의 경력 ▪ 부모님의 학력 ▪ 만 14세 무렵의 아버님(계시지 않았던 경우 어머니)의 경제활동상태 ▪ 출생지와 만 14세 무렵의 주요 성장지, 형제자매의 수 ▪ 혼인력과 출산력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평일근무 기준 세부조사)과 휴가 ▪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평일근무 기준 세부조사) 및 주5일제 시행이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 조사 ▪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효과(임금/비임금 공통) ▪ 여성의 생리휴가 및 출산휴가 ▪ 생산시간표를 평일/토요일/일요일로 나누어 조사(모든 응답자) ▪ 여가의 내용, 소요시간, 지출 경비, 독서, 종교활동(모든 응답자) ▪ 미취업자의 여가계획

우선 가구용 설문은 크게 가구원과 관련된 내용과 전체 가구 관련 내용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7차년도 조사와 비교할 때 설문내용상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가구원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지난 조사와 동일하게 가구원의 성별·연령·학력·가구주와의 관계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적 사항 이외에 가구원의 추가·분가·사망 등 가구원의 변동사항 등이 조사되었다. 가구단위로 조사된 내용 역시 지난 조사와 같이 주거(변동)상황, 부모님과과의 경제적 교류 관계, 가구의 소득·소비·자산·부채 등이 조사되었다. 8차년도 가구용 설문에서 이루어진 가장 큰 변화는 가구소득에 비해 소비지출이 큰 가구의 사유를 측정하는 문항을 신설한 것이다. 가구소득 총액과 생활비 총액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혹시 면접이나 코딩 오류가 아닌지를 확인하여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의도로 설계된 것이다. 개인단위로 조사되는 설문지는 크게 응답자에게 어떠한 유형설문을 실시할 것인가를 판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예비설문, 기존의 응답자에 대해 일자리 단위별로 조사하는 유형설문, 유형설문에서 조사되는 내용 이외에 개인단위의 질문으로 구성된 취업자 및 미취업자용 설문, 새로 조사에 진입한 응답자에 대해 조사하는 신규 조사자용 설문, 마지막으로 전체 개인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되는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설문으로 구분된다.

임금근로자의 일자리에 대해 조사되는 내용(유형 ①, 유형 ②, 유형 ⑤, 유형 ⑥)으로는 일자리의 산업 및 직업, 기업형태 및 규모, 근로계약상태, 근로시간, 임금, 일자리 단위로 가입되는 사회보험 관련 내용, 노동조합, 구직활동 등이 기존의 조사와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교대제 형태에서 주야 맞교대제(2조 2교대)인 경우 기타에 응답하는 사례가 많아 설문문항의 설명을 구체화하여 변경하는 등의 소폭 조정이 있었다.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에 대한 내용(유형 ③, 유형 ④, 유형 ⑦, 유형 ⑧)으로는 일자리의 종업원 수, 근로시간, 매출액과 소득, 구직활동 관련 문항, 직업 및 산업 등이 동일하게 조사되었다. 덧붙여 기존에 ‘가족종사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혼용되던 용어에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무급가족종사자’로 용어를 통일하였다. 또한 자영업자의 월평균소득을 파악하는 질문에 ‘적자항목’을 신설하였다.

조사 대상이 되는 전체 개인을 취업자 혹은 미취업자로 구분하여 조사된 설문에는 공통적으로 경제활동상태, 구직활동, 사회보험 수급, 학교명, 학교 유형, 소재지, 전공 등 정규교육 관련 문항, 혼인상태, 사회적 친분 관계 만족도, 생활만족도 및 경제적 여건 등이 기존의 조사와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취업자의 경우에는 현재 하는 일의 고용상의 특성,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근로시간 관련 추가문항, 직무만족도, 일의 교육, 기술 수준 적합도 등이 조사되었으며,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성, 비구직사유 등 미취업 상태와 관련된 문항이 조사되었다. 또한, 취업자 중에서 주된 일자리가 임금근로인 경우에는 비정규직 실태와 관련된 문항을 유지하였다. 기존에 포함되었던 위험에 대한 태도 및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관련된 문항은 삭제되었다. 대신 8차년도 부가조사의 주제에 연동하여 노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역할,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견해, 개인의 정치·경제적 가치관 등에 대한 문항이 신설되었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사회통계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사회적 계층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만 14세일 무렵 경제적 형편에 대한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성장 당시의 정보 활용에 대한 폭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신규용 설문은 당해 연도에 조사되는 유형 ①~⑧에 해당되는 모든 설문내용 및 취업자·미취업자용 설문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단위의 조사에 처음으로 진입하였기 때문에, 만 15세 이후에 가졌던 일자리의 직업, 산업, 종사상 지위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학력, 만 14세 무렵 부모님의 경제활동상태, 출생지와 만 14세 무렵의 주요 성장지 및 혼인력과 출산력에 대한 조사까지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용 설문에는 개인용 설문에 반영된 모든 변경사항이 동일한 구조로 반영되었다.

부가조사는 주요 이슈에 대해 매년 주제를 달리하여 이루어지는 심층 조사이다. 8차년도에는 ‘노동조합과 노사관계’¹²⁾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노사관계에 대한 생각, 국민 중 얼마나 되는 사

12) 8차년도 부가조사의 조사목적, 관련된 기초통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성재민(2006), 『무노조 기업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 희망- KLIPS 8차년도 부가조사 자료의 소개』, 『노동리뷰』 1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참조.

람들이 노동조합원인지, 왜 어떤 사람은 가입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는지, 노조나 노사협의회가 하는 일에 얼마나 관심들을 갖고 사는지, 조합원 개 개인의 활동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회사에서 일하면서 무엇이 주로 불만 이고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는 시스템이 회사에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존재하는지 등과 같은 사안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런 설문들은 사업체를 통한 조사에서는 제대로 된 응답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제 3 절 조사방법과 조사결과

1. 조사과정 및 조사방법¹³⁾

KLIPS의 실사는 민간조사업체인 「한국리서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8차년도 조사는 2005년 4월에서 9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방법은 면접원이 질문하고 그 응답을 면접원이 기록하는 면접타 계식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심야귀가 등의 원인으로 면접원이 조사 대상자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용 설문지에 한하여 유치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응답 시기는 가구용 설문지와 각각의 개인용 설문지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면접원이 가구원 중 한 명과 만나서 가구용 설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가구의 표본대상 가구원을 파악한 후에 개인용 설문지를 면접하거나, 면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치를 해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때, 개인이 설문지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응답 시기가 가구용 설문지와 달라지게 되고, 한 가구 내에서도 개인간의 응답 시기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가구용 설문은 주로 가구주 본인이나 가구주의 배우

13) 한국노동패널의 표본크기, 표본틀 및 추출방법에 대한 내용은 노동패널 인터넷 사이트(<http://www.kli.re.kr/klips>)를 참고.

자를 면접하였으나 일부는 자녀나 노부모를 통한 설문 응답도 있었다. 가구용 설문지는 반드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한편, 개인용 설문지는 직접 면접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사정에 따라 장기 출타중인 경우 설문지를 가정 내에 유치하기도 하고, 밤늦은 시간에만 접촉이 가능한 경우 전화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지 답변을 받기 위해 한 가지 방식만을 채택한 것이 아니라, 면접을 한 후 부족한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은 전화로 재확인 작업을 하는 등 설문지 답변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KLIPS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유학, 출장, 여행, 입원, 실종, 행상 등의 이유로 함께 거주하지 않아 면접조사에 응할 수 없는 가구구성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실사기간중 가구로 일시 또는 완전 복귀하는 사람은 직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가구로 복귀하지 않은 사람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전화면접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일 현재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가구원(예, 영내 거주 군인 및 전투경찰, 취학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 교도소·소년원·요양원 등 사회보호시설 수용자 등)은 개인용 설문지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단, 이들의 인적사항 등은 가구용 설문지에서 질문하였다. 넷째, 전화면접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일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예, 취업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 사업상 장기간 출타중인 사람, 아르바이트 학생, 영내 거주 직업군인 및 경찰 등)에 대한 개인용 설문지는 해당 가구원에 가장 가까운 조사대상자가 대리응답하였다. 또한 정신박약, 허약, 치매, 노환 등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응답할 수 없는 성인은 가장 가까운 조사대상자가 대리응답하였다.

<표 2-4>는 각 연도별 조사방식이 어떤 비중들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면접조사의 비중이 1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차년도 당시 면접조사의 비중은 64.4%에 그쳤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7차년도에는 최고 88.0%에 이르렀다. 8차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약 2.6%p 하락한 85.4%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직접면접의 비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유치조사는 1차년도에 21.7%나 되었지만, 8차년도에는 1.6%로 그 비중이 대폭 감소하였다.

〈표 2-4〉 각 연도별 조사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

(단위: 명,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개인응답자수	13,321	12,042	11,206	11,051	10,966	11,543	11,661	11,580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면접	64.4	77.7	83.0	83.7	83.8	86.3	88.0	85.4
유치	21.7	7.6	5.1	3.3	2.6	1.7	1.8	1.6
전화	1.5	7.4	5.3	4.6	3.9	3.8	4.1	2.8
면접+전화	2.6	4.7	3.8	4.9	6.4	5.7	3.7	6.1
유치+전화	3.7	2.5	1.4	1.2	1.0	0.9	0.4	1.4
면접+유치	2.6	0.0	0.9	1.8	1.0	1.3	1.6	1.7
면접+유치+전화	0.0	0.0	0.2	0.5	1.3	0.4	0.5	1.0

대신 면접 + 전화조사의 비중은 소폭 증가하여 1차년도 2.6%에서 8차년도 6.1%로 증가하였다. 즉, 대부분의 경우에는 면접설문을 실시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순수한 전화나 대리응답보다는 기본적으로 면접 설문을 실시한 이후에 부족하거나 잘못된 답변에 대해 전화나 유치를 병행하여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2-5〉는 대리응답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1차년도 조사 당시 대리응답의 비중은 19.7%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 약 11%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7차년도에는 대리응답이 9.7%로 한 자리수 단위로 떨어진 데 이어, 8차년도에는 5.0%까지 하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주요 대리응답 사유를 살펴보면,

〈표 2-5〉 각 연도별 조사방식(본인, 대리인, 본인+대리인 응답) 분포

(단위: 명,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개인응답자수	13,321	12,042	11,206	11,051	10,966	11,543	11,661	11,58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본인	74.0	88.6	88.3	83.3	83.8	83.1	85.7	87.3
대리인	19.7	11.3	8.1	11.0	9.8	11.2	9.7	5.0
본인+대리인	0.4	0.0	3.6	5.5	6.4	5.8	4.7	7.7

7차년도에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귀가가 너무 늦거나 면접 자체가 힘들었다는 이유, 즉 ‘부재중’이 2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8차년도에는 ‘본인의 응답거부’가 가장 높은 비중인 20.9%, ‘부재중’은 11.0%를 차지하였다.

한편, 8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면접원 방문횟수는 평균 3.3회로 지난해보다 0.3회가 증가하였다(표 2-6 참조). 그러나 지역별 방문횟수의 격차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 전남 지역은 4.0회로 가장 많은 방문횟수를 기록하였으나, 지난해 가장 높은 방문횟수를 기록했던 대구는 3.8회를 기록하였다.

〈표 2-6〉 조사성공 가구의 평균방문횟수

(단위: 회)

	6차조사	7차조사	8차조사
전체	2.9	3.0	3.3
서울	3.4	3.3	3.5
부산	3.0	3.3	3.5
대구	3.4	4.2	3.8
대전	1.8	2.2	3.3
인천	2.8	2.3	2.5
광주	2.3	3.1	3.4
울산	2.9	2.8	3.6
경기	2.9	2.5	2.9
강원	2.1	2.4	2.7
충북	2.3	1.9	3.7
충남	1.8	2.9	4.0
전북	2.6	3.1	3.5
전남	2.6	2.9	4.0
경북	3.4	4.1	3.3
경남	2.9	3.2	3.6
제주	1.8	3.7	3.5

〈표 2-7〉은 조사시기별 진행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8차년도 조사는 예년보다 전체적인 조사일정을 조금 앞당겨서 진행하였다. 예년에는 면접원 교육이 4월 초순에 실시되었으나, 8차년도에는 3월 29일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대전, 서울 지역에서 각각 1일씩 진행되어 3월 31일에 면접원 교육을 완료하였다. 조사의 시작은 면접원 교육이 종료된 직후부터 이루어졌으며, 이때부터 조사진행 상황에 대한 집계는 설문지가 조사업체의 각 지방사무소와 면접원에게 배포된 후, 4월 하순부터 이루어졌다. 조사진행 상황은 초기에는 낮은 진척도를 보이다가 조사진행이 본격화되는 5월부터 약간의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여름휴가가 본격화되는 7월에는 주춤하다가 다시 8월 이후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질적으로는 조사 수행 정도가 시기별 및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실제 조사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사 초기에는 지속적으로 응답에 응하거나 조사가 용이한 가구부터 진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조사 후기에는 응답을 거부하거나 이사추적 등 보다 높은 면접기술과 노력이 필요한 가구들을 조사한다.

〈표 2-7〉 시기별·지역별 조사진행률 추이

(단위: 조사진행율)

	4월 25일	5월 6일	5월 20일	6월 3일	6월 17일	7월 1일	7월 15일	7월 29일	8월 19일	9월 2일	9월 16일
서울	0.5	9.4	21.8	31.3	40.3	48.1	55.5	60.1	65.9	68.7	69.0
인천	1.0	19.8	37.5	45.2	51.0	58.3	63.2	71.2	75.1	76.0	78.4
대전	0.0	2.6	15.1	24.5	44.3	59.7	62.3	65.3	75.1	77.7	79.3
광주	0.0	3.2	9.5	14.2	25.8	45.8	59.6	70.5	74.0	75.9	77.9
대구	4.0	9.3	14.1	16.9	27.3	36.5	43.6	51.1	60.7	67.9	69.6
부산	4.9	20.0	24.0	25.1	34.8	45.7	57.6	67.3	75.1	75.4	75.5
울산	2.2	11.5	17.3	19.4	25.2	42.8	59.4	69.8	81.6	81.9	83.8
경기	0.6	15.7	24.7	33.8	41.7	49.3	56.0	61.1	67.5	73.2	77.7
강원	0.0	2.4	18.1	18.1	39.2	45.6	50.9	57.7	63.4	63.3	65.2
충남	0.0	7.8	19.9	28.6	41.0	53.6	59.8	71.0	79.7	83.5	84.7
충북	0.0	15.5	27.5	32.4	48.6	57.0	62.7	64.1	68.1	70.8	72.4
전남	2.4	2.4	2.9	10.0	30.0	54.1	68.6	72.9	76.5	79.8	80.9
전북	3.1	3.1	8.7	17.3	32.3	44.9	54.7	61.9	69.2	75.9	76.8
경남	1.9	12.7	23.7	24.0	35.2	42.7	55.2	63.7	73.5	76.2	78.7
경북	1.8	3.1	7.6	17.7	33.5	49.4	65.9	69.9	74.5	77.3	78.5
제주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1.4	11.2	20.7	27.5	38.2	48.2	56.9	63.2	69.9	73.2	75.0

이와 같이 조사의 양적·질적 성공을 장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과거부터 다양하고 체계적인 실사 관리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응답자에게는 조사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조사가 시작되기 전 노동부 공문 및 노동패널 소식지를 발송하고, 이사가구의 추적을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도 공문을 발송한다. 만일 조사대상가구가 이사한 경우 이를 조사기관에 알려오면 선물을 제공하며, 생일카드도 보내고 있다. 특히, 4차년도 조사부터는 응답 가구에 대해 3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함으로써 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해 조사응답에 대한 동기부여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조사 종료 후 십여 가구를 추첨하여 선물을 지급하기도 한다.

한편, 조사대상가구가 보다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응답자와 직접 접촉하게 되는 면접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매년 조사가 시작되기 전 면접원들을 대상으로 당해년도에 변경된 설문 내용과 면접시 유의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중에도 각 지역의 실사 감독자와 면접원들을 대상으로 실사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등의 관리를 한다. 이사추적이나 응답거부 등의 가구에 대해서는 패널조사의 경험이 풍부하고 면접기술이 뛰어난 면접원들을 선발하여 투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구들을 조사하는 데 성공하면 면접원에 대한 별도의 금전적 인센티브가 제공되기도 한다.

2. 조사결과 및 원표본유지율

조사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표본이탈(sample attrition)을 최소화하여 일정한 수준의 표본유지율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8차년도 KLIPS의 총 조사표본은 4,850가구와 그 가구 내에 포함된 가구원 15,632명이며, 이들 중에서 15세 이상의 가구원으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의 수는 기존 조사자 11,580명과 신규 조사자 381명을 합한 11,999명이다. <표 2-1>을 통해서 1차년도 5,000가구 대비 원표본가구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차 조사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원표본가구의 87.6%인 4,379가구였으며, 3차 조사에서 성공한 가구수는 4,045가구로 원표본가구의 80.9%에 해당한다. 4차 조사에서 성공한 가구수는 3,865가구

로 원표본가구 유지율은 77.3%이며, 5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가구수는 전년도에 비해 1.3%p가 하락한 3,798가구로 76%의 원표본가구 유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6차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오히려 1.2%p가 증가한 77.2%, 7차년도에는 다시 0.1%p가 증가한 77.3%를 기록하였다. 8차년도에는 76.5%로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원표본가구 유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만을 놓고 볼 때 KLIPS의 표본유지율은 외국의 주요 패널조사와 비교할 때에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8>는 각국의 가구패널조사의 원표본가구 유지율을 비교하고 있다. 원표본 유지율은 두 가지 기준에서 산출할 수가 있다. 첫째, 1차년도 당시 원표본

<표 2-8> 각국의 가구패널 조사와 KLIPS의 원표본가구 유지율

(단위: 연도, 가구)

	미국 PSID	독일 GSEP	영국 BHPS	대우 KHPS	KLIPS		
					기준 1	기준 2	가구수
2차 년도	89% (1969)	90% (1985)	88% (1991)	79% (1994)	88% (1999)	-	4,379
3차 년도	86% (1970)	86% (1986)	81% (1992)	66% (1995)	81% (2000)	-	4,044
4차 년도	83% (1971)	85% (1987)	80% (1993)	59% (1996)	77% (2001)	-	3,867
5차 년도	80% (1972)	81% (1988)	77% (1993)	56% (1997)	76% (2002)	-	3,798
6차 년도	78% (1973)	79% (1989)	77% (1994)	44% (1998)	77% (2003)	77%	3,862
7차 년도	76% (1974)	78% (1988)	71% (1995)	종료	77% (2004)	78%	3,863
8차 년도	74% (1975)	79% (1989)	69% (1989)	-	76% (2005)	77%	3,823

주: 1) 기준 1은 5,000가구 대비 성공률임.

2) 기준 2는 소멸가구를 제외한 수치임. 6차년도 4,993가구, 7차년도는 4,950, 8차년도 4,935 가구임.

이었던 5,000가구를 기준으로 조사성공률을 산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멸가구를 고려하여 성공률을 조정할 수도 있다. 예컨대, 1인 단독가구에서 그 가구원의 사망이나 이민 등으로 인해 가구가 소멸한 경우, 이는 분모가 되는 원표본 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000가구 기준으로 조사성공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차년도 원표본가구의 표본유지율은 미국의 PSID나 독일의 GSEP, 영국의 BHPS와 비슷한 88%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패널조사 초기에 표본이탈률이 높다는 일반적인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3차년도의 표본유지율을 비교해 보면 미국이나 독일의 패널조사에 비해 5%p 낮으나 영국의 BHPS의 결과와 동일하며, 4차년도의 유지율은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서 6~8%p, 영국에 비해서는 3%p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5차년도의 유지율은 외국 패널과의 격차가 더욱 좁혀져서 미국에 비해서는 4%p, 영국에 비해서는 1%p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가 6차년도에 표본유지율이 1%p 증가하고 이것이 7차년도부터 유지됨으로써 결국 다른 선진국 패널조사와 동일하거나 더 높은 표본유지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6차년도 부터는 원가구원의 사망이나 해외이민 등으로 조사대상이 되는 가구 자체가 소멸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매년 이러한 가구의 비중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소멸가구를 제외한 원표본 유지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차년도에는 전체 4,993가구 대비 77% 표본유지율로 5,000가구 대비 표본유지율과 동일하지만, 7차년도에는 소멸가구가 50가구에 이르러 결과적으로 표본유지율이 78%임을 확인할 수 있다. 8차년도에는 추가적으로 15가구가 더 소멸하여 이들 가구 4,935가구 대비 수준에서는 78%의 표본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패널조사 표본은 표본설계 당시의 모집단을 대표하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본이탈률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임의의 특성에 따라 편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KLIPS의 표본추출은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15개 광역시 및 도를 층화하여 다시 가구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지역에 따라 고른 조사성공률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표 2-9〉 지역별 원표본가구 유지율

(단위 :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서울	100.0	84.9	74.8	68.4	69.7	73.5	72.9	72.2
부산	100.0	90.5	89.4	85.0	84.6	80.8	78.7	78.6
대구	100.0	84.1	94.3	67.5	71.5	76.9	70.2	72.6
대전	100.0	83.7	96.9	81.0	76.4	80.3	81.5	80.7
인천	100.0	85.6	93.9	74.5	76.3	75.2	79.9	78.5
광주	100.0	78.5	97.3	77.2	81.3	80.3	80.4	77.6
울산	100.0	96.5	97.3	88.8	86.2	85.3	85.1	81.4
경기	100.0	90.2	82.4	78.4	72.2	76.7	81.6	80.6
강원	100.0	87.7	97.4	71.5	66.2	62.2	66.2	72.8
충북	100.0	87.6	97.9	82.8	75.0	70.5	70.2	72.1
충남	100.0	91.6	97.1		83.1	84.7	84.7	83.0
전북	100.0	88.9	96.3		83.4	81.4	81.8	80.2
전남	100.0	92.1	97.1	87.7	87.3	82.1	84.2	82.8
경북	100.0	89.4	94.5	80.7	80.9	83.0	84.1	81.9
경남	100.0	90.1	93.4	93.0	85.5	83.0	81.7	80.7

주 : 6차년도는 4,993가구, 7차년도는 4,950가구, 8차년도 4,935가구 기준임.

〈표 2-9〉에 제시된 바와 같이 KLIPS의 표본유지율을 조사지역별로 살펴보면, 여전히 지역에 따라 편차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격차가 매년 감소하여 수렴하는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표본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의 표본유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의 조사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대구, 충북, 강원지역에 대한 조사성공률 향상 노력도 아울러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1차년도 원표본 5,000가구를 기준으로 지역별 표본 성공 비율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였던 울산이 두 단계 아래로 내려간 반면 충남지역이 가장 높은 성공률인 83%를 기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전남지역이 역시나 82.8%를 기록하였으며, 충북과 강원을 제외한 나머지 도 지역에서는 모두 80% 이상의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였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울산이 여전히 높은 81.4%의 높은 성공유을 보이는 반면, 서울과 대구는 72.2%와 72.6%로 낮은 성공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7차년도에 약 15%p 수준으로 차이가

났던 지역간 성공률 격차는 더욱 좁아져 8차년도에는 약 10%p 수준으로 좁혀졌다.

결론적으로 조사팀의 지속적인 노력에 따라 지역간 성공률 격차가 완화되기는 했지만 지역별 조사성공률 격차라는 현상 그 자체는 일관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는 응답자의 성향, 면접원의 특성과 숙련도, 지역의 실사단위의 체계, 지역별 정치적·문화적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성공률 편차가 그리 크지 않으며, 또한 해가 거듭될수록 지역별 편차가 감소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지역별 성공률 격차가 조사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침해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제 4 절 응답 가구와 가구원의 특성

1. 응답 가구의 특성

패널조사의 조사성공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만일 조사 중간에 진입과 이탈을 반복하는 가구의 비중이 크다면 실사과정의 어려움은 물론이요 궁극적으로는 자료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표 2-10>은 1~8차년도 기간 동안 조사성공가구들이 조사에 몇 번 응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 한 번 이상 조사에 응답했던 가구의 수는 6,242가구이며, 이 중 원가구는 80.1%, 2차년도 이후 분가한 비원가구는 19.9%이다. 원가구 중에서는 1~8차년도 기간 동안 모두 응답한 가구가 57.3%, 7회 이상 응답한 가구가 10.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1차년도에 응답한 후 아직까지 조사에 복귀를 하지 않고 있는 원가구는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가가구 중에서는 7차례 모두 조사에 응답한 가구가 5.5%인 반면, 1회만 응답한 가구가 2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은 KLIPS에 연도별로 계속해서 응답한 가구수와 1차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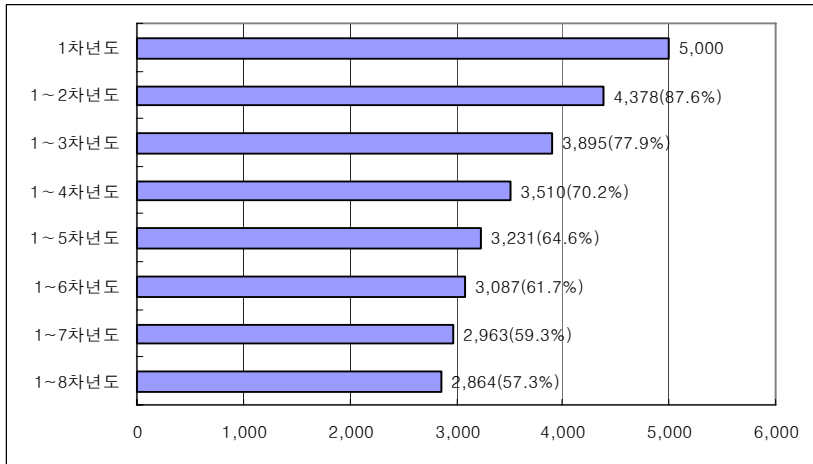
〈표 2-10〉 1~8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응답횟수

(단위: 가구수, %)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전 체
전 체	508 (8.1)	495 (7.9)	481 (7.7)	416 (6.7)	460 (7.4)	419 (6.7)	599 (9.6)	2,864 (45.9)	6,242 (100.0)
원가구	222 (4.4)	239 (4.8)	239 (4.8)	269 (5.4)	304 (6.1)	332 (6.6)	531 (10.6)	2,864 (57.3)	5,000 (100.0)
비 원가구	286 (23.0)	256 (20.6)	242 (19.5)	147 (11.8)	156 (12.6)	87 (7.0)	68 (5.5)		1,242 (100.0)

〈그림 2-1〉 노동패널조사 연도별 계속응답 가구수

(단위: 가구, %)



대비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1~8차년도 조사기간 동안 한 번도 누락되지 않고 계속 응답한 가구는 2,864가구로 1차년도 5,000 원표본가구의 57.3%에 이르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원표본 비중이 2차년도의 경우 87.6%를 보여주었으며, 3차년도 77.9%, 4차년도 70.2%, 5차년도 64.6%, 6차년도 61.7%, 7차년도 59.3%를 보여주고 있어 매년 원표본 비중 자체는 감소하고 있으나 감소폭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1〉은 8차년도 현재 원가구 대비 소득분위별 응답횟수를 보여주고 있다. 8차년도에 응답한 원가구 중 소득이 ‘누락(missing)’된 가구를 제외한 3,805가구를 최상위소득(1분위)부터 최하위소득(10분위)까지 순서대

로 10개의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평균응답횟수와 계속응답가구의 비중 모두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그 응답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상위 1분위의 평균응답횟수는 7.42인 데 비해, 최하위 10분위의 응답횟수는 7.64로 약 0.2회 정도의 격차를 보였다. 계속응답가구의 비중은 그 격차가 더욱 뚜렷한데, 최상위 1분위에서는 계속응답가구가 72.7%였지만, 최하위 10분위는 84.6%로 나타났다. 또한 4분위와 5분위의 계속응답가구 비중은 각각 76.9%와 76.1%를 차지하여 소득 최상/하위분위간의 극명한 응답률 격차와는 달리 중상위층의 소득집단에서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2-11〉 소득분위별 평균응답횟수 및 계속응답가구 비중(원가구 대비)
(단위: 회, %)

	평균응답횟수 (표준편차)		계속응답가구 비중(%)
1분위(최상위)	7.42	(1.17)	72.7
2분위	7.50	(1.06)	75.6
3분위	7.40	(1.23)	73.2
4분위	7.58	(0.95)	76.9
5분위	7.48	(1.13)	76.1
6분위	7.44	(1.15)	73.0
7분위	7.44	(1.89)	74.5
8분위	7.44	(1.05)	70.3
9분위	7.44	(1.18)	74.3
10분위(최하위)	7.64	(1.00)	84.6

즉, 소득분위와 응답률간의 상관관계를 볼 때 단순히 선형적인 판단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응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복합적이며, 특히 가구소득과 같이 패널자료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수들에서 이러한 응답률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자료의 대표성과 신뢰성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보다 엄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응답자의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나 면접원 효과를 포함하는 조사체계 변수 등을 통제한 후에도 이러한 소득수준별 응답률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1~8차년도 계속응답가구에 속한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12>와 같다. 먼저 성별로는 계속응답 가구주의 81.2%가 남성으로 1차년도 조사(85.9%) 당시에 비해 그 비중이 4.7%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자의 비중이 1차년도에 비해 4.1%p 증가한 97.2%로 나타났다.

<표 2-12> 1~8차년도 계속응답가구의 가구주 특성¹⁾

(단위: 명, %)

		1차년도 원표본가구(1차)	1~8차년도 계속응답가구 ²⁾
전 체		5,000 (100.0)	2,764 (100.0)
성 별	남 성	4,293 (85.9)	2,245 (81.2)
	여 성	707 (14.1)	519 (18.8)
혼인 상태	기혼(무배우 포함)	4,657 (93.1)	2,687 (97.2)
	미혼	332 (6.6)	77 (2.8)
연 령	30세 미만	380 (7.6)	4 (0.2)
	30대	1,356 (27.1)	283 (10.2)
	40대	1,397 (27.9)	783 (28.33)
	50대	984 (19.7)	714 (25.83)
	60세 이상	883 (17.7)	980 (35.50)
교육수준	고졸 미만	1,910 (38.6)	1,263 (45.7)
	고졸	1,819 (36.1)	925 (33.5)
	대학 재학 및 중퇴	147 (3.2)	55 (2.0)
	전문대졸	241 (4.8)	123 (4.5)
	대졸 이상	882 (17.5)	398 (14.4)
취업상태	임금근로자	2,229 (44.6)	1,098 (39.7)
	비임금	1,440 (28.8)	803 (29.1)
	미취업자	1,331 (26.6)	863 (31.2)

주: 1) 1차년도(1998년) 조사 당시 응답을 기준으로 함.

2) 8차년도: 해당 가구에 가구주가 없거나 개인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사례, 그리고 가구주가 원표본가구원이 아닌 100case는 제외.

연령별로는 1차년도 조사 당시 40대(27.9%) > 30대(27.1%) > 50대(19.7%) > 60세 이상(17.7%) > 30세 미만(7.6%) 순으로 나타난 데 반해, 1~8차년도 계속응답가구의 경우 60대 이상이 35.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40대가 28.3%, 50대가 25.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가구주가 30세 미만인 경우는 0.2%에 그치고 있어, 조사차수에 따른 연령증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계속응답가구의 경우 비교적 가구주의 연령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 분포에서는 가구주가 고학력자일수록 지속적인 응답에 보다 덜 참여하는 현상이 이전 연도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계속응답가구 중 가구주의 학력이 고졸 미만인 경우가 1차년도(38.6%)보다 7.1%p 증가한 반면, 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가구주는 1차년도보다 3.1%p 정도 감소하였다.

취업상태별로는 1차년도 조사 당시와 비교할 때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소폭 감소한 데 비해, 비임금근로자와 미취업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8차년도 계속응답 가구주 중 임금근로자는 39.7%, 비임금근로자는 29.1%, 미취업자는 31.2%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살펴볼 때, 2~8차년도 조사기간 동안 한 번 이상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들은 다른 요인들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살펴볼 때, 가구주의 특성이 여성인 경우보다는 남성인, 기혼인 경우보다는 미혼인, 중고령자보다는 저연령층인, 저학력층보다는 고학력층인,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임금근로자인 경우가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중요한 변수들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표본이탈 가구의 가구주 특성으로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 조사성공 가구원의 특성

KLIPS는 조사대상가구에 소속된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을 모두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성공률과 관련된 가구원의 특성들 또한 전적으로 가구의 성공률에 의해 좌우된다. <표 2-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1차년도에서 8차년도 조사까지 한 번 이상 조사에 응답한 개인은 16,809명이다. 조사기간 동안 한 번도 누락되지 않고 모두 응답한 개인은 6,183명으로 전체 원표본가구원 대비로 58.8%이며, 1회만 조사에 응답한 원표본가구원은 209명으로 2.0%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비원

표본가구원은 신규가구 조사에 진입하는 연도에 따라 응답횟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응답횟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로 응답한 15세 이상 원표본가구원의 수를 살펴보면 [그림 2-2]와 같다. 1차년도 조사 당시 전체 조사대상가구의 총가구원인 17,506명 중 개인조사에 성공한 15세 이상 가구원은 총 13,321명¹⁴⁾이었다. 2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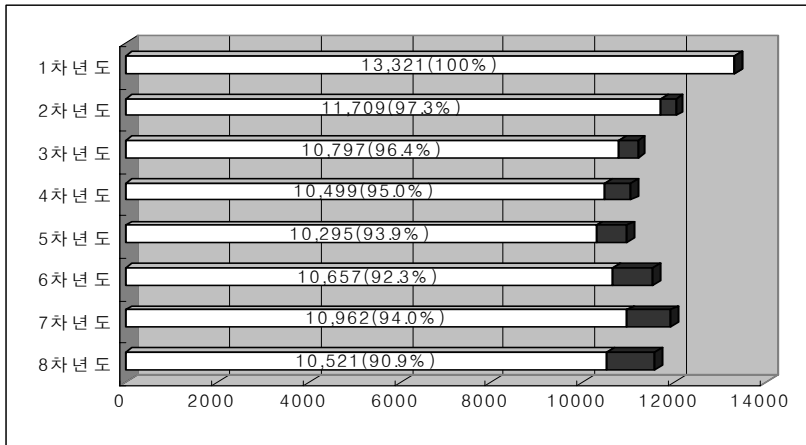
<표 2-13> 1~8차년도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횟수

(단위: 가구, %)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전 체
전 체	1,443 (8.6)	1,438 (8.6)	1,443 (8.6)	1,386 (8.3)	1,573 (9.4)	1,560 (9.3)	1,783 (10.6)	6,183 (36.8)	16,809 (100.0)
원표본 가구원	209 (2.0)	265 (2.5)	376 (3.6)	480 (4.6)	721 (6.9)	966 (9.2)	1,321 (12.6)	6,183 (58.8)	10,521 (100.0)
비원표본 가구원	1,234 (19.6)	1,173 (18.7)	1,067 (17.0)	906 (14.4)	852 (13.6)	594 (9.5)	462 (7.4)	-	6,288 (100.0)

[그림 2-2] 각 연도별 조사성공가구원 대비 원표본가구원수 추이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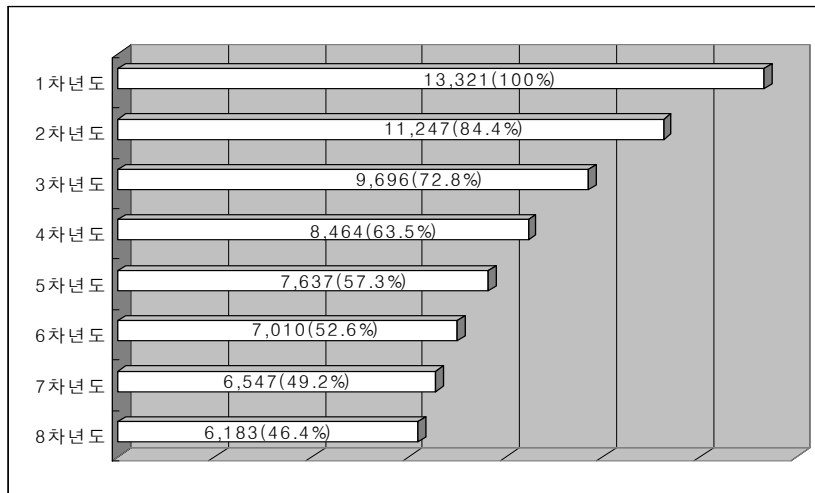
14) 1차년도 개인용 자료에는 13,738명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중 417명은 가구조사를 통해서 성별·연령·교육수준·경제활동상태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적정보만 조사되었을 뿐, 개인조사에서는 응답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1차년도 개인조사에 성공한 총응답자수를 13,321명으로 정의하였다.

년도에는 개인조사에 성공한 총 가구원 12,039명 중 97.3%에 해당하는 11,709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조사에 응답하였다. 3차년도에는 조사성공가구원 11,205명 중 96.4%에 해당하는 10,797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응답하였으며, 4차년도에는 총 11,051명의 조사성공가구원 중 95%에 해당하는 10,499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응답하였다. 5차년도에는 조사성공가구원 10,966명 중 93.9%에 해당하는 10,295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응답하였으며, 6차년도에는 조사성공가구원 11,543명 중 92.3%에 해당하는 10,657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응답하였다. 7차년도에는 조사성공가구원 11,661명 중 94%에 해당하는 10,962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8차년도에는 조사성공가구원 11,580명 중 90.9%에 해당하는 10,521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응답하였다. 즉, 1~8차년도 기간 동안 당해 연도 전체 조사성공가구원 대비 원표본가구원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원표본가구원의 절대적인 수치는 6차년도 이후가 4, 5차년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원표본 조사성공률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각 연도별 계속응답 가구원의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 2-3]과 같다. 1차년도 총 조사성공가구원 13,321명 중 84.4%인 11,247명이 2차년

[그림 2-3] 각 연도별 계속응답 가구원수 추이

(단위: 명, %)



40 제8차(2005)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도 조사에 응답하였으며, 3차년도 조사에는 전년도보다 11.6%p가 감소한 9,696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응답하였다. 4차년도에는 9.3%p가 감소한 8,464명의 가구원의 조사에 성공하였으며, 5차년도에는 6.2%p가 감소한 7,637명의 조사에 성공하였다. 6차년도에는 전년도보다 4.7%p가 감소한 7,010명의 조사에 성공하였으며, 7차년도에는 3.4%p가 감소한 6,547명에 대한 조사에 성공하였다. 마지막으로 8차년도에는 2.8%p가 감소한

<표 2-14> 1~8차년도 계속응답 가구원의 특성¹⁾

(단위: 명, %)

		1차년도 가구원 ¹⁾	1~8차년도 계속응답 가구원
전 체		13,321 (100.0)	6,183 (100.0)
성별	남 성	6,471 (48.6)	2,748 (44.4)
	여 성	6,850 (51.4)	3,435 (55.6)
혼인 상태	미 혼	3,845 (28.9)	739 (11.9)
	기혼유배우	3,854 (62.4)	4,590 (74.2)
	기혼무배우	1,164 (8.7)	854 (13.8)
연령	15~19세	1,445 (10.9)	0 (0.0)
	20~24세	1,248 (9.4)	183 (3.0)
	25~29세	1,451 (11.2)	341 (5.5)
	30~39세	3,047 (22.9)	1,172 (19.0)
	40~49세	2,616 (19.6)	1,638 (26.5)
	50~59세	1,706 (12.8)	1,211 (19.6)
	60세 이상	1,807 (13.6)	1,638 (26.5)
교육 수준 ²⁾	무 학	856 (6.4)	463 (7.5)
	고졸 미만	4,575 (34.4)	2,118 (34.3)
	고 졸	4,403 (33.1)	2,079 (33.6)
	대졸 미만	1,136 (8.5)	176 (2.9)
	전문대졸	717 (5.4)	466 (7.5)
	대졸 이상	1,633 (12.3)	880 (14.2)
취업 상태	임금근로자	4,012 (30.1)	2,236 (36.2)
	비임금근로자	2,415 (18.1)	1,450 (23.5)
	미취업자	6,894 (51.8)	2,497 (40.4)

주: 1) 1차년도(1998년) 조사 당시 응답을 기준으로 함.

2) 고졸 미만은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및 고등학교 재학·휴학·수료·중퇴자를 포함.

6,183(46.4%)명에 대한 조사에 성공하였다. 이처럼 1~8차년도 기간 동안 계속응답가구원의 비율이 계속 감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감소폭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조사에서 이탈했던 개인이 다시 복귀할 경우 중간에 누락되었던 일자리의 고용형태와 근로시간, 임금 등과 같은 주요 특성들에 대한 설문에서 복귀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당해연도에 직접 조사할 경우와 비교할 때 자료의 일관성 측면에서 질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계속응답 가구원과 1차년도 조사성공 원표본가구원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표 2-14>와 같다. 먼저 성별로는 계속응답 가구원 중 여성의 비중이 55.6%로 1차년도 51.4%와 비교할 때 4.2%p 정도 높은 가운데,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자의 비중이 88.0%로 1차년도보다 8.9%p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지난 7년간의 자연증가가 반영되어 전반적으로 고령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60세 이상의 계속응답자 비중이 26.5%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미만과 고졸의 비중이 1~8차년도 계속응답자의 67.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별로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1차년도에 비해 6.2%p가 증가한 반면, 미취업자의 비중은 11.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5 절 이사·분가가구와 신규 조사자의 특성

1. 이사가구의 특성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인구가동률이 2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⁵⁾ 경제활동, 주택, 교육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인구가동은 인구사회학적으로도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지만, 동일

15) 통계청,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제시된 수치는 2000년 총인구 대비 전입자 비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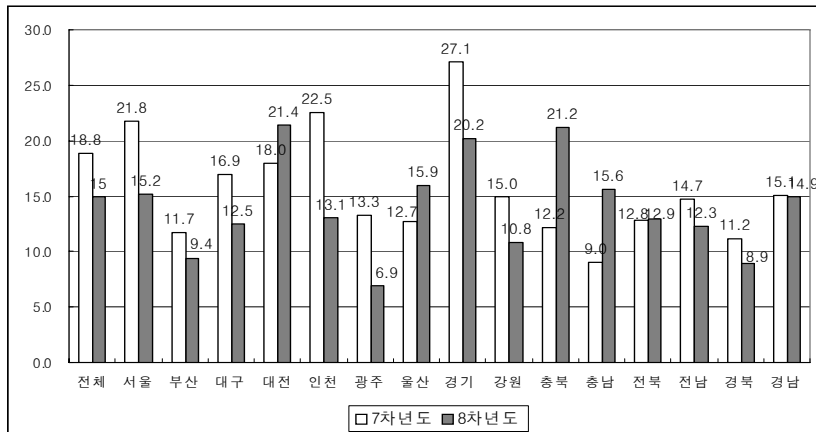
한 가구를 추적조사해야 하는 패널조사의 경우 조사 성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KLIPS 8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의 이사 여부에 대한 설문은 2005년 분가한 162가구를 제외한 4,724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8차년도 조사에서 파악된 이사가구는 총 707가구로 분가가구를 제외한 전체 성공가구의 15.0%이다. KLIPS의 이사율은 6차년도 이후 매년 떨어지고 있는데, 6차년도의 이사율은 22.0%, 7차년도 이사율은 18.8%로 각각 조사된 바 있다.

[그림 2-4]를 통해 현재 거주지별로 이사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대전 지역이 2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서 충북(21.2%), 경기(20.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사가구의 비중이 낮은 지역으로는 광주(6.9%), 경북(8.9%) 등으로 나타났다. 7차 조사에서는 인천, 서울 및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지역이 높은 이사율을 보인 데 반해 8차 조사에서는 대전과 충북이 전체 이사비율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서 <표 2-8>에서 살펴보았던 지역별 표본유지율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조사성공률이 낮은 지역의 대부분이 높은 이사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이사가구를 추적하는 데에는 상당한 노력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2-4] 8차년도 이사가구 분포

(단위: 가구수, %)



2. 비원표본가구(분가가구)의 특성

KLIPS 8차년도 조사성공가구(4,850가구) 중에는 원표본 3,823가구 이외에 1차년도 조사 당시 원표본가구는 아니었지만, 2차년도 이후 분가하여 새롭게 조사에 진입한 비원표본 1,027가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분가성공가구 중 2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67가구이며, 3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09가구, 4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57가구, 5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43가구, 6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64가구, 7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162가구가 나타났다(표 2-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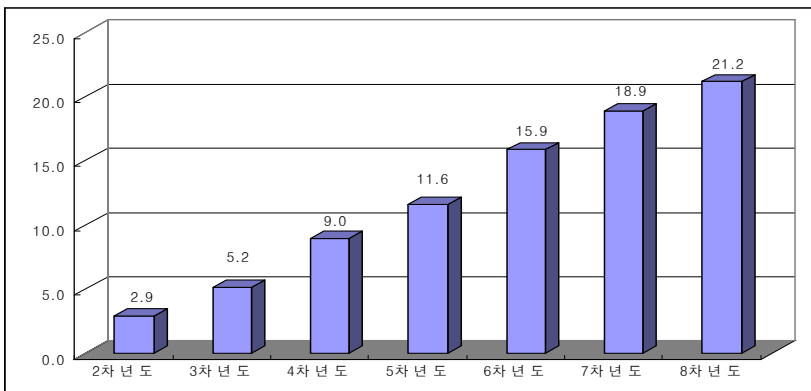
〈표 2-15〉 각 8차년도 비원표본가구수

(단위: 가구수)

	전 체	응답가구	비응답가구
전 체	1,242 (100.0)	1,027 (100.0)	215 (100.0)
2차년도	220 (17.7)	167 (16.3)	53 (24.7)
3차년도	146 (11.8)	108 (10.5)	38 (17.7)
4차년도	191 (15.4)	157 (15.3)	34 (15.8)
5차년도	177 (14.3)	143 (13.9)	34 (15.8)
6차년도	206 (16.6)	164 (16.0)	42 (19.5)
7차년도	176 (14.2)	162 (15.8)	14 (6.5)
8차년도	126 (10.1)	126 (12.3)	-

〔그림 2-5〕 각 연도별 전체 응답가구 대비 비원표본가구의 비중

(단위: %)



〈표 2-16〉의 계속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해외	전체	비성공 이유
65	39	35	60	30	81	82	8	1,660	사례수
33.9	69.2	65.7	43.3	33.3	43.2	51.2	0.0	46.8	강력거절
44.6	5.1	17.1	33.3	36.7	34.6	28.1	0.0	25.2	이사/추적불가
7.7	18.0	0.0	3.3	16.7	2.5	2.4	0.0	14.2	접촉 안 됨
0.0	5.1	0.0	3.3	3.3	2.5	0.0	0.0	1.2	사망
0.0	2.6	2.9	1.7	0.0	2.5	3.7	37.5	1.9	이민
1.5	0.0	2.9	0.0	0.0	1.2	1.2	0.0	1.1	합가
12.3	0.0	11.4	15.0	10.0	13.6	13.4	62.5	9.6	기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전체

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대전 5.0회, 충남 5.0회로 충청권에서 가장 높은 방문횟수를 기록하였다. 지난해 가장 높은 방문빈도를 보였던 대구지역(평균 5.9회)은 올해 3.2회 정도의 평균방문횟수를 기록하였으며, 전북지역이 올해 1.8회로 가장 낮은 방문빈도를 기록하였다. 충북과 충남지역의 평균 방문횟수가 높은 이유는 강력거절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충북은 강력거절이 69.2%를, 충남지역은 65.7%의 강력거절률을 보여 전체 평균보다 약 20%p나 높은 강력거절률을 기록하고 있다.

〈표 2-17〉 각 비성공가구 방문횟수

(단위: 빈도, %)

	가구수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이상
전체	6,510	24.8	17.8	17.2	13.6	11.8	14.8
비성공가구	1,660	31.0	11.6	13.7	15.7	14.3	13.7
성공가구	4,850	22.6	20.0	18.4	13.0	10.9	15.2

비성공가구의 평균방문횟수는 1회가 31%로 성공가구의 1회 방문 횟수인 22.6%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2-17 참조). 일반적으로 비성공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접촉노력을 하기 때문에 방문횟수가 성공가구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이는 비성공 이유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표 2-18>은 그러한 예측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강력거절의 경우 3회 방문

이 20.2%, 4회 방문이 24.7%로 나타나는 등 많은 방문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사하였거나 추적이 어려운 경우에는 53.7%가 1회 방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더 이상 추가적인 접촉이 어려운 가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방문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2-18〉 각 비성공 사유별 평균방문횟수

비성공 이유	(단위 : %)						
	전체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강력거절	100.0	11.2	9.1	20.2	24.7	17.3	17.5
이사/추적불가	100.0	53.7	25.5	11.7	3.1	3.6	2.4
접촉 안됨	100.0	3.0	1.3	7.2	20.9	36.2	31.5
사망	100.0	80.0	15.0	0.0	0.0	0.0	5.0
이민	100.0	67.8	12.9	6.5	12.9	0.0	0.0
합가	100.0	83.3	0.0	5.6	0.0	0.0	11.1
기타	100.0	89.4	2.5	1.3	1.3	2.5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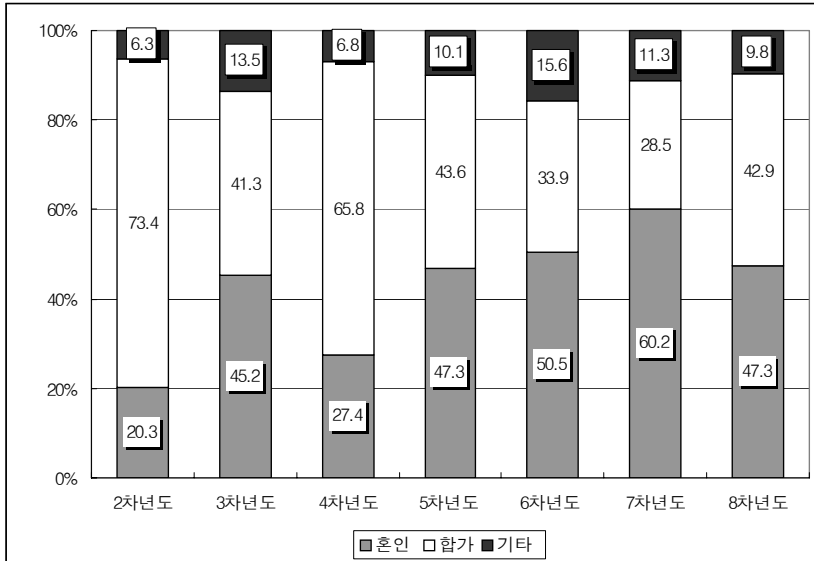
4. 신규 조사자의 특성

8차년도 KLIPS의 신규 조사자는 381명으로, 이 중 원표본가구에 속하는 가구원은 208명, 비원표본가구원으로 신규 조사된 가구원은 173명으로 파악되었다. 신규 조사자의 진입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는 원표본가구원이면서 신규 조사자에 포함되는 경우인데, 이들은 제1~7차 조사시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8차년도 조사 당시 만 15세가 되어 새롭게 개인조사에 진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두번째는 비표본가구원의 진입인데, 이 경우에도 기존의 비표본가구원이 새롭게 15세가 되는 등의 이유로 처음 개인조사에 응답하는 경우와, 혼인이나 합가로 인해 8차년도에 새롭게 조사대상자로 추가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112명 중에서 혼인이 53명, 합가가 48명, 기타 11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그림 2-6]을 통해서 2~7차년도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7차년도까지는 전반적으로 혼인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합가로 인한 추가는 감소하였

으나 8차년도에는 다시 합가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혼인으로 인한 추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혼인의 경우 7차년도에는 60.2%까지 증가하였으나 8차년도에는 47.3%로 하락하였다. 반대로 합가는 7차년도에 28.5%까지 줄어들었으나 8차년도에는 42.9%로 증가하였다.

[그림 2-6] 비원표본가구원이면서 신규로 조사에 추가된 이유(2~8차년도)
(단위: %)



8차년도 신규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표 2-19 참조), 남성이 189명(49.6%)으로 192명으로 파악된 여성(50.4%)보다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원표본 가구원의 경우에는 남성의 비중이 54.3%로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 신규조사자 중에서 가구주는 10.8%으로, 대부분이 비원표본 가구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이 58.5%를 차지한 가운데 원표본가구원은 대부분 미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원표본가구원 대부분이 15세가 되면서 신규로 개인조사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평균연령은 24.7세로 기존 조사자들보다 낮은 편이며, 특히 원표본가구원의 평균연령(15.4세)과 비원표본가구원(35.9세)의 연령은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었다.

〈표 2-19〉 8차년도 신규 조사자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세)

		전 체	원표본가구원	비원표본가구원
전 체		381 (100.)	208 (100.)	173 (100.)
성별	남 성	189 (49.6)	113 (54.3)	76 (43.9)
	여 성	192 (50.4)	95 (45.7)	97 (56.1)
가구주와 의 관계	가구주	41 (10.8)	2 (1.0)	39 (22.5)
	가구원	340 (89.2)	206 (99.0)	134 (77.5)
혼인 상태	미혼	223 (58.5)	207 (99.5)	16 (9.3)
	기혼	158 (41.5)	1 (0.5)	157 (90.8)
평균 연령		24.7	15.4	35.9

제 6 절 한국노동패널의 가중치

표본조사자료의 결과가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KLIPS의 경우에도 인구센서스 및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조사구 내 가구수와 동부 및 읍면부 도시조사구 비중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매년도 가중치를 산출하고 있다. 여기서는 가중치의 부여 방법 및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1차년도 조사의 가중치 부여방법

1차년도 조사의 가중치는 기본적으로 두 단계를 거쳐서 계산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표본이 ‘추출될 확률(selection probability)’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것은 표본조사구의 추출확률과 표본가구의 추출확률로 구분된다. 먼저 표본조사구의 추출확률은 인구센서스의 10% 표본조사구에 선정되고, 다시 KLIPS의 표본조사구로 선정될 확률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표본조사구에서 최종 표본가구로 추출될 확률은 19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응답가구수로 총 접촉가구수를 나눈 값과 인구센서스 조사구 내의 전체

가구수로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응답가구수를 나눈 값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최종적인 표본의 추출확률은 조사구 추출확률과 최종 표본가구 추출확률의 곱으로 계산되었다.

두번째 단계는 응답률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지역에 따라 응답가구와 비응답가구의 특성이 상이하므로 응답률 계산에 지역정보나 조사구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특성들을 가중치에 반영해 주는 것이다.

한편, KLIPS 가중치 부여에는 적절한 자료가 확보될 수 없는 관계로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우선 KLIPS의 1차 조사가 1998년도임을 고려할 때 가구단위의 사후층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자료는 통계청의 1995년 인구센서스 자료이나 이를 사용하여 사후층화를 하는 것은 시의성이 떨어진다. 개인단위의 사후층화 자료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고용구조특별조사 자료 등이 있으나, 장래인구추계 자료는 광역시는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 대한 연령·성별 인구분포 추계가 제시되지 않으며, 경제활동인구조사나 고용구조특별조사 자료는 전수조사 자료가 아닌 표본조사 자료이므로 사후층화 의미가 퇴색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2. 2차년도 조사 이후의 가중치 부여방법

KLIPS과 같은 ‘종단면조사(longitudinal Survey)’는 자료의 특성상 1차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반영되어야 한다. 첫째, 1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 및 가구원이 2차년도 조사 이후에 응답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조사간 표본이탈(panel attrition)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표본가구에 결혼·동거·입양·출생 등의 이유로 새롭게 진입한 가구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표본가구원(non-sample household)으로 인해서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가구구성원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2차년도 이후의 가중치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부여되었다. 1단계로 이미 산출된 1차 조사의 개인가중치를 가구원들의 상이한 응답률을 이용하여 조정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가구와 가구원의 정보를 이용하여 응답 여부에 관한 로짓(logit) 모형을 설정

한 후 도출된 계수를 사용하여 모든 가구원들의 응답확률을 추정하게 된다. 이 응답확률의 역수를 최초의 개인가중치에 곱하여 무응답 조정 가중치(non-response adjusted weights)를 산출하게 된다.

2단계에서는 새롭게 산출된 해당 조사의 개인가중치를 평균하여 적절한 조정절차를 거친 후 가구가중치를 산출한다. 이때 결혼·동거 등의 사유로 새롭게 진입한 비표본가구원의 경우에는 0의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이렇게 해서 가구 차원의 무응답 조정 가중치가 산출되었다.

〈표 2-20〉 KLIPS의 가중치 사례 수

(단위: 명)

	가구가중치			개인가중치				
	전체	평균	s.d.	전체	중단면		횡단면	
					평균	s.d.	평균	s.d.
1차년도	11,276,899	2255	415	30,039,370	22555	417	2255	417
2차년도	11,453,518	2541	575	30,503,448	2534	675	2534	576
3차년도	11,632,899	2727	721	30,974,696	2764	879	2764	726
4차년도	11,815,100	2781	851	31,453,224	2846	1055	2846	854
5차년도	12,000,165	2792	946	31,939,145	2912	1215	2912	964
6차년도	12,188,092	2654	1001	32,432,573	2810	1314	2810	1028
7차년도	12,378,982	2599	1063	32,933,624	2824	1447	2824	1117
8차년도	12,575,245	2593	1124	33,442,416	2888	1608	2888	1210

마지막으로 이렇게 산출된 가중치는 스케일 조정을 거쳤다. 1998년 가구가중치는 이미 스케일 조정된 것이므로 그대로 사용했으나, 나머지 연도의 경우에는 통계청의 가구추계자료(2000~05년)의 5년간 총가구수 증가율을 평균한 값을 KLIPS 1차년도 가중치 합계에서부터 매년 곱해 주어 산출하였다. 개인가중치의 스케일 조정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농가 생산가능인구(1998~2002년)의 5년간 평균증가율을 이용하여 1차년도 개인가중치 합계에 평균증가율 값을 매년 곱해 주는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이러한 계산과정을 거친 최종적인 가중치의 결과값은 <표 2-20>과 같다.

3. 가중치 변수 및 이용방법

<표 2-21>은 지금까지 설명한 가중치 부여방법에 따라 산출된 가중치의 변수명과 분석단위를 제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해당연도의 데이터 셋에 삽입되어 있다. 예컨대, 1차년도 가구가중치는 1차년도 가구자료에, 8차년도 개인 횡단면·종단면 가중치는 8차년도 개인자료에 아래 표와 같은 변수명으로 삽입되어 있다. 이상의 가중치는 KLIPS의 분석 단위에 다르게 사용될 수 있으며 개략적인 사용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구 차원의 분석에는 가구가중치가 사용될 수 있으며, 종단면분석이나 횡단면분석 중 어떤 것을 하더라도 동일한 가중치를 이용하면 된다. 개인 차원의 분석에는 연구자의 분석목적에 따라 개인 횡단면 가중치와 개인 종단면 가중치가 사용될 수 있다. 개인 횡단면 가중치는 비표본가구원의 추출확률이 표본가구원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비표본가구원을 포함하여 해당연도의 전체 가구원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 사용될 수 있다. 반면 개인 종단면 가중치는 비표본가구원을 제외하고 원표본가구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중치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현재 개발된 가중치의 스케일이 조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추계조사 내지는 표본조사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므로 대표 모집단의 총 사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다음 장부터 제시될 요약통계들에서는 각 특성별 비중만 제시하였음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표 2-21> KLIPS의 가중치 변수명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가구분석		w1_h	w2_h	w3_h	w4_h	w5_h	w6_h	w7_h	w8_h
개인 분석	횡단면 분석	w1_pc	w2_pc	w3_pc	w4_pc	w5_pc	w6_pc	w7_pc	w8_pc
	종단면 분석	w1_pl	w2_pl	w3_pl	w4_pl	w5_pl	w6_pl	w7_pl	w8_pl

제 3 장

조사가구의 특성

제3장에서는 8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에 성공한 4,850가구와 그 가구의 구성원들의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가구와 가구원들의 현황 및 구성변화를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1절에서는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가구주의 특성과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지난 8년간의 노동패널 조사기간 동안 새로 출생한 아동과 사망한 응답자의 특성을 통해 조사표본 내에서의 인구변동에 대해 다룬다.

이 장에서는 분석대상이 가구일 경우 가구가중치를 사용하였으며,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는 개인중단면가중치를 사용하였다. 단, 제3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분석에서는 해당되는 가중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제 1 절 가구 및 세대 구성

제1절에서는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성을 살펴본다. KLIPS에서 가구란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가구 개념과 같이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를 의미하며, 가구원에는 합

게 살고 있는 친·인척을 비롯하여 함께 살고 있지 않으나 교육, 군복무, 다른 지방 근무 등의 이유로 따로 사는 경우와 경제적 교류가 있는 미혼 자녀를 포함한다. 다만, 따로 사는 미혼자녀 중 재학이나 군복무, 다른 지방 근무 등의 이유가 아니면서 경제적으로 교류가 없거나 기혼자녀 중 따로 사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같이 살고 있으나 파출부, 운전사, 하숙생 등 친·인척이 아닌 경우도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표 3-1>은 8차년도에 조사된 가구의 가구원수 변화를 보여준다. 표에서 보듯이 평균 가구원수는 3.2인으로 나타난다. 4차년도 이후, 전반적인 가구원수의 분포는 4인으로 구성된 가구가 35.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인(21.5%), 2인(16.9%)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 연도별 가구원수 변화 추이

(단위: 가구, %)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전체 (가구수)	5,000	4,508	4,266	4,248	4,298	4,592	4,762	4,850
1인	10.2	9.1	10.3	9.8	11.2	12.4	13.4	14.3
2인	13.1	12.4	13.7	13.3	15.2	16.1	16.4	16.9
3인	19.4	18.6	19.7	18.4	19.4	19.9	20.8	21.5
4인	38.1	38.6	38.0	38.6	38.4	37.1	36.4	35.4
5인	13.8	14.9	13.6	14.5	12.3	11.4	10.5	9.5
6인 이상	5.5	6.4	4.7	5.4	3.6	3.2	2.7	2.3
평균(인)	3.5	3.6	3.5	3.5	3.4	3.3	3.2	3.2

8차년도 가구원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큰 변동은 없으나 4인가구와 5인가구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동일하게 1.0%p 하락한 반면 1인가구와 2인가구의 비중은 각각 0.9%p와 0.5%p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및 가구추계자료¹⁶⁾에서 추정된 1인가구의 비중과 비교했을 때 2.7%p 낮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일수

16) 인구센서스 및 가구추계에 의한 1인가구 비중은 2000년 15.5%, 2001년 15.8%, 2002년 16.1%, 2003년 16.4%, 2004년 16.7%, 2005년 17.0%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록 핵가족 형태의 가족구성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도시가구를 조사 표본으로 삼고 있는 KLIPS와 통계청 조사와의 차이는 타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거주지별로 가구원수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서울 및 광역시 거주자의 평균 가구원수가 3.18명, 도지역이 3.15명으로 거주지별 평균 가구원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림 3-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도지역의 가구구성이 서울 및 광역시에 비해 3~4인가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1~2인가구의 비중 및 5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서울 및 광역시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중소도시의 경우 혼자 사는 노인, 혹은 노인부부로 이루어진 1~2인가구나 5인 이상의 가구원이 함께 사는 확대가족 형태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3-2>에서 보듯이 조사가구의 세대구성¹⁷⁾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주와 그의 자녀 혹은 부모가 같이 사는 2세대가구가 66.4%로 2/3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주와 그의 배우자 또는 가구주와 그의 형제,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의 형제로 이루어진 1세대가구는 12.5%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1인가구가 14.3%이고, 가구주와 그의 자녀, 가구주의 손자·손녀가 같이 살거나 가구주와 그의 부모, 가구주의 자녀가 함께 사는 3세대가구의 비중은 6.6%였다. 그러나 가구주와 그의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4대에 걸쳐 사는 4세대가구는 0.1%에 불과하였다.

세대구성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세대가구는 1차년도에 그 비중이 10.1%에 그쳤던 데 반해 8차년도 조사에서는 2.4%p가 증가한 반

17) 가구의 세대별 구성은 인구주택총조사의 정의에 따랐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 가구 구성원이 1명인 가구.

1세대가구 : 가구주와 동일 세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형제로 이루어진 가구, 가구주와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 또 가구주와 배우자, 그리고 그 형제로 이루어진 가구가 이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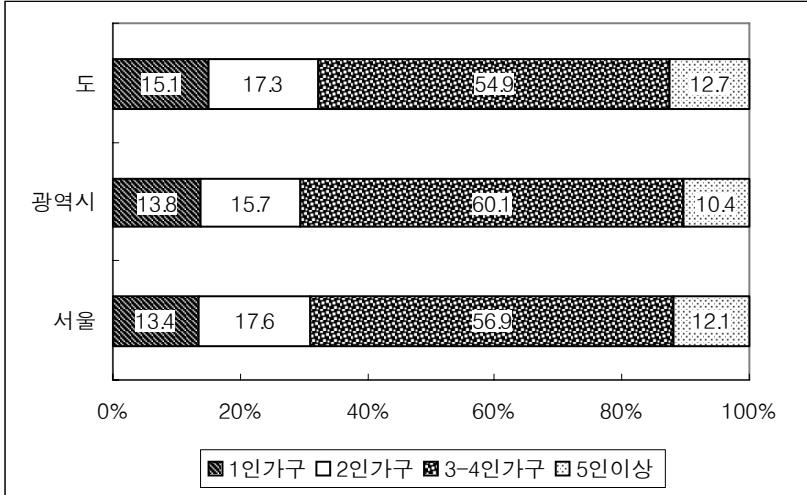
2세대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2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가구주와 그 부모가 같이 사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3세대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3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자녀, 가구주의 손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가구주와 그 부모, 그리고 가구주의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4세대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4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그림 3-1] 8차년도 거주지별 가구원수 비중 및 평균 가구원 수

(단위: %)



<표 3-2> 연도별 세대구성 변화 추이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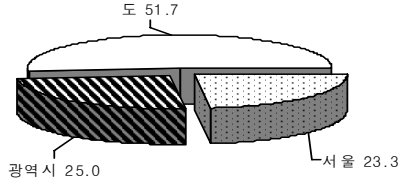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전 체 (가구수)	5,000	4,508	4,266	4,248	4,298	4,592	4,762	4,850
1인 가구	10.2	9.7	10.2	10.8	10.9	12.4	13.4	14.3
1세대가구	10.1	10.1	10.7	10.9	11.8	12.1	12.1	12.5
2세대가구	69.8	70.3	69.7	69.2	68.9	67.9	67.7	66.4
3세대가구	9.8	9.8	9.3	8.8	8.3	7.6	6.8	6.6
4세대가구	0.1	0.1	0.1	0.2	0.1	0.1	0.1	0.1

면, 3세대가구는 1차년도 9.8%에 비해 오히려 3.2%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핵가족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2]는 3세대가구의 지역별 비중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8차조사에서 3세대가구라고 응답한 가구 중 51.7%가 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지역과 광역시지역의 3세대가구 비중을 합한 값보다도 많은 것으로 중소도시일수록 여전히 확대가족 형태를 지닌 가구가 많음을 보여준다.

[그림 3-2] 8차년도 3세대가구의 지역별 비중

(단위 : %)



다음으로 <표 3-3>에서는 부부만 사는 경우(부부단독), 부모와 미혼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부모+미혼자녀), 부모님 중 한 분과 미혼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편부모+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구성을 중심으로 가족구성 형태별 변화 추이를 제시하였다. 먼저 부모+미혼자녀 가구가 55.0%로 가장 높았으며, 이것이 전형적인 핵가족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부단독가구가 11.7%, 편부모+미혼자녀 가구가 8.2%로 나타나고 있다. 각 연도별 핵가족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1차년도 74.4%, 2차년도 74.8%, 3차년도 75.1%, 4차년도 75.8%, 5차년도 76.0%, 6차년도와 7차년도가 모두 75.6%, 8차년도 75.0%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가구추계자료의 경우 핵가족가구의 비중이 2000년 68.3%, 2001년 68.5%, 2002년 68.6%, 2003년 68.7%, 2004년 68.8%, 2005년 68.8%로 각각 나타나고 있어 KLIPS의 핵가족 비중이 6.2%p 정도 높은 가운데 핵가족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는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3> 연도별 가족구성 형태별 변화 추이

(단위 : 가구, %)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전체(가구수)	5,000	4,508	4,266	4,248	4,298	4,592	4,762	4,850
핵가족가구	74.4	74.8	75.1	75.8	76.0	75.6	75.6	75.0
부부단독	9.0	9.0	9.5	10.2	10.8	11.2	11.2	11.7
부모+미혼자녀	59.3	59.6	59.1	59.2	58.6	56.6	56.4	55.0
편부모+미혼자녀	6.1	6.2	6.5	6.4	6.6	7.7	8.0	8.2
1인가구	10.2	9.7	10.2	10.8	10.9	12.4	13.4	14.3
비핵가구	15.4	15.5	14.8	13.4	13.1	12.1	11.0	10.7

제 2 절 가구주 및 가구원의 특성

제2절에서는 KLIPS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다. KLIPS의 가구주는 “가구원 중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정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정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¹⁸⁾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앞서 언급한 가구에 대한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KLIPS의 경우 비혈연관계로만 이루어진 가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1. 가구주의 특성

<표 3-4>에서는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별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8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주의 연령은 평균 49.6세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성별 비중은 남성이 82.0%로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1차년도 조사 이후 남성가구주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7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을 제외한 전연령층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가운데 40대의 비중이 26.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가구주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여 8차년도에는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인구주택총조사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2인 이상 함께 사는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가구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가계조사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해당가구의 구성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또한 사실상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사람을 가구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표 3-4〉 연도별 가구주의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 분포 추이

(단위: 명, %)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전 체		4,999	4,507	4,258	4,248	4,268	4,592	4,762	4,763
성별	남성	86.1	86.1	86.0	85.7	85.3	83.5	83.2	82.0
	여성	13.9	13.9	14.0	14.3	14.7	16.5	16.8	18.0
혼인 상태	미혼	6.6	5.9	6.1	5.6	5.9	6.7	7.5	8.0
	기혼 유배우	77.3	80.9	80.0	79.7	78.9	77.0	75.6	74.2
	기혼 무배우	16.1	13.2	13.9	14.7	15.2	16.3	16.9	17.8
연령	30세 미만	7.6	6.0	4.9	4.7	4.5	4.6	4.7	5.1
	30대	27.3	27.0	26.2	23.7	23.0	21.5	22.7	22.4
	40대	28.0	27.7	28.2	29.2	28.5	28.8	28.2	26.9
	50대	19.5	20.3	19.9	20.2	20.4	20.3	19.6	20.3
	60세 이상	17.6	19.0	20.8	22.2	23.6	24.8	24.8	25.3
	평균(세)	46.4	47.1	47.8	48.4	48.9	49.5	49.4	49.6
교육 수준	무학	6.2	6.2	6.1	5.9	6.0	5.7	5.5	5.5
	고졸 미만	32.2	32.0	32.2	33.2	31.8	30.5	27.7	26.6
	고졸	36.1	35.6	35.5	34.1	34.1	33.8	32.6	31.8
	대체 및 중퇴	2.9	2.7	2.5	2.6	2.4	2.6	3.2	3.0
	대졸 이상	22.6	23.5	23.7	24.3	25.7	27.4	30.9	33.2

2. 가구원의 특성

여기서는 개인설문과 신규 조사자 설문에 응답한 15세 이상 가구원 11,580명(개인조사 11,199명+신규조사자 381명)의 응답 결과를 기초로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본다. <표 3-5>는 1~8차년도 조사 15세 이상 가구원의 특성을 보여준다. 1차년도 조사 당시 여성의 비중이 51.4%로 남성에게 비해 약간 높았으나, 조사차수가 반복되면서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감소하였다. 8차년도 조사에서는 여성이 48.9%, 남성이 51.1%로 남성의 비중이 여성을 추월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평균연령은 41.4세로 1~8차년도 조사기간을 경과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평균연령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차년도 현재 60세 이상 고연령층의 비중은 16.3%로 1차년도(13.0%)에 비해 3.3%p 높아진 반면 15세 이상 20세 미만 연령층의 경우 1차년도의

〈표 3-5〉 1~8차년도 조사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전 체		13,321	12,039	11,205	11,051	10,966	11,543	11,661	11,580
성별	남성	48.6	48.9	49.3	49.6	49.9	50.1	50.8	51.1
	여성	51.4	51.1	50.7	50.4	50.1	49.9	49.2	48.9
연령	15~19세	11.8	11.7	11.3	10.3	9.8	8.9	8.9	8.7
	20~24세	9.4	9.5	9.4	10.1	10.1	9.5	9.5	8.4
	25~29세	11.2	10.8	10.7	10.6	10.5	10.9	10.7	11.4
	30~39세	23.0	22.9	22.6	21.7	21.7	21.3	21.5	21.6
	40~49세	19.1	19.0	19.2	20.1	20.0	20.6	20.5	20.3
	50~59세	12.6	12.5	12.3	12.3	12.3	12.6	12.9	13.3
	60세 이상	13.0	13.8	14.6	15.0	15.6	16.1	16.0	16.3
	평균(세)	39.2	39.5	39.8	40.1	40.4	41.0	41.1	41.4
가구 주 와의 관계	가구주	37.5	37.5	37.7	38.2	38.5	39.5	40.0	40.9
	배우자	29.6	29.1	28.7	28.3	28.2	27.2	26.7	25.9
	부모	4.0	3.7	3.5	3.1	2.8	2.5	2.2	2.1
	자녀	27.1	28.1	28.7	29.2	29.3	29.8	30.0	30.1
	형제	1.1	1.1	1.0	0.7	0.7	0.5	0.5	0.5
	기타	0.6	0.5	0.5	0.6	0.5	0.5	0.6	0.5
혼인 상태	미혼	28.8	29.7	30.6	30.8	31.1	31.9	32.6	33.0
	기혼 유배우	61.2	62.5	61.4	60.9	60.2	59.2	58.4	57.5
	기혼 무배우	10.0	7.8	8.0	8.3	8.7	8.9	9.0	9.5
교육 수준	무학	6.5	6.3	6.0	5.7	5.6	5.2	4.9	4.8
	고졸 미만	45.3	33.2	32.2	31.8	30.5	29.4	28.3	27.5
	고졸	22.0	32.7	32.4	30.8	30.5	29.7	28.8	28.3
	대재 및 중퇴	12.1	8.8	9.2	9.9	9.5	9.6	10.1	9.5
	전문대졸	4.1	5.9	6.5	7.2	8.0	8.4	8.9	9.7
	대졸 이상	10.1	13.1	13.8	14.7	15.9	17.7	19.0	20.3

11.8%에서 8.7%로 낮아졌다. 개인응답자의 주 연령대는 21.6%를 차지하고 있는 30대지만, 40대의 경우에도 20.3%로 두 연령대의 격차가 조사를 거듭할수록 좁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원들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보면, 부모-자녀가 동거하는 직계가족

의 형태가 96.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부모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가구주의 (조)부모의 비중은 1차년도 4.0%에서 8차년도에는 1.9%p까지 감소한데 반해, 자녀의 비중은 1차년도 27.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8차년도에는 3.0%p가 증가한 30.1%로 나타난다.

가구원들의 교육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졸자가 2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비중도 4.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졸 미만의 학력 소지자도 27.5%에 이르고 있으나 1차년도(45.3%)에 비해서는 17.0%p나 감소한 데 반해,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는 30.0%로 1차년도 14.2%에 비해 16.3%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 3 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

KLIPS의 조사대상가구에는 매년 가구원의 출생·결혼 등으로 인한 가구원의 진입 및 유학·군입대·사망 등으로 인한 이탈이 발생하게 된다. 이 중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은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의 인구변동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서는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¹⁹⁾

먼저, 출생아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3-6>과 같다. 1~8차년도 기간 동안 총 출생아는 1,209명이며, 각 연도별 출생아의 수는 2차년도 148명, 3차년도 122명, 4차년도 191명, 5차년도 150명, 6차년도 217명, 7차년도 209명, 8차년도 172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4차년도와 7차년도의 경우에는 여아의 비중이 각각 55.4%와 50.2%로 남아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지

19) 이 절의 분석에는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KLIPS에서 부여되는 개인단위의 가중치는 15세 이상의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1~5차년도 조사기간 동안 출생하는 가구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개인가중치가 부여될 수 없으며, 사망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개인조사에서 당연히 누락되므로 역시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없다.

〈표 3-6〉 2~8차년도 출생자의 특성

(단위: 명, %)

	전 체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전 체	1,209	148	122	191	150	217	209	172
남 성	618 (51.1)	75 (50.7)	66 (54.1)	87 (45.6)	82 (54.7)	111 (51.2)	104 (49.8)	93 (54.1)
여 성	591 (48.9)	73 (49.3)	56 (45.9)	104 (55.4)	68 (45.3)	106 (48.8)	105 (50.2)	79 (45.9)

주: () 안은 전체 대비 비중임.

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조사연도에는 남아의 비중이 각각 50.7%, 54.1%, 54.7%, 51.2%, 54.1%로 여아의 출생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1~8차년도 조사기간 동안 사망한 표본에 대한 특성을 살펴본다. 총 사망자는 507명으로 이 중에서 2차년도 사망자가 64명, 3차년도 59명, 4차년도 92명, 5차년도 60명, 6차년도 80명, 7차년도 72명, 8차년도 80명을 차지했다.

각 연도별 사망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3-7>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2~8차년도 기간 동안 사망자 중에서 남성이 60.0%(304명), 여성이 39.3%(199명)로 남성이 20.7%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연도별로 살펴보면, 2차년도의 경우 사망자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68.8%로 여성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3차년도에는 여성의 비중이 39.0%로 증가하고 4차년도에는 여성이 55.4%로 과반수를 초과하였다. 그러나 5차년도에는 남성 사망자가 60%를 넘어서고 6차년도에는 62.5%를 차지했다가, 7차년도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71.4%를 차지했으며, 8차년도에는 60.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망 당시의 연령을 살펴보면, 1~8차년도 기간 동안의 전체 사망자 중에서 사망 당시 50세 미만이었던 가구원의 비중은 13.4%이며, 50~59세가 12.0%, 60~69세는 20.5%, 70~79세는 25.8%, 80세 이상은 26.4%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사망한 가구원의 절반 정도가 70세 이상이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8차년도 기간 동안 사망 당시의 평균연령은 68.7세이며, 이 중 2차년도 사망자는 65.5세, 3차년도 69.3세, 4차년도

〈표 3-7〉 2~8차년도 사망자의 특성

(단위: 명, %)

		전 체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전 체		507 (100.0)	64 (100.0)	59 (100.0)	92 (100.0)	60 (100.0)	80 (100.0)	72 (100.0)	80 (100.0)
성별	남 성	304 (60.0)	44 (68.8)	36 (61.0)	41 (44.6)	36 (60.0)	50 (62.5)	50 (71.4)	47 (60.3)
	여 성	199 (39.3)	20 (31.3)	23 (39.0)	51 (55.4)	24 (40.0)	30 (37.5)	20 (28.6)	31 (39.7)
사망 당시 연령	50세 미만	68 (13.4)	12 (19.1)	6 (10.3)	10 (10.9)	9 (16.1)	13 (16.9)	11 (15.3)	7 (8.8)
	50~60세	61 (12.0)	6 (9.5)	6 (10.3)	12 (13.0)	6 (10.7)	8 (10.4)	12 (16.7)	11 (13.8)
	60~70세	104 (20.5)	18 (28.6)	15 (25.9)	11 (12.0)	10 (17.9)	20 (26.0)	16 (22.2)	14 (17.5)
	70~80세	131 (25.8)	14 (22.2)	17 (29.3)	26 (28.3)	21 (37.5)	14 (18.2)	20 (27.8)	19 (23.8)
	80세 이상	134 (26.4)	13 (14.1)	14 (24.1)	33 (35.9)	10 (17.9)	22 (28.6)	13 (18.1)	29 (36.3)
	평균(세)	68.7	65.5	69.3	70.7	66.8	67.3	67.1	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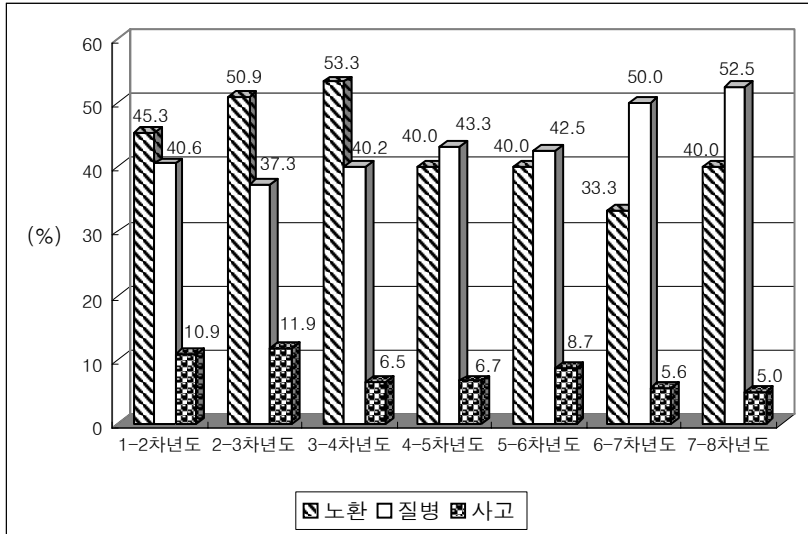
주: 사망시기를 응답하지 않아 사망 당시 연령을 알 수 없는 경우가 9명 있음.

70.7세, 5차년도 66.8세, 6차년도는 67.3세, 7차년도는 67.1세, 8차년도는 73세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7~8차년도 사망자의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질병이 52.5%(42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노환이 40.0%(32명), 사고가 5.0%(4명), 기타가 2.5%(2명)로 각각 조사되었다. 이 중에서 사망원인이 기타인 경우를 제외한 482명에 대해 연도별로 그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3-3]과 같다. 분석결과, 1~4차년도 조사기간 동안은 노환이 가장 많은 사망원인을 차지하였으나, 5차년도부터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이를 추월하여 4~5차년도 43.3%, 5~6차년도 42.5%, 6~7차년도 50%, 7~8차년도에는 52.5%로 절반수준까지로 증가하였다.

[그림 3-3] 사망자의 사망원인

(단위 : %)



제 4 장

가계 경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에서는 가구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항목을 측정해 오고 있다. 8차년도(2005년) 조사에서는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해 각 항목별 액수와 종류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장에서 다루게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절 가구소득 부문에서는 가구의 총소득 및 각 항목별 소득분포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가구소비를 생활비와 저축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가구의 주거형태에 대해 살펴보고, 제4절에서는 가구의 자산을 크게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부채의 특성에 대해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는 기본적으로 가구가중치를 사용한 것이며, 예외적으로 분석내용의 특성상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이를 밝히도록 하였다.

제 1 절 가구소득

KLIPS에서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등 6개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그 중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은 세부 항목별로 조사되었다. 각

영역별 가구소득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소득은 가구원 중 근로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의 총액을 의미하며,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자영업자의 소득 등도 포함된다.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이 포함된다. 다만 자산의 가치가 변화하였더라도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주식의 시세는 높아졌지만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팔지 않은 경우)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부동산을 임대해 주고 받은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부동산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보험소득은 가구원 중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및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험을 수급한 액수의 총액을 의미한다. 이전소득은 가구원 중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친척, 친지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보조금의 총액을 의미한다. 1~5차년도 조사와 비교할 때, 6차년도 조사부터는 이전소득 항목 중 정부보조금을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과 기타 정부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기타소득은 보험금 지급이나 퇴직금, 복권 탄 돈과 같이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소득의 총액을 의미한다.

한편, KLIPS에서 가구의 소득은 전년도 한 해 동안(8차년도의 경우 2004년 한 해) 얻은 소득으로 세금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하며 연간 총액으로 대답하게 했다. 다만, 1차년도의 경우 조사일 이전 1년간 소득으로 1997년 4월부터 1998년 11월에 걸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1. 가구의 총소득

가구의 총소득은 전년도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 등 모든 항목별 가구소득을 합한 액수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통계청 가계조사자료와의 비교가능성을 생각하여 기타소득 중에서 보험금과 기타소득 항목은 제외하였다. 또한 당해연도 분가한 가구의 소득은 온전한 지난해 1년간의 소득이 아니라 분가한 이후의 소득

〈표 4-1〉 연간 가구 총소득

(단위: 가구, 만원)

	2차년도 (1998년)	3차년도 (1999년)	4차년도 (2000년)	5차년도 (2001년)	6차년도 (2002년)	7차년도 (2003년)	8차년도 (2004년)
명목 소득	1,843	1,969	2,102	2,610	2,741	2,923	3,110
실질 소득	1,900	2,013	2,102	2,507	2,564	2,640	2,711

이기 때문에 낮게 추정된 소득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구의 소득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²⁰⁾

〈표 4-1〉을 통해 연도별로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²¹⁾의 추이를 살펴보면 연도를 거듭할수록 가구의 총소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8차년도의 연간 총소득은 3,110만원(월평균 259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87만원 정도 늘어났으며 이를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소득으로 환산²²⁾하면, 7차년도에 비해 71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소득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외환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차년도(1998년 소득)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5차년도에 크게 증가하였다.

2.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그림 4-1]에서는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의 변화를 볼 수 있다. 먼저, 가구소득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근로소득이었다. 근로소득의 비중은 8차년도에는 84.6%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원은 전체 소득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소득이며, 이전소득이 4.2%, 기타소득 1.5%, 사회보험소득 2.1%, 금융소득은 1.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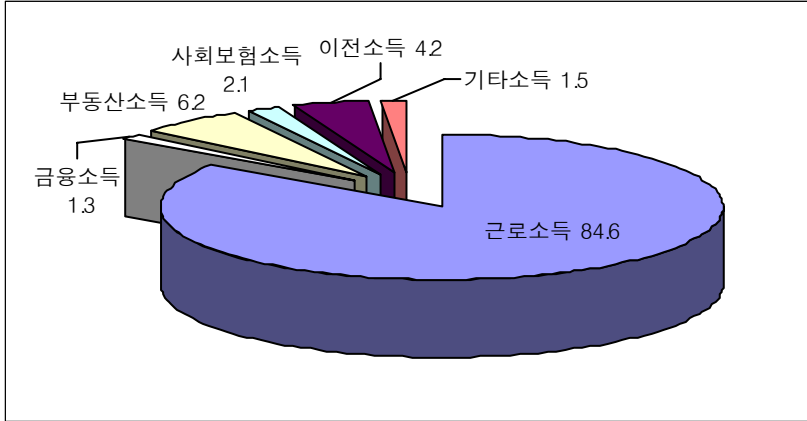
20) 성재민,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소득자료 특성』, 노동리뷰 2006년 2월호(통권 14호) 참조.

21) 소득이 전혀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소득액을 0으로 처리함.

22) 실질소득 = (명목소득 / 당해연도 소비자물가지수) × 100 으로 산출하였으며,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조사」의 물가지수(2000년 = 100 기준)를 사용하였다.

[그림 4-1] 가구 총소득 대비 소득원천별 비중

(단위: %)



제 2 절 가구소비

이 절에서는 8차년도 조사가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소비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KLIPS에서 가구소비는 작년 한 해(8차년도의 경우 2004년) 동안 소비한 생활비와 저축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생활비는 월평균 교육비, 주거비, 식품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각종 공과금 등 생활하는 데 드는 돈을 의미하며, 저축이나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은 제외된다. 동시에 혼수 장만, 교통사고 보상금 등 특별한 일로 인해 지불한 돈도 생활비에서 제외된다. 4차년도 조사부터는 1~3차년도 조사와는 달리 월평균 생활비 외에 세부항목별 생활비를 묻고 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1)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2) 외식비 (3) 공교육비(학교등록금, 납입금 등), (4) 사교육비(학원, 과외비 등), (5)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포함), (6) 주거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등), (7) 경조사비, (8) 보건의료비, (9) 문화비(TV·케이블TV·위성TV 시청료 또는 취미, 여가 등에 들어가는 돈), (10) 내구재(전자제품이나 가구) 구입비, (11)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12) 용돈, (13) 피복비, (14) 현금 및 각종

기부금, (15)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16) 대중교통비, (17) 기타 생활용품비 등이다. 이 중 용돈 항목은 5차년도 조사에 새로 추가된 항목이고, 6차년도 조사에서는 피복비 항목, 그리고 7차년도 조사에는 현금 및 각종 기부금,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대중교통비 항목이 추가되었다.

저축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일반저축, 개인연금, 적금, 보험, 계 등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저축 역시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4차년도 조사부터 세부항목별 저축액을 묻고 있는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1) 예·적금, (2) 개인연금, (3) 보장성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4) 저축성보험(재테크보험, 교육보험 등), (5) 계, (6)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1. 생활비

<표 4-2>는 2~8차년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를 제시하였다. 8차년도 조사에서 월평균 생활비는 전년도에 비해 6만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의 증가폭은 4차년도까지 점차 커지다가, 5차년도부터는 완만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비를 범주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50만원 미만의 소비계층은 2차년도 16.9%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8차년도 조사에서는 8.4%까지 감소한 반면, 월 20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계층은 2차년도에는 4.5%에 불과했으나 5차년도부터는 크게 증가하여 8차년도에는 29.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을 통해 가구의 소득계층별 생활비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의 소득계층 가구의 경우 50만원 미만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비중이 32.4%, 50만~75만원 미만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비중이 34.5%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소득계층에 속하는 가구의 66.9%는 월 75만원 미만의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월평균 소득이 100만~2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는 100만~150만원 미만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비중이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200만~300만원 미만인 가구는 150만~200만원 미만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비중이 41.5%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

는 20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비중이 75.2%에 이르고 있어, 가구 소득수준별로 생활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가구소득계층별 평균생활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의 평균생활비는 272.7만원으로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평균생활비 71.8만원)보다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2〉 2~8차년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

(단위: 가구, %, 만원)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전 체	4,473	4,248	4,211	4,290	4,567	4,746	4,805
50만원 미만	16.9	16.4	13.9	12.3	10.8	9.7	8.4
50만~75만원 미만	21.8	22.1	17.3	13.3	12.0	10.3	11.4
75만~100만원 미만	14.9	11.3	13.3	9.7	9.6	9.1	7.7
100만~150만원 미만	29.9	27.9	30.0	28.4	25.5	23.0	23.0
150만~200만원 미만	11.9	15.6	16.6	20.6	20.0	21.0	20.2
200만원 이상	4.5	6.8	8.9	15.8	22.0	27.9	29.3
월평균 생활비	101	108	118	137	151	163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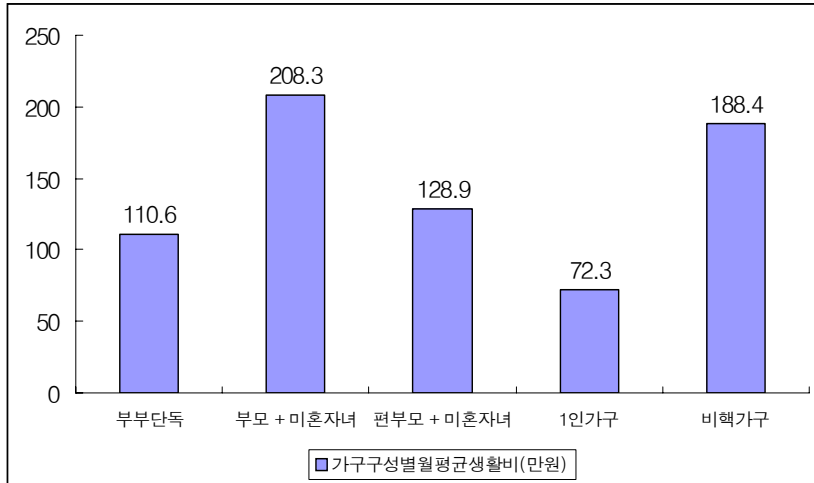
〈표 4-3〉 8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월평균 생활비

(단위: 가구, %)

생활비 \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전 체	1,148	1,199	1,067	1,391
50만원 미만	32.4	1.6	0.1	0.2
50만~75만원 미만	34.5	8.6	2.8	0.5
75만~100만원 미만	11.7	15.5	3.5	0.5
100만~150만원 미만	13.9	46.3	26.6	8.1
150만~200만원 미만	5.2	23.0	41.5	15.4
200만원 이상	2.2	4.9	25.6	75.2
월평균 생활비(만원)	71.8	127.3	173.6	272.7

〔그림 4-2〕 8차년도 가구의 가구구성별 월평균 생활비

(단위: 만원)



〔그림 4-2〕를 통해서 8차년도 가구의 가구구성별 월평균 생활비를 살펴보면, 가구구성별로 전형적인 핵가족 구성인 부모와 미혼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월평균 생활비가 208.3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인가구가 72.3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확대가족을 의미하는 비핵가구의 경우 188.4만원으로 가구원수가 더 많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부모-미혼자녀 가구보다 월평균 생활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모님 중 한 분과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생활비는 128.9만원으로 부부단독가구(110.6만원)의 생활비보다 18.3만원 정도 높았다.

주요 항목별 생활비 비중²³⁾을 살펴보면(표 4-4 참조), 식비의 비중이 전체 생활비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18.7%를 차지하고 있지만,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차년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외식비의 비중은 2차년도 3.2%에서 4차년도 3.9%, 5차년도 4.2%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6차년도 4.0%, 7차년도 3.7%, 8차년도 3.5%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교육비 부담 정도를 살

23) 한국노동패널 2, 4, 5, 6, 7차년도 조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의 평균생활비 항목 외에도 각각의 생활비 항목별 액수를 함께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사용된 '전체 생활비'는 항목별 생활비의 합계를 기준(100%)으로 설정하고 분석한 것이다.

펴보면 공교육비는 2차년도 9.3%에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사교육비의 비중은 2차년도 8.4%에서 계속 증가하다가 7차년도 이후에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주거비 및 경조사비의 부담 정도는 2~8차년도 기간 동안 각각 2.7%p와 4.8%p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주요 항목별 생활비 비중

(단위: %)

	2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전체 생활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비	34.5	28.4	24.1	21.4	19.8	18.7
외식비	3.2	3.9	4.2	4.0	3.7	3.5
공교육비	9.3	8.2	7.1	6.9	5.8	6.8
사교육비	8.4	8.9	8.9	10.0	8.7	8.5
차량유지비	9.0	10.5	9.8	9.7	9.3	9.0
주거비	12.1	11.6	9.8	8.8	8.7	9.4
경조사비	8.3	5.0	4.5	4.4	3.7	3.5
보건의료비	5.1	4.2	3.7	3.6	3.3	3.2
문화비	2.3	5.2	2.2	2.3	2.1	2.2
내구재	2.2	1.3	1.4	1.6	1.2	1.3
통신비	-	7.2	7.4	7.4	7.0	6.7
용돈	-	-	14.4	14.1	11.9	12.4
피복비	-	-	-	3.6	3.0	3.3
현금 및 기부	-	-	-	-	1.7	1.6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	-	-	-	5.3	6.3
대중교통비	-	-	-	-	2.7	2.8
기타	5.8	5.5	2.5	2.3	2.1	0.9

7차년도 조사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인 현금 및 기부금의 비중은 8차년도에는 1.6%,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의 비중은 6.3%, 대중교통비의 비중은 2.8%로 조사되었고, 6차년도부터 조사하고 있는 피복비의 비중은 3.3%로 조사되었다. 또 5차년도 조사부터 추가적으로 조사된 용돈의 경우에는 12~14% 안팎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4차년도 이후 조사된 통신비의 비중 또한 7% 가량으로 인터넷 및 휴대전화의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5〉 8차년도 부족한 생활비 마련방법

(단위: %)

	마련방법	마련방법	마련방법	전체
	1	2	3	
은행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이용	29.5	19.3	8.4	25.9
현금서비스 이용	5.7	27.8	7.9	11.1
친척이나 친지에게 빌림	11.2	15.3	26.8	13.1
친구나 이웃에게 빌림	5.6	12.3	12.7	7.5
사채 이용	0.4	0.6	4.4	0.7
부동산 매각이나 전세금 인상	1.5	2.7	6.5	2.1
전세나 월세의 규모를 줄임	2.8	5.3	14.3	4.0
저축이나 예금이나 적금의 해약	41.3	14.0	15.3	33.4
주식이나 채권을 비롯한 금융자산 매각	0.3	0.8	-	0.4
자동차나 내구재 또는 금은 등의 귀중품 매각	0.1	2.0	3.8	0.8
기 타	1.6	-	-	1.1

주: 부족한 생활비 마련방법은 복수응답 문항으로, 전체는 각각의 응답을 기준으로 계산(가구단위로 계산된 값이 아님)하여 구한 비중임.

한편 8차조사에서는 가구소득에 비해 생활비 지출이 많은 가구에 대해 부족한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분석결과 저축이나 예금·적금의 해약을 통해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은행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한다는 응답도 25.9%에 달했다. 또한 현금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도 11.1%에 달해, 대부분의 가구는 금융기관을 통해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4-5 참조).

2. 저 축

8차년도 조사가구 중에서 저축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68.5%이며, 월평균 저축액은 44만 8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6 참조).

2~8차년도 기간 동안 저축을 한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각각 52.6%와 51.5%로 다소 낮은 비중을 보였으나, 4차년도에는 69.8%까지 증가하였으며, 5차년도에는 73.2%까지 증가하였다. 그러

나 6차년도에 저축을 하는 가구의 비중은 65.6%, 7차년도에는 64.9%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러한 비중은 8차년도 들어서 다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저축액의 변화는 2차년도 24만 8천원에서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8차년도에는 44만 8천원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소득이나 생활비 지출과 그 맥락을 거의 같이라고 볼 수 있겠다.

〈표 4-6〉 2~8차년도 가구의 저축 유무 및 월평균 저축액

(단위: 가구, %, 만원)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전 체	4,458	4,247	4,186	4,292	4,592	4,761	4,849
저축 안함	47.4	48.5	30.2	26.8	34.4	35.0	31.5
저축함	52.6	51.5	69.8	73.2	65.6	64.9	68.5
월평균 저축액	24.8	28.7	34.5	41.7	40.7	42.9	44.8

다음으로 저축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8차년도 가구의 소득 계층별 월평균 저축액의 분포를 살펴보면,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소득계층의 경우 25만원 미만을 저축하는 가구의 비중이 67.9%로, 이들 소득계층의 경우 저축액수 측면에서도 그다지 큰 액수를 저축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4-7 참조). 100만~200만원 미만 소득계층 가구의 경우에도 월 25만원 미만을 저축하는 비중이 52.5%로 가장 높았다. 반면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가구의 경우에는 44.3%가 월 100만원 이상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구소득 규모별 월평균 저축액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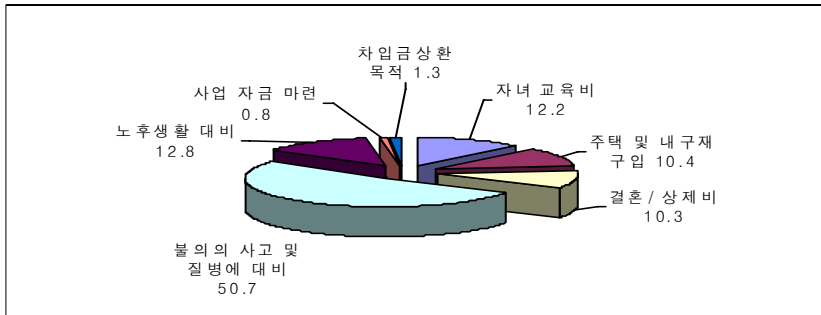
〈표 4-7〉 8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월평균 저축액

(단위: %)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전 체(가구수)	339	765	917	1,292
25만원 미만	67.9	52.5	27.5	12.1
25만~50만원 미만	16.2	27.2	27.6	16.4
50만~100만원 미만	11.9	17.3	33.2	27.2
100만원 이상	4.0	3.0	11.7	44.3
월평균 저축액(만원)	28.8	29.5	48.6	104.6

가 확연히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이를 월평균 저축액을 통해서 비교하여 보면,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의 가구는 월평균 저축액이 28만 8천원인데 반해 월소득 300만원 이상의 가구는 월평균 저축액이 104만 6천원으로 약 3.6배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8차년도 가구의 저축 목적 분포



다음으로 8차년도에 저축을 한 가구의 저축 목적을 살펴보면 [그림 4-3]과 같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의의 사고 및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로 전체 응답가구 중 50.7%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자녀 교육비’와 ‘노후생활 대비’가 각각 12.2%와 12.8%로 이들 세 가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4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및 내구재 구입을 위해 저축을 하고 있다는 가구의 비중은 10.4%로 그리 크지 않았으며, 결혼이나 상·제례를 위해서 저축하고 있는 비중 역시 1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절 주거형태 및 비용

이 절에서는 8차년도 패널가구의 주거형태와 비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패널조사에서는 매년 주거와 관련, 입주형태 및 주택의 종류, 주택의 평수, 주거지의 시가 및 전·월세금 등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입주형태는 자가·전세·월세·기타로 구분되며,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타로 구분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을 말하며,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면적이 200평(660m²)을 초과하는 4층 이상의 주택을 의미한다. 또 다세대주택이란 동당 건축면적이 200평(660m²) 이하의 4층 이하의 주택을, 상가주택은 1·2층은 점포나 사무실이고 3층 이상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고층의 병용주택(빌딩)을 뜻한다.

자기 집인 경우, 단독주택은 대지면적과 연건평, 주거지의 시가 등을 기재하게 하였다. 전세인 경우 주택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해당 가구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기재 없이 실제로 사용하는 주거면적의 평수를 기재하게 하였고 전세금(임대보증금)과 월세금을 기재하게 하였다. 전세의 경우 월세금을 기재하게 한 것은 주택의 소유형태가 전세일지라도 전세금 외에 월마다 돈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만약 전세금 이외에 더 내는 돈이 월 10만원 이상이라면 입주형태가 월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였다. 월세의 경우도 전세와 마찬가지로 실제 사용평수와 월세금을 기재하게 하였다.

1. 입주형태 및 주거비용

먼저 <표 4-8>을 통해 8차년도 입주형태의 분포를 살펴보면, 자기 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60.6%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전세 23.3%, 월세 11.3%로 나타났다. 2~8차년도 입주형태의 추이를 살펴보면 자가 소유자

<표 4-8> 2~8차년도 가구의 입주형태 분포

(단위: 가구, %)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전 체	4,508	4,258	4,248	4,286	4,592	4,762	4,850
자 가	56.6	56.8	59.2	60.1	61.1	60.7	60.6
전 세	30.1	30.4	28.6	27.6	23.8	23.1	23.3
월 세	9.1	8.4	7.6	7.3	9.2	10.6	11.3
기 타	4.2	4.3	4.6	5.0	5.9	5.6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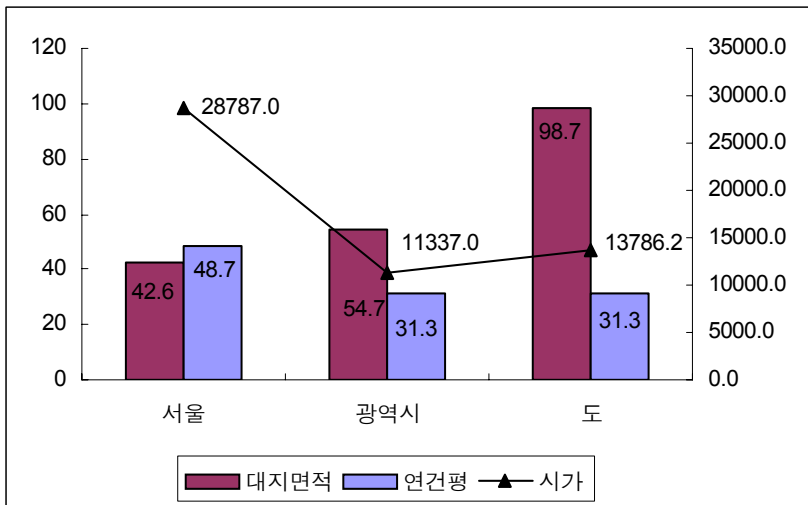
의 비중이 2차년도 56.6%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전·월세의 비중은 2차년도 39.2%에서 4.6%p 정도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4]을 통해 거주지별 자가의 평균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지면적의 경우, 도 지역이 서울과 광역시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연건평이나 시가는 서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울이 타 지역에 비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정원이나 마당, 차고 같은 대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반면 실제 주거공간은 가능한 한 넓게 확보하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도 지역의 대지면적은 평균 98.7평인 데 비해서 광역시는 54.7평, 서울은 42.6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계한 면적인 연건평은 서울이 가장 넓은 48.7평인 데 비해서 도 지역과 광역시는 31.3평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의 시가를 비교해 보면, 서울이 가장 높은 2억 8천787만원인 데 비해, 광역시는 서울의 39.4%에 해당하는 1억 1천337만원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도 지역의 경우에는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1억 3천78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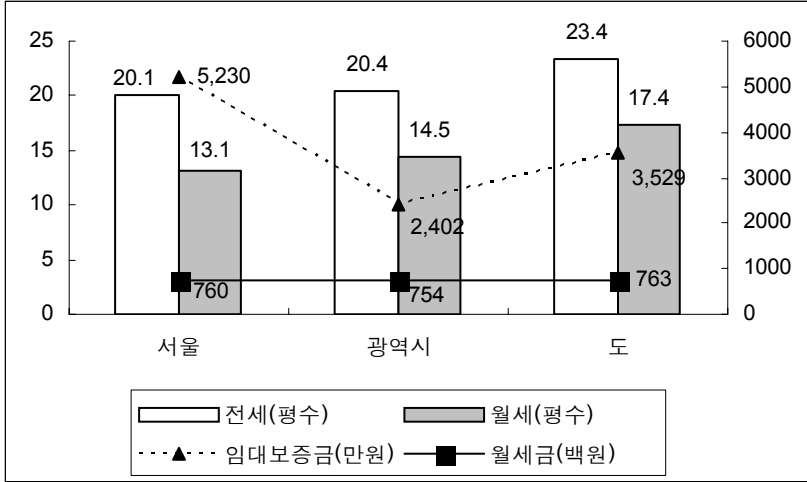
[그림 4-4] 8차년도 거주지별 자가의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

(단위: 평, 만원)



〔그림 4-5〕 8차년도 거주지별 전·월세평수, 임대보증금 분포

(단위: 평, 만원)



〔그림 4-5〕는 거주지가 전세 혹은 월세인 경우 주택의 실제사용평수와 전·월세금을 비교하고 있다. 먼저 전세인 경우 도 지역의 평수가 23평으로 20평에 그친 서울과 광역시에 비해 2평 정도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의 경우도 비슷하게 도 지역에 거주할 경우 실제평수가 17평인데 비해 광역시는 15평, 서울은 13평으로 나타났다. 한편 월세 거주자의 실제 평수는 전세에 비해 4~7평 정도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세 거주자가 월세 거주자에 비해서는 활용가능한 주거공간이 상대적으로 여유롭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전·월세 평균 임대보증금은 5천230만원으로 광역시(2천402만원)보다는 약 2.2배 정도 높으며, 도 지역(3천529만원)보다도 1.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월세금은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택의 종류 및 주거비용

<표 4-9>은 2~8차년도 주택 종류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8차년도 조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의 종류는 43.6%를 차지하

〈표 4-9〉 2~8차년도 가구의 주택종류 분포

(단위: 가구, %)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전 체	4,506	4,250	4,248	4,286	4,592	4,762	4,850
단 독 주 택	38.4	37.8	38.0	36.5	36.6	34.1	32.0
아 파 트	33.5	34.5	35.7	37.3	39.6	41.4	43.6
연 립 주 택	7.8	8.0	7.8	7.7	7.5	8.3	8.7
다 세 대 주 택	15.3	14.8	12.0	12.3	10.2	10.1	11.2
상 가 주 택	-	-	-	-	-	-	3.4
기 타	5.0	4.9	6.6	6.1	6.2	5.3	1.1

주: 상가주택은 8차년도 조사부터 추가적으로 질문한 항목으로, 이전년도 조사에서는 기타로 분류되어왔음.

고 있는 아파트이며, 다음으로는 단독주택이 32.0%를, 다세대주택이 11.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8차년도부터 기타에서 분리하여 질문하고 있고 있는 상가주택은 3.4%를 차지했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주택 종류별 추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아파트 거주자가 2차년도 33.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8차년도에 이르러 43.6%p 증가한 반면, 나머지 주택의 거주자는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단독주택 비중의 감소(1970년 95% → 2005년 44.5%), 아파트의 비중 증가(1970년 0.7% → 2005년 41.7%)라는 추세가 KLIPS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제 4 절 자산 및 부채

이 절에서는 8차년도 응답가구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패널조사에서 자산은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소득이나 소비 문항과는 달리 해당연도의 현재를 기준(8차년도의 경우 2005년 현재)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먼저 부동산자산은 현재 살고 있

는 주택을 제외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 임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의미하며, KLIPS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이나 건물, 임야, 토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있는지 여부(부동산 임대 여부)와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지 여부(부동산 임차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다. 금융자산에는 은행예금, 주식, 채권, 신탁, 보험, 아직 타지 않은 계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포함된다. 패널조사에서 부채는 금융기관이나 비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 쓴 돈이 있는지 여부와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돈 등을 포함한다.

1. 부동산자산

먼저 부동산자산을 살펴보면, 8차년도 패널 응답가구 중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22.8%로 전년도에 비해 1.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0 참조).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자산에 대한 시가 총액 분포를 살펴보면 8차년도의 경우 1억~3억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2.5%로 가장 높지만, 이전 연도와 비교할 때 부동산 시가가 3억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가가 10억원 이상인 가구는 2차년도에 1.5%에서 3차년도에 0.2%p 정도 감소했으나, 8차년도에는 4.5%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부동산 시가가 3억~10억원 미만인 경우에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3차년도와 4차년도에 각각 7.6%, 7.2%에 그치던 것이 5차년도부터 증가하여 8차년도에는 17.7%에 이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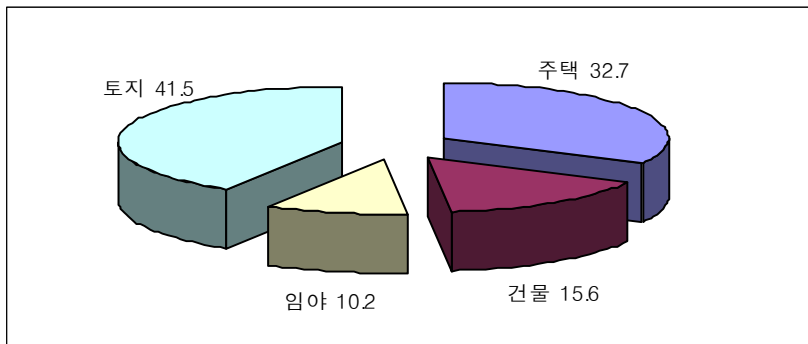
8차년도 조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산의 종류에 대한 조사 문항은 가구당 최대 5개 종류까지 복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4-6]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산의 종류를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 토지로 전체 응답 중 41.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주택이 32.7%, 건물이 15.6%, 임야가 1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부동산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

(단위: 가구, %)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전 체	4,508	4,266	4,248	4,298	4,592	4,762	4,850
부동산 소유 여부							
없 음	78.7	80.0	77.7	77.7	78.8	78.7	77.2
있 음	21.3	20.0	22.3	22.3	21.2	21.3	22.8
1천만원 미만	8.7	6.3	8.3	5.8	6.8	6.1	4.1
1천~5천만원 미만	28.9	30.2	27.7	24.1	28.5	21.6	21.8
5천~1억원 미만	24.2	24.0	26.5	26.5	19.1	19.2	18.0
1억~3억원 미만	28.4	30.7	26.5	31.0	28.8	30.2	32.5
3억~5억원 미만		5.3	4.4	5.9	7.1	9.4	10.1
5억~10억원 미만	3.6	2.3	2.8	4.0	5.8	7.1	7.6
10억원 이상	1.5	1.3	1.8	1.8	2.8	3.2	4.5
잘 모르겠음	4.6	-	2.0	0.9	1.0	3.2	1.3

<그림 4-6> 8차년도 소유 부동산자산의 종류 분포



주 : 이 항목은 복수설문이므로 각 %는 전체 응답개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임.

다음으로 <표 4-11>을 통해 8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부동산자산 총액의 분포를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동산자산의 시가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경우 1천만~5천만원 미만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 (30.7%)이 가장 높은 반면,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서는 1

억~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36.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월평균 100만원 미만인 소득계층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의 부동산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이 42.3%인 데 반해, 월소득 100만~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36.9%, 200만~300만원 미만인 가구는 30.1%, 300만원 이상인 가구는 14.0%로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저가의 부동산 소유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8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부동산자산 분포

(단위: 가구, %)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전 체	200	218	204	474
1천만원 미만	11.6	5.1	3.9	1.3
1천만~5천만원 미만	30.7	31.8	26.2	12.7
5천만~1억원 미만	19.1	19.7	20.6	15.9
1억~3억원 미만	21.7	30.6	33.4	36.6
3억~5억원 미만	7.2	7.3	9.4	12.7
5억~10억원 미만	4.5	2.6	3.3	12.6
10억원 이상	1.7	2.1	1.4	7.7
잘 모르겠음	3.6	0.9	1.9	0.5

2. 금융자산

〈표 4-12〉를 통해서 8차년도에 조사된 가구 중 금융자산을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는 2차년도 71.2%에서 8차년도 65.5%로 지난 7년 동안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2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7차년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8차년도에는 다시 증가하여 1천906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8차년도 조사에서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의 금융자산 규모별 비중을 살펴보면 1,000만~5,0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이 2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250만원 미만인 가구가 10.8%, 250만~500만원 미만인 가구가 5.6%, 500만~1,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1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금융소득이 1,000만~5,000만원 미만인 가구를

〈표 4-12〉 금융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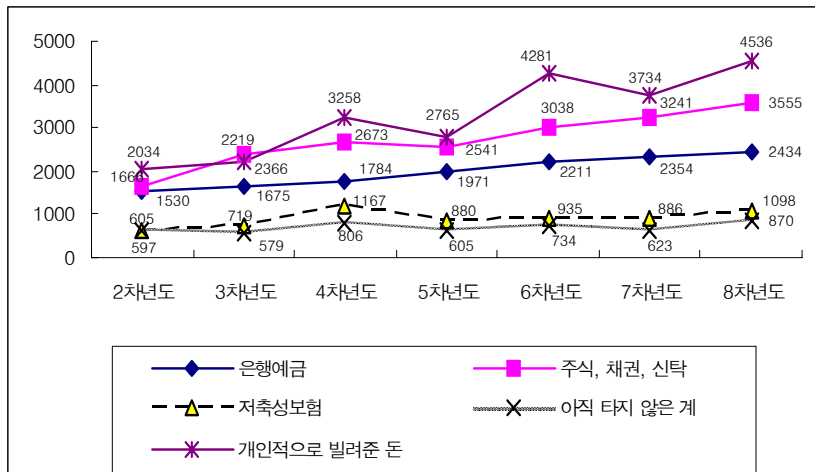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전 체	4,508	4,266	4,248	4,298	4,592	4,762	4,850
없음	28.8	35.1	34.1	33.7	36.7	39.6	34.5
250만원 미만	15.7	12.7	14.7	12.4	11.8	11.4	10.8
250만~500만원	8.6	7.4	6.1	5.6	5.3	5.7	5.6
500만~1000만원	12.7	12.4	12.3	11.4	10.8	9.7	11.2
1000만~5000만원	27.8	25.2	25.4	27.7	27.2	24.7	28.0
5000만~1억원	4.4	4.6	4.4	6.1	4.7	5.3	5.8
1억원 이상	2.0	2.7	3.1	3.0	3.6	3.6	4.2
평 균(만원)	1,344	1,396	1,582	1,598	1,674	1,660	1,906

주 : 금융자산 시가총액의 평균은 금융자산이 0인 가구를 포함한 수치임.

기준으로 이보다 금융소득이 적은 가구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금융소득이 이보다 많다고 응답한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7차년도의 경우 금융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늘고, 5,000만~1억원 미만의 금융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6차년도에 다소 감소하였다가 소폭 증가하였다.

〈그림 4-7〉 2~8차년도 금융자산의 종류별 금액 추이

(단위: 만원)



주 : 해당 자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 후 계산함.

[그림 4-7]을 통해서 금융자산의 종류별 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특히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의 절대적 비중 및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은 8차년도에 4천53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주식/채권/신탁과 같은 제2금융권의 금융자산 비중은 은행예금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간 격차 또한 연도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에는 주식/채권/신탁이 1,666만원으로 은행예금(1,530만원)보다 136만원 정도 높지만, 3차년도와 4차년도에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져 각각 691만원과 88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후 5차년도에는 조금 감소하여 570만원으로 좁혀졌으나, 6차년도에는 그 격차가 다시 827만원이 되었고 7차년도에는 887만원으로, 8차년도에는 1천121만원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저축성보험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차년도 597만원에서 4차년도에는 최고 1,167만원까지 증가하였다가 5차년도에는 880만원으로 감소하였고, 6차년도에는 조금 증가한 935만원이었다가 7차년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가 8차년도에는 1천98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아직 타지 않은 계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변동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차년도와 8차년도 조사에서 각각 평균 605만원과 87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표 4-13>은 8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금융자산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금융자산이 없다는

<표 4-13> 8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금융자산 분포

(단위: 가구, %)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전 체	1,185	1,204	1,069	1,392
없음	54.9	44.3	28.0	15.3
250만원 미만	16.6	12.8	10.6	4.9
250만~500만원 미만	5.9	7.4	6.9	3.0
500만~1천만원 미만	7.3	11.4	14.9	11.3
1천만~5천만원 미만	12.6	18.6	32.4	44.4
5천만~1억원 미만	1.7	3.4	4.5	11.8
1억원 이상	1.1	2.1	2.7	9.3

응답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250만원 미만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16.6%를 차지하였다. 월소득이 100만~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금융자산이 없다는 응답이 44.3%로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자산이 1,000만~5,000만원 미만인 비중이 18.6%에 이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반면 월소득 200만~3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는 가장 높은 응답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금융자산 1,000만~5,000만원 미만으로 그 비중이 32.4%에 이르며, 금융자산이 없다는 응답은 28.0%에 그쳤다. 마지막으로 월소득 3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없다는 응답이 15.3%까지 크게 줄어들었으며, 1,000만~5,000만원 미만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비중이 44.4%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5,000만~1억원 미만의 금융자산을 가졌다는 응답도 11.8%에 이르며, 1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소유한 비중도 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가구소득계층별 금융자산 소유의 불평등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가구의 부채

8차년도 조사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48.5%를 차지하여 2차년도 조사(49.5%) 당시보다 약 1.0%p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4 참조). 반면 평균 부채잔액은 2차년도 1,843만 8천원이던 것이 3차년도에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며 8차년도에는 2,989만 7천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제가 안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전반적인 소득증가로 이어지긴 했지만, 가구부채 또한 함께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성장이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신용카드의 이용이 일반화되면서 신용불량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노동패널자료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8차년도를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계층별 부채가구의 분포를 부채잔액별로 살펴보면 <표 4-15>과 같다. 먼저 부채가 없는 가구의 비중은 월평균 1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 61.9%에 이르고 있으나, 가구소득

이 증가할수록 부채비중도 함께 증가하여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39.8%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에 따라 부채잔액의 비중이 가장 크게 변동하는 구간은 5,000만원 이상으로 가구소득이 월평균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2%에 그치고 있으나,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0.5%로 4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4〉 부채잔액 분포

(단위: 가구, %)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전 체	4,491	4,259	4,225	4,281	4,581	4,742	4,829
부채 없음	49.5	53.3	50.6	50.0	49.6	49.2	48.5
500만원 미만	7.1	5.5	5.5	5.2	4.5	3.8	4.1
500만~1천만원 미만	7.1	6.1	6.5	6.2	5.7	5.0	4.4
1천만~5천만원 미만	26.3	24.2	26.7	26.5	25.4	25.1	25.2
5천만~1억원 미만	6.3	7.0	6.7	7.0	8.4	9.5	9.0
1억원 이상	3.8	4.0	4.1	5.2	6.4	7.5	8.7
평균(만원)	1,843.8	1,745.6	1,817.1	2,123.8	2,583.2	2,702.5	2,989.7

주: 가구의 부채잔액 평균은 0을 포함한 평균값임.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부채잔액이 1,000만~5,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모든 소득구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18.3%만이 이 구간에 해당되지만,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00만~200만원인 가구는 28.0%, 200만~300만원인 가구는 28.9%,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는 25.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오히려 1억원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18.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구의 소득계층별 평균 부채잔액은 월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는 1498만 2천원, 월소득 100만~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177만 1천원, 200만~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307만 2천원,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294만 2천원으로 가구소득계층에 따른 부채잔액의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8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부채잔액 분포

(단위: 가구, %)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전 체	1,175	1,200	1,067	1,387
부채 없음	61.9	46.2	48.6	39.8
500만원 미만	7.1	5.1	3.3	1.6
500만~1천만원 미만	5.4	6.9	3.4	2.5
1천만~5천만원 미만	18.3	28.0	28.9	25.7
5천만~1억원 미만	4.4	8.3	9.9	12.5
1억원 이상	2.8	5.5	5.9	18.0
평 균(만원)	1,498.2	2,177.1	2,307.2	5,294.2

주: 가구의 부채잔액 평균은 0을 포함한 평균값임.

제 5 절 자녀 교육

KLIPS는 자녀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항목을 측정해 오고 있다. KLIPS 조사가 처음 실시된 1차년도(1998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의 이용 여부, 이용하는 종류와 이용횟수, 이용시간, 그리고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월평균 수업료 등의 항목을 최대 다섯 가지까지 조사하였으며, 자녀의 사교육과 탁아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 정도를 ‘매우 부담된다’에서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들 항목에 대해서 2차년도(1999년)에는 조사가 되지 않았고, 3차년도(2000년) 이후부터는 조사 대상이 재수생 이하 자녀로, 그리고 7차년도(2004년) 조사부터는 대학(원)생 자녀로까지 확대 조사하였다.

한편, 7차년도 조사에서 신설된 대학(원)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 항목은 학교 또는 회사 등을 통해 제공받는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가구가 부담한 정규학교 등록금과 그 외 지출비용(학원비, 교재비, 생활비, 기타 교육관련 잡비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표 4-16〉 8차년도 가구내 자녀유무 및 자녀 수

(단위 : %)

고등학생 이하 자녀 유무	있음	42.0	대학생 이상 자녀 유무	있음	17.1
	없음	58.0		없음	82.9
고등학생 이하 자녀수	1명	37.1	대학생 이상 자녀수	1명	78.2
	2명	55.0		2명	20.8
	3명 이상	7.9		3명 이상	1.0

우선 각 가구의 자녀의 유무와 자녀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표 4-16>과 같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2.0%였으며, 2명인 경우가 5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17.1%의 가구만이 대학생 자녀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대학생 자녀는 1명인 경우가 7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4-17〉 8차년도 자녀의 사교육 비용 및 부담 정도

(단위 : 가구, %, 만원)

		고등학생 이하 자녀	대학생 이상 자녀
(사)교육비 부담정도	매우 부담된다.	24.5	53.7
	약간 부담된다.	43.4	28.5
	보통이다.	22.3	12.3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6.4	3.2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2.0	0.6
	모르겠다.	1.5	1.7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 (만원)		40.5	502.7
자녀당 평균 (사)교육비 (만원)		25.0	409.9

다음으로 <표 4-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학생 이하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용은 40만 5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고등학생 이하 자녀당 평균 사교육비용은 25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교육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67.9%에 달해, 사교육을 이용하는 가정의 2/3 이상이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평균 502만 7천원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당 평균 409만 9천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교육비 부담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경우보다도 많은 82.2%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에는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중도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가구는 정규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4-18〉 8차년도 고등학교 이하 자녀의 사교육 이용 종류

	(단위:%)
동거하고 있는 가족과 친지	0.4
비동거하고 있는 가족과 친지	1.2
동거하고 있는 타인(아이보는 아줌마, 파출부 등)	0.2
비동거하고 있는 타인(아이보는 아줌마, 파출부 등)	0.2
학원	55.8
개인·그룹과의	6.0
학습지	17.5
방과후 교내보충학습	2.5
방과후 교실	2.2
국공립 어린이집	2.8
민간 어린이집	3.5
사설놀이방	0.6
직장보육시설	-
정규유치원(4시간)	3.2
시간연장제 유치원(6시간)	0.9
종일제 유치원(8시간)	0.6
어학연수	-
인터넷 유료강좌	0.8
문화센터	0.7
기타	0.8
전 체	100.0

주 : 사교육 이용 종류의 경우 복수응답하는 항목으로 응답항목 각각을 별개로 보고 비중을 구하였음.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이하 자녀들이 이용하는 사교육기관에 대해서 살펴보면, 학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55.8%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학습지가 17.5%를 차지해 비교적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표 4-18 참조). 다만, 사교육 이용 종류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다섯 가지까지 복수응답하도록 하였으므로, 학원을 이용하는 자녀들의 경우가 외에도 다른 교육서비스를 더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제 5 장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는 1차년도(1998년)부터 매년 잠재적 생산가능인구인 만 15세 이상의 모든 개인에 대해서 경제활동참가 여부, 고용형태, 구직활동 등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조사항목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2005년도 제8차 KLIPS에 나타난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와 1~8차년도까지 8개년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의 분석 결과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루어졌으며 연도간 비교 분석시에는 종단면 가중치를, 8차년도만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에 사용된 각 연도별 분석 자료의 사례수는 <표 5-1>에 제시되어 있다.

<표 5-1> 연도별 분석 자료의 사례 수 : 1~8차년도

(단위: 명)

		전 체	개인자료	신규자료
1차년도		13,321	13,321	-
2차년도		11,709	11,236	473
3차년도		10,798	10,495	303
4차년도		10,499	10,268	231
5차년도		10,295	10,072	223
6차년도		10,657	10,381	276
7차년도		10,692	10,450	242
8차년도	종단분석	10,521	10,313	208
	횡단분석	11,570	11,189	381

주 : 1~7차년도 시계열 가중치 0 초과한 값을 부여받은 사례수. 8차년도 종단분석도 동일하게 계산. 8차년도 횡단분석 사례수는 횡단면 가중치 0 초과한 값을 부여받은 사례수.

제1절에서는 개인응답자들을 경제활동참가 여부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여 인구학적 특성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제2절에서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직업별, 인구학적 분포를, 제3절에서는 미취업자들의 구직의사, 구직활동 여부, 구직방법,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 1 절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1. 경제활동상태

KLIPS의 경제활동상태 구분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상태 구분과는 다소 다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상태는 15세 이상으로 조사대상 기간²⁴⁾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실제 수입이 있는 노동을 제공했으면 취업자로, 그 기간에 그런 노동을 위한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하며, 이들을 묶어 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한다. 반면 KLIPS는 조사일에 노동을 제공하고 있었으면 취업자로 보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취업자로 구분한다. 이렇게 구분된 미취업자 중 지난 1주(또는 4주)간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한다. 이로 인해 조사일 이전 주에는 구직활동을 했지만 조사일이 있는 주에는 일자리를 구해 조사 당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은 통계청 조사에서는 실업자로 분류되지만 KLIPS에서는 취업자로 분류된다. 조사대상 기간만 고려하면 되는 횡단면조사와 달리, 종단적으로 바뀌는 모든 일자리 변동 상황을 기록해야 하는 KLIPS의 특성상 미취업자와 구분되는 의미로서 취업자를 정의할 때 현재 일하고 있는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류법을 적용하고 있다.

<표 5-2>는 조사 연도별로 경제활동상태의 변화를 요약하고 있다. 먼

24) 조사일 바로 전 주가 조사대상 기간이다.

저 취업자는 조사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조금이라도 일을 한 사람(취업자)”, 혹은 “가족 또는 친지를 위해 1주일에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한 사람(무급가족종사자)”이 포함된다.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의 비중은 5차년도(2002년)를 정점으로 다소 하락하고 있다. 1차년도 조사 당시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48.3%로 나타난 취업자 비중은 5차년도에 53.9%까지 증가하였다가 하락하여 8차년도의 경우 53.0%로 조사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실업자²⁵⁾의 비중은 5차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상승해 8차년도 현재 2.8%를 기록하였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는 7차년도보다 8차년도 소폭 상승해 44.2%를 기록했다.

〈표 5-2〉 경제활동상태비교 : 1~8차년도

(단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1차년도	48.3 (48.3)	7.6 (9.4)	44.1 (42.3)
2차년도	51.8 (51.8)	3.8 (4.5)	44.5 (43.7)
3차년도	51.3 (51.3)	2.4 (2.9)	46.3 (45.8)
4차년도	52.4 (52.4)	2.1 (2.6)	45.5 (45.0)
5차년도	53.9 (53.9)	2.0 (2.3)	44.1 (43.8)
6차년도	53.6 (53.6)	2.5 (2.8)	44.0 (43.6)
7차년도	53.4 (53.4)	2.8 (3.2)	43.8 (43.4)
8차년도	53.0 (53.0)	2.8 (3.4)	44.2 (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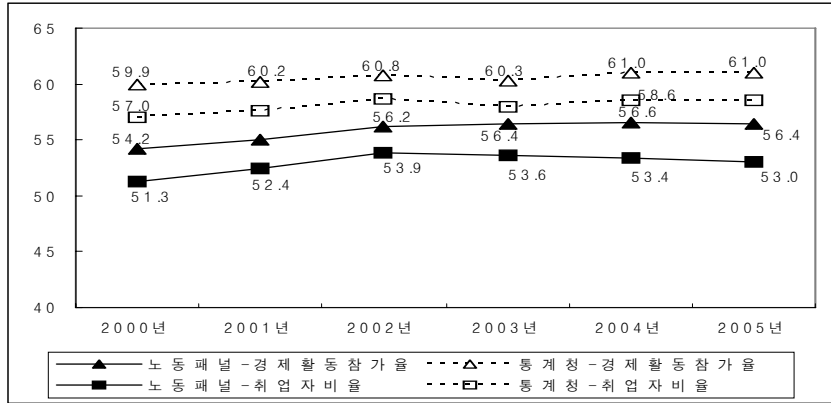
주 : ILO 기준 실업자 정의. () 안은 OECD 기준 실업자 정의.

[그림 5-1]과 [그림 5-2]는 지난 6년간의 경제활동참가율(취업인구비율)과 실업률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활조사)와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경활조사와 비교해 볼 때 경제활동 참가율 및 취업인

25) 현재 공식통계에서 사용되는 실업자의 정의는 크게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시한 기준과 OECD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ILO 기준은 “지난 1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지난 주 취업가능했던 자”로 규정한 데 반해, OECD 기준은 “지난 1개월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지난 주 취업가능했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통계에서 전자를 실업자의 정의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후자도 제시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에서는 두 지표 모두 이용가능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ILO 기준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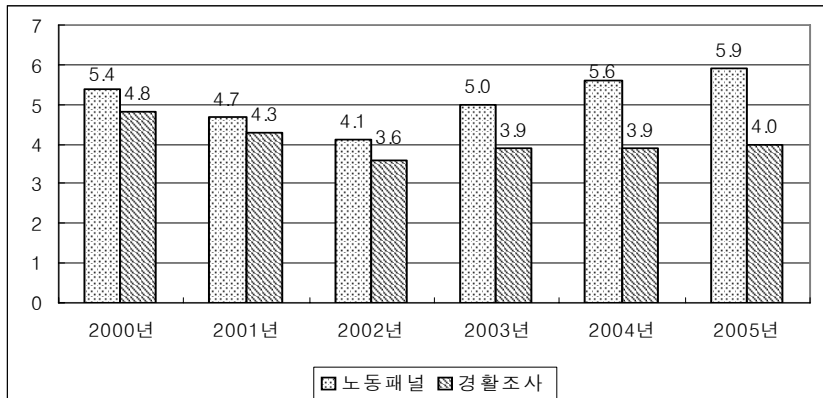
구비율은 약 3~4%p 정도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반대로 실업률은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1] 최근 6년간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인구비율 비교 : 2000~05년 (단위:%)



주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농가부문임.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00.
 취업인구비율 = 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실업자를 OECD 정의에 근거해 산출했을 경우 계산되는 경제활동인구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각차년도를 년으로 표시하였음.

[그림 5-2] 최근 6년간 실업률 비교 : 2000~05년 (단위:%)



주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농가부문임.
 · 실업률=실업자(OECD 정의)/경제활동인구×100.
 ·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각차년도를 년으로 표시하였음.

두 자료는 가구조사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 각각의 조사 특성을 반영하여 경제활동상태 분류 기준이 다소 상이하고, 조사대상 기간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치의 차이가 크지 않고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볼 때 20%가 약간 넘는 탈락률에도 불구하고 KLIPS가 비농가 부문의 경제활동을 여전히 대표성 있게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실업률의 경우는 최근 3년간 격차가 생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표 5-3>은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취학연령인 15~24세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은퇴자들이 많은 65세 이상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정점에 도달하는 연령은 어느 해나 40~44세였으며, 55세 구간부터는 급격히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는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6차년도와 비교해 30~34세, 35~39세를 제외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7차년도에 떨어졌다.

<표 5-3>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 1~8차년도

(단위:%)

	15~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 64세	65세 이상
1차년도	17.6	52.4	61.2	67.2	69.5	66.6	60.8	52.8	40.3	18.3
2차년도	21.0	55.9	64.9	72.3	72.9	72.6	66.9	56.0	41.5	19.9
3차년도	21.0	55.9	63.1	71.9	73.4	71.3	66.8	53.3	42.9	19.5
4차년도	22.5	57.7	64.1	71.3	75.3	73.2	67.5	56.0	41.9	20.2
5차년도	22.9	59.3	65.1	73.6	76.3	75.2	71.3	60.2	44.8	19.7
6차년도	22.9	61.7	64.0	71.6	76.6	74.4	68.4	59.3	44.2	20.1
7차년도	21.5	63.6	64.0	71.0	76.1	73.8	70.4	58.7	43.9	20.0
8차년도	19.6	60.7	65.6	71.7	76.1	72.7	68.4	58.0	42.4	20.0

연령별 실업률을 보면 노동시장 진입연령대인 청년층 실업률이 높았다. 15~24세의 실업률이 가장 높은 14.9%를 기록했고, 65세 이상이 2.9%로 가장 낮았다.

<표 5-5>는 경제활동상태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다. 표의 왼쪽은 7차년도에서의 경제활동상태가 8차년도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며,

〈표 5-4〉 연령별 실업률 : 1~8차년도

(단위 : %)

	15~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 64세	65세 이상
1차년도	40.1	18.8	12.8	11.1	12.0	12.2	15.0	14.8	15.1	15.0
2차년도	22.4	9.7	7.0	4.4	5.6	5.5	5.4	7.9	8.2	7.9
3차년도	12.4	8.5	6.6	3.7	4.2	2.9	2.9	4.1	4.8	2.1
4차년도	13.0	7.7	5.0	3.5	2.6	2.0	3.0	5.0	2.4	3.5
5차년도	13.0	7.4	4.4	2.5	2.5	2.1	1.9	2.3	3.5	0.3
6차년도	14.1	8.9	5.6	3.8	3.0	3.6	2.2	2.4	1.3	1.4
7차년도	14.4	10.3	8.3	2.6	3.6	3.2	2.5	1.8	4.4	3.1
8차년도	14.9	8.9	8.6	4.1	3.6	3.9	4.3	3.3	4.4	2.9

오른쪽은 6차년도에서의 경제활동상태가 8차년도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7차 조사에서 취업자였던 사람은 90.1%가 8차 조사에서도 취업자로 남아 있었으며, 2.6%는 실업자로 이동했고, 7.3%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했다. 7차 조사에서 실업자였던 사람 중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3.4%가 8차 조사에서 취업자가 되었으며, 약 1/5 가량인 21.1%는 여전히 실업자로 남아 있었다.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한 사람들까지 감안하면 7차 조사에서 실업자였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8차 조사에서도 여전히 미취업자로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⁶⁾

2년이 경과한 상태를 보면, 6차 조사에서의 상태를 8차 조사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1년 경과시보다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6차 조사에서 실업자였던 사람들의 8차 조사에서의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절반이 넘는 53.4%의 사람들이 실업상태를 탈출해 취업자가 되었으며, 20.9%는 여전히 실업상태에 있었고, 25.7%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였다.

경제활동상태 이동을 성별로 나누어서 보면(표 5-6 참조), 남성의 경우 7차 조사에서 취업자였던 사람 중 8차 조사에서도 취업자로 남은 사람은 92.3%, 실업자로 이동한 사람은 2.9%,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한 사람

26) 미취업자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장기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그만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1년이 경과하는 시간 동안 일자리를 갖고 있었으나 다시 미취업자가 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표 5-5〉 경제활동상태의 이동

(단위:%)

	7차 → 8차				6차 → 8차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동인구	전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동인구	전체
취업자	90.1	2.6	7.3	100.0	86.4	2.7	10.9	100.0
	88.7	41.5	9.2	-	84.1	42.8	14.4	-
	48.1	1.4	3.9	53.3	46.6	1.5	5.9	54.0
실업자	43.4	21.1	35.5	100.0	53.4	20.9	25.7	100.0
	2.6	21.0	2.7	-	2.7	17.6	1.8	-
	1.4	0.7	1.2	3.3	1.5	0.6	0.7	2.9
비경제 활동 인구	10.9	2.8	86.2	100.0	16.9	3.1	80.0	100.0
	8.7	37.5	88.1	-	13.2	39.6	83.9	-
	4.7	1.2	37.4	43.4	7.3	1.3	34.5	43.2
계	-	-	-	-	-	-	-	-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
	54.2	3.3	42.5	100.0	55.4	3.4	41.2	100.0

주 : 8차 가중치 적용.

은 4.8%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7차 조사에서 취업자였던 사람 중 86.7%가 취업자로 남아 있었고, 실업자로 이동한 사람은 2.0%,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한 사람은 11.3%로, 남성에 비해 취업자로 남아 있는 사람의 비중은 낮은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한 사람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차 조사에서 실업자였던 사람은 8차 조사에서 남성의 경우 44.9%가 취업자가 된 반면, 여성의 경우는 이보다 낮은 41.3%가 취업자가 되었다. 여전히 실업자인 사람은 남성은 28.1%, 여성은 11.2%로 남성이 높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사람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20%p 가량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실업→실업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여성의 경우에 비해 더 높아 실업으로부터의 탈출률은 남성이 더 낮다. 이로 인해 실업으로부터의 탈출과 진입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탈출률의 역수로 계산되는 평균실업기간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길게 나타나겠지만,27) 그 이면

27) 1년이라는 기간차가 존재하므로 중간의 실업->취업->실업 같은 이동은 잡아내지 못하므로, 이 역수를 곧바로 평균실업기간이라고 보는 것은 물론 과도한 측면이 있다.

〈표 5-6〉 7차년도 → 8차년도 성별 경제활동상태 이행

(단위: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전체
남성	취업자	92.3	2.9	4.8	100.0
	실업자	44.9	28.1	27.0	100.0
	비경제활동인구	12.9	3.5	83.6	100.0
여성	취업자	86.7	2.0	11.3	100.0
	실업자	41.3	11.2	47.4	100.0
	비경제활동인구	9.7	2.5	87.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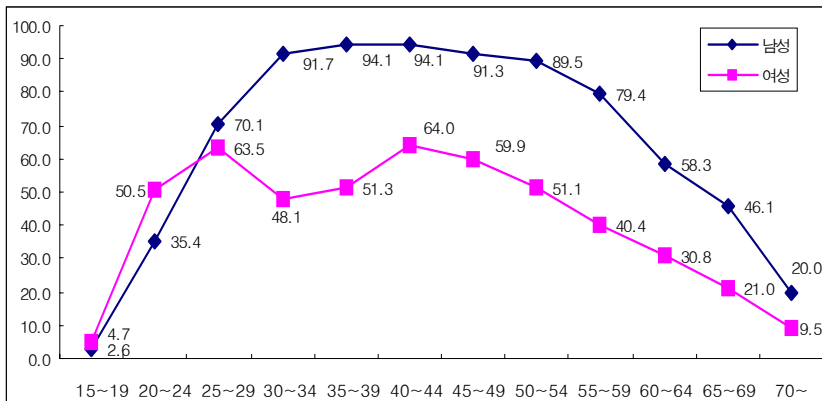
주: 7차 가중치 적용.

에는 여성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로의 탈출이 높다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5-3]은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30~34세, 35~39세 연령 집단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는 M커브가 뚜렷이 나타나는 가운데, 25~29세, 40~44세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정점에 이르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남성도 40~44세가 정점이지만, 50~54세까지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이 이어지는 반면, 여성은 50~54세부터 완연한 하락세를 보여 남성보다 더 빠른 은퇴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3]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 8차년도

(단위: %)



제 2 절 취업자의 특성

1. 산업·직업·인구학적 특성별 취업자의 분포

<표 5-7>과 <표 5-8>은 산업별로 노동패널조사와 경활조사의 취업자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노동패널조사에서도 경활조사와 마찬가지로 1,2차 산업 비중의 감소와 더불어 3차 서비스산업 비중의 증가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KLIPS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 1998~2005년

(단위:%)

	1차 산업 (농림어업)	2차 산업 (광공업)	3차 산업 (사회 간접자본 및서비스업)
1998년	8.3	22.9	68.8
1999년	8.7	22.5	68.8
2000년	8.4	22.6	69.0
2001년	7.7	21.2	71.1
2002년	6.5	21.2	72.3
2003년	6.3	20.8	72.9
2004년	5.7	19.9	74.4
2005년	5.5	20.5	74.0

주 : · 2002년에 개정된 제7차 표준산업분류 기준.

· 1차산업 : 농업 및 임업, 어업을 포함.

· 2차산업 : 광업 및 제조업.

· 3차산업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서비스업, 그리고 가사 서비스업을 포함.

·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각차년도를 년으로 표기.

우선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KLIPS의 경우 조사설계 당시 농촌지역을 제외한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1차년도 당시 이 부문 종사자의 비중이 경활조사보다 약 4%p 정도 낮았지만, 이후 조사차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격차가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5-8〉 경활조사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 1998~2005년

(단위 : %)

	1차 산업 (농림어업)	2차 산업 (광공업)	3차 산업 (사회 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1998년	12.0	19.7	68.2
1999년	11.3	19.9	68.7
2000년	10.6	20.4	69.0
2001년	10.0	19.9	70.2
2002년	9.3	19.2	71.5
2003년	8.8	19.1	72.1
2004년	8.1	19.1	72.8
2005년	7.9	18.6	73.5

주 : 제7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준함.

하고, 경활조사와 마찬가지로 지난 6년간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중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⁸⁾

〈표 5-9〉는 KLIPS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직업별 종사의 분포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전문관리직 및 사무직의 증가 대 서비스 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의 감소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전문관리직은 1998년 당시 21.5%를 차지하였으나, 이 비중이 회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2005년에는 27.6%로 나타났다. 사무직의 경우에는 이보다 약간 낮은 폭으로 증가했는데, 1999년 10.7%에서 2005년에는 14.0%까지 증가하였다. 반대로 서비스판매직은 1998년 24.8%에서 감소추세를 보여 2005년에는 20.4%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감소세는 농림어업직(1998년 8.8% → 2005년 5.4%)과 생산직(1999년 35.6% → 2005년 32.7%)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직업별 분포를 〈표 5-10〉에 제시된 경활조사의 직업별 종사자 비중과 비교해 살펴보면 두 조사 간에 적게는 0.3%p(사무직)에서 많게는 약

28) 이러한 결과들을 놓고 볼 때 취업자의 산업별 종사자 구성 측면에서 KLIPS는 매우 높은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농림어업과 광공업 종사자의 비중이 경활조사와 많게는 3~4%p의 격차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표집대상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두 조사 간에는 거의 동일한 산업별 구성을 보여주었다.

〈표 5-9〉 노동패널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 1998~2005년

(단위:%)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1998년	21.5	11.2	24.8	8.8	33.7
1999년	20.7	10.7	24.5	8.5	35.6
2000년	21.5	10.9	23.5	8.3	35.9
2001년	21.9	12.2	23.8	7.5	34.6
2002년	23.2	12.4	23.4	6.4	34.6
2003년	24.9	12.8	22.2	6.2	33.9
2004년	26.0	13.7	21.2	5.7	33.4
2005년	27.6	14.0	20.4	5.4	32.7

- 주 : 1) 전문관리직에는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등을 포함. 서비스판매직에는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농림어업직에는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등을 포함. 생산직에는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근로자 등을 포함.
- 2) 통계청의 직업분류의 변경을 반영하여 1998~2005년까지의 모든 수치를 2002년에 개정된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로 조정함.

〈표 5-10〉 경찰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 1998~2005년

(단위:%)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1998년	18.8	12.4	23.6	11.5	33.7
1999년	19.1	11.3	23.7	10.7	35.1
2000년	18.9	11.6	23.8	10.0	35.7
2001년	20.9	12.1	25.6	9.2	32.2
2002년	21.3	12.4	25.5	8.6	32.2
2003년	20.1	14.3	25.2	8.3	32.2
2004년	20.5	14.1	25.0	7.5	32.8
2005년	20.9	14.3	24.7	7.5	32.7

- 주 : 직업분류의 변경에 따라서 1998~2000년까지는 제4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2001년부터는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준함. 단, 연도별 비교를 위해 제4차 표준직업분류상의 대분류 중에서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제시함.

4.3%p(서비스판매직) 정도의 격차가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 추이 면에서는 두 조사 간에 약간 상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전문관리직의 경우 경찰조사에서는 뚜렷한 증가추세가 관찰되지 않으나 KLIPS에서는 전문관리직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상대적인 구성면에서는 KLIPS의 경우 전문직 종사자가 생산직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경찰조사의 경우 전문관리직보다 서비스판매직의 비중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8차년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취업자의 산업·직업 및 인구학적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자. 먼저 산업 및 직업별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표 5-11>과 같다.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종사자 구성은 3차 산업 종사자가 7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2차산업 종사자는 24.6%로 나타났다. 1차 산업 종사자는 그 비중이 매우 미미했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도 3차 산업 종사자가 71.6%로 가장 높은 반면, 임금근로자와 달리 1차 산업 종사자가 2차 산업 종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경우 생산직의 비중이 38.7%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어서 전문관리직 28.6%, 사무직이 17.9%, 서비스·판매직이 14.1%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서비스 판매직이 35.2%를 차지한 반면, 사무직은 3.4%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취업자의 직업 및 산업별 분포는 고용형태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2>는 취업자의 산업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기타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

<표 5-11> 산업 및 직업별 취업자 분포

(단위:%)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산업	1차 산업	0.7	16.4
	2차 산업	24.6	11.9
	3차 산업	74.7	71.6
	전 체	100.0	100.0
직업	전 문 관 리 직	28.6	21.2
	사 무 직	17.9	3.4
	서 비 스 판 매 직	14.1	35.2
	농 립 어 업 직	0.6	16.2
	생 산 직	38.7	23.9
	전 체	100.0	100.0

〈표 5-12〉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산업 분포 : 8차년도

(단위:%)

		농림 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 · 음식 숙박	금융 부동산	공공 행정	기타 서비스	전체
성별	남 성	5.5	22.5	13.4	17.4	3.3	3.8	34.1	100.0
	여 성	6.6	17.2	1.4	31.4	4.7	2.2	36.5	100.0
연령	15 ~ 29세	0.1	20.5	4.3	21.5	4.2	2.3	47.0	100.0
	30 ~ 39세	1.2	22.8	8.5	23.3	5.5	3.3	35.4	100.0
	40 ~ 49세	3.5	24.1	9.1	25.3	3.6	3.2	31.2	100.0
	50 ~ 59세	9.4	17.5	11.6	22.7	2.4	3.9	32.5	100.0
	60세 이상	32.7	6.5	9.1	18.3	2.3	2.4	28.8	100.0
교육 수준	고졸 미만	18.0	19.1	11.1	25.3	0.7	1.4	24.3	100.0
	고 졸	3.4	25.5	9.9	27.1	3.2	2.6	28.2	100.0
	대재중퇴	1.9	11.9	6.9	21.3	6.1	4.9	47.0	100.0
	전문대졸	1.2	19.9	6.8	24.0	6.7	3.1	38.3	100.0
	대졸 이상	0.6	15.4	5.2	14.8	6.4	5.6	52.1	100.0

주 : 기타서비스업은 3차 산업 중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업,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행정을 제외한 나머지.

이 가장 높았으나, 그 비중은 여성(36.5%)이 남성(34.1%)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남성은 광공업(22.5%)에, 여성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31.4%)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농림어업에는 60대 이상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에는 50대 이하의 모든 연령층에서 20% 이상의 고른 분포를 보였다. 광공업은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세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았을 때, 농림어업 및 건설업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에, 금융 및 부동산업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대졸 이상은 기타 서비스업에, 고졸 미만은 도소매·음식숙박업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고, 농림어업에도 다른 교육수준에 비해 많이 위치해 있었다.

<표 5-13>은 취업자의 직업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분포에서는 서비스판매직에서는 여성(31.2%)이 남성(14.5%)보

〈표 5-13〉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별 분포 : 8차년도

(단위 : %)

		전문관리	사무직	서비스판매	농림어업	생산직	전체
성별	남 성	27.4	10.5	14.5	5.5	42.1	100.0
	여 성	24.2	16.9	31.2	6.5	21.3	100.0
연령	15 ~ 29세	35.5	27.0	17.8	0.2	19.6	100.0
	30 ~ 39세	36.8	16.9	18.1	1.2	27.0	100.0
	40 ~ 49세	21.2	9.8	25.6	3.3	40.1	100.0
	50 ~ 59세	18.7	5.6	23.2	9.0	43.5	100.0
	60세 이상	8.2	1.6	18.0	32.4	39.8	100.0
교육 수준	고졸 미만	3.5	1.9	25.1	17.9	51.6	100.0
	고 졸	14.1	11.6	26.4	3.2	44.7	100.0
	대재 중퇴	34.7	22.1	19.0	1.9	22.3	100.0
	전문대 졸	33.8	26.3	20.4	1.0	18.4	100.0
	대졸 이상	61.3	18.7	10.5	0.6	8.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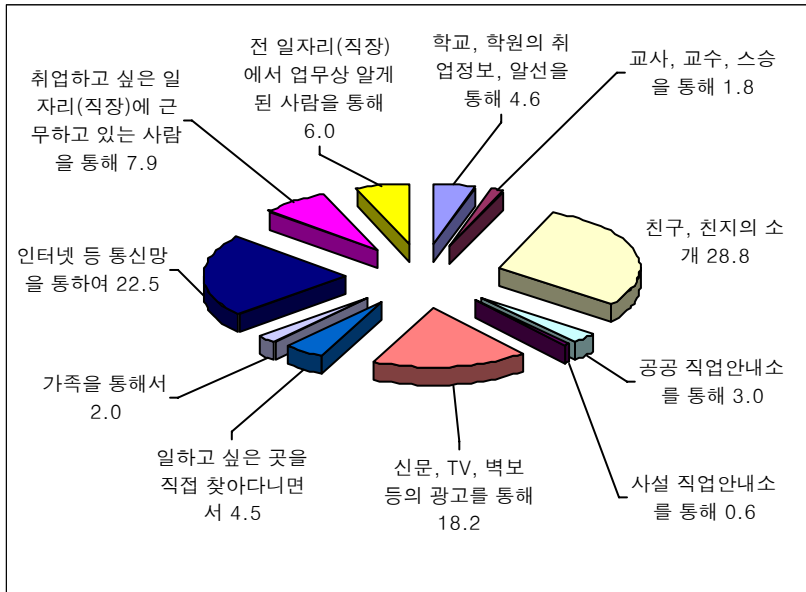
다 약 2배 가량 더 많이 종사하고 있는 데 비해서, 생산직의 경우에는 남성(42.1%)이 여성(21.3%)보다 약 2배 가까이 더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청년층에서 전문관리직 종사자가 35.5%, 사무직이 27.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40대, 50대,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약 40% 전후가 생산직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층은 앞서 산업별 비중과 유사하게 농림어업직(32.4%)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전문관리직의 비중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고졸 미만의 경우 전문관리직 종사자가 겨우 3.5%에 불과하지만, 대졸 이상의 경우 이러한 비중이 61.3%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생산직의 분포는 고졸 미만의 경우 51.6%를 넘는 데 비해 대졸 이상의 경우에는 10% 미만을 차지하였다.

제 3 절 미취업자

1. 구직활동

구직방법은 구직자들이 직업탐색과정에서 어떠한 수단을 이용하는지와 연관된다. 8차년도 KLIPS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 최대 3개까지 사용한 구직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여기서는 이들 구직방법 중 가장 주된 구직방법을 중심으로 미취업자의 구직행위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그림 5-4] 미취업자의 구직방법 : 8차년도



[그림 5-4]는 미취업자의 가장 주된 구직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친구, 친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28.8%를 차지했으며, 인터넷 등 통신

망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 22.5%로 나타났다. 신문 및 TV, 벽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18.2%,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가 7.9% 등이었다. 공공 직업안내소를 이용하는 비중은 3.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제 좀더 분석적으로 미취업자들이 구직을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연결망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구분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여기는 공식적 구직방법, 비공식적 구직방법, 직접접촉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²⁹⁾ 공식적 채널에 의한 구직방법으로는 학교·학원·스승의 소개, 공·사설 직업안내소, 신문, TV와 같은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이용 등이 해당된다. 비공식적 채널에 의한 구직방법으로는 ‘가족, 친구, 친지의 소개’,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 ‘전 일자리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직접접촉’이라 함은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원하는 경우이다.

<표 5-14>는 이러한 구분법에 따라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로 구직방법의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는 비공식적 방법의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은 공식적 방법의 비중이 높았다.

연령별 구직방법의 비중을 살펴보면, 30대와 30대 미만 젊은 층의 경우 공식적 방법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40대 이상은 비공식적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40대 정도 되면 비공식적 방법이라는 축적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식적 방법의 의존이 줄고 비공식적 방법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이상은 공식적 방법의 이용비중이 높은 반면, 고졸 미만은 비공식적 방법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고졸 미만에 고연령층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차이를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 이 외에도 연결망의 종류에 따라 사적 연결망을 이용한 방법, 제도적 연결망을 이용한 방법, 직접지원으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KLIPS 5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의 제6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5-14〉 특성별 구직방법 : 8차년도

(단위 : %)

		공식적 방법	비공식적 방법	직접 접촉	전체
성별	남 성	42.2	53.1	4.7	100.0
	여 성	63.7	32.0	4.3	100.0
연령별	15~29세	69.3	26.2	4.5	100.0
	30~39세	54.0	41.5	4.5	100.0
	40~49세	29.2	63.4	7.4	100.0
	50~59세	37.1	62.9	-	100.0
	60세 이상	19.7	75.6	4.7	100.0
학력별	고졸 미만	31.1	65.1	3.8	100.0
	고 졸	47.8	45.7	6.5	100.0
	대 재 중 퇴	69.9	19.9	10.2	100.0
	전문대졸	66.4	31.6	1.9	100.0
	대졸 이상	54.8	43.1	2.1	100.0

2. 희망 일자리의 특성

미취업자가 구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희망하는 일자리의 고용형태와 근로시간 형태, 희망임금,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자주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였다. 먼저 미취업자가 희망하는 고용형태별 비중을 살펴보면 <표 5-15>와 같다. 지난 6년간 미취업 구직자가 희망하는 고용형태는 임금근로자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추세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비중이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와 3차년도에 약 10%p 정도 낮게 추정되고 있으나 4차년도부터는 88%를 넘어서 8차년도에는 91.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희망하는 고용형태가 ‘임금근로자’일 경우,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를 질문하였다. <표 5-16>을 통해 미취업 구직자가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의 추이를 살펴보면 1차년도를 제외하고 80% 이상이 전일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의 경우 미취업 구직자의 30% 가량이 시간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의 경제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되며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미취업
 구직자의 1/3 가량은 전일제 일자리 취업을 고집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표 5-15> 연도별 미취업 구직자 희망하는 고용형태 : 1~8차년도

(단위 : %)

	임금근로자	고용주/자영업자
1차년도	88.8	11.2
2차년도	79.2	20.6
3차년도	81.7	18.3
4차년도	88.2	11.1
5차년도	88.5	11.5
6차년도	89.5	10.5
7차년도	90.4	9.6
8차년도	91.1	8.9

주 : 희망하는 고용형태 중에서 가족종사자는 제외함. 1999년 0.2%를 제외하고 가족종
 사자를 희망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음.

<표 5-16> 연도별 미취업 구직자가 희망하는 근로시간형태 : 1~8차년도

(단위 : %)

	전일제	시간제
1차년도	69.7	30.3
2차년도	83.8	16.2
3차년도	84.8	15.2
4차년도	83.7	16.3
5차년도	84.3	15.7
6차년도	85.9	14.1
7차년도	89.9	10.1
8차년도	92.5	7.5

<표 5-17>은 인구학적 특성별로 미취업 구직자의 희망 고용형태를 보
 여주고 있다. 먼저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비
 중이 약 6%p 정도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임금근로자
 희망이 가장 높았고, 40대의 임금근로자 희망이 82.2%로 가장 낮았다. 교
 육수준별로는 고졸 미만, 대졸 이상 인구의 임금근로자 희망 비중이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17〉 인구학적 특성별 미취업 구직자의 희망 고용형태 : 8차년도

(단위:%)

		임금근로자	고용주 및 자영업자	전 체
성 별	남 성	88.7	11.3	100.0
	여 성	94.8	5.2	100.0
연령별	15~29세	95.9	4.1	100.0
	30~39세	91.8	8.2	100.0
	40~49세	82.2	17.8	100.0
	50~59세	84.2	15.8	100.0
	60세 이상	100.0	-	100.0
학력별	고졸 미만	100.0	-	100.0
	고 졸	87.2	12.8	100.0
	대 재 중 퇴	100.0	-	100.0
	전문대졸	93.4	6.6	100.0
	대졸 이상	86.9	13.1	100.0

〈표 5-18〉은 인구학적 특성별로 미취업 구직자가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우 가사나 아동문제 등이 비구직 이유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을 돌보는 문제가 노동시장 진입뿐만 아니라 근로시간형태에 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시간제 선호 비중이 2.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재학생이 분포하고 있는 대재 및 중퇴의 경우 18.0%가 시간제 근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과 일의 문제가 근로시간형태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고, 대졸 이상이 가장 낮은 0.8%였다.

한편, 희망하는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근로시간형태 및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그림 5-5]에서 볼 수 있듯이, 전일제를 선호하는 남성은 168만원으로 가장 높은 임금을 희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간제를 선호하는 남성이 113만원을 희망하였다. 전일제를 선호하는 여성은 112만원을 희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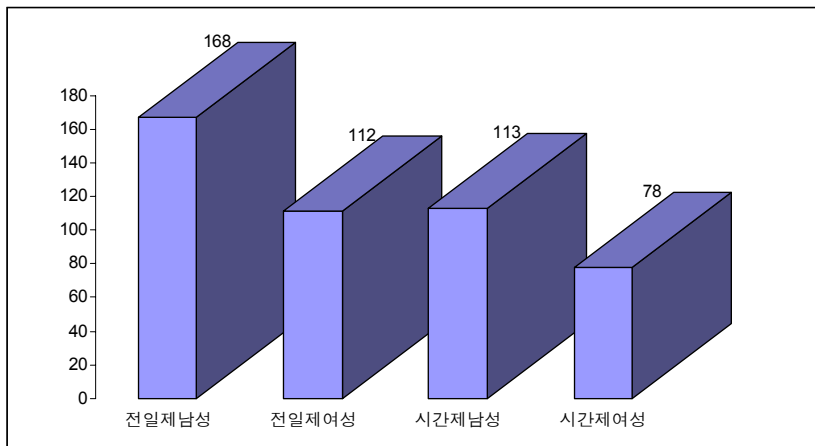
<표 5-18> 미취업자가 희망하는 근로시간형태

(단위: %)

		전일제	시간제	전 체
성 별	남 성	97.9	2.1	100.0
	여 성	82.7	17.3	100.0
연령별	15~29세	96.1	3.9	100.0
	30~39세	84.9	15.1	100.0
	40~49세	88.2	11.8	100.0
	50~59세	97.1	2.9	100.0
	60세 이상	95.3	4.7	100.0
학력별	고졸 미만	91.5	8.5	100.0
	고 졸	89.6	10.4	100.0
	대 재 중 퇴	82.0	18.0	100.0
	전 문 대 졸	91.8	8.2	100.0
	대 졸 이상	99.2	0.8	100.0

[그림 5-5] 성별·근로시간형태별 평균 희망임금

(단위: 만원)



마지막으로, 미취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자주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5-19>에는 이와 관련된 9가지 항목의 내용과 각각의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점수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평균점수는 '(1) 매우 그렇다'부터 '(5)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의 5점 척도로

부터 산출되었으므로, 점수가 낮을수록 해당 항목에 대한 동의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일거리가 없거나 부족하다’라는 항목에 대해 평균 2.0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일자리의 수입’(2.4점)이나 ‘취업 또는 창업정보의 부족’(2.6점)을 각각 지적하였다. 그러나 연령이나 성별과 같은 차별요인에 대해서는 구직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의 경우 성차별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보다는 일자리 자체의 부족, 일자리의 수입이나 근무조건, 혹은 취업 또는 창업 등의 정보부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9〉 미취업자가 구직시 주로 겪는 어려움

(단위: 점)

	전체	남성	여성
1. 일거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2.0	2.0	2.0
2. 취업 또는 창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른다.	2.6	2.6	2.6
3. 학력, 기능, 자격이 맞지 않는다.	3.2	3.2	3.0
4. 경험이 부족하다.	3.1	3.2	3.0
5. 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다.	2.4	2.4	2.3
6. 근무환경이나 근로시간이 맞지 않다.	2.8	3.0	2.6
7. 나이가 너무 많다.	3.0	3.1	2.9
8.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2.7	2.7	2.8
9.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3.8	-	3.3

주 : 최소 1점부터 최대 5점까지의 평균점수임. 설문지상의 응답항목 구성은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런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점수가 작을수록 문항에 동의한다는 뜻임.

제 6 장

임금근로자의 특성

본 장에서는 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임금근로자와 관련된 주요 설문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취업시작 시기 및 종료 시기, 산업·직업, 기업의 형태 및 규모, 고용형태와 근로계약 유무 및 기간, 근로시간형태,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및 임금, 사회보험 가입 여부 및 수급 현황, 노동조합 관련 사항 등이 조사되고 있다.

<표 6-1>에서는 1~8차년도 조사기간 동안 본 조사에서 파악되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수가 제시되어 있다. 8차년도에는 전체 4,085명의 임금근로자가 조사되었다. 취업자 대비로 볼 때 1차년도 62.4%에서 꾸준히 늘어 7차년도에는 취업자의 68.2%가 임금근로자였으나, 8차년도에는 다소 감소하여 65.8%에 그쳤다. 이는 2005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임금근로자 비중(66.3%)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제 1 절 임금근로자의 특성

본 절에서는 8차년도(2005년)에 조사된 임금근로자 전체의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절의 모든 분포는 임금근로자 표본 4,085명을 대상으로 횡단면 가중치(w8_pc)를 부여해 계산한 것이다.

〈표 6-1〉 각 연도별 임금근로자의 수와 비중 : 1998~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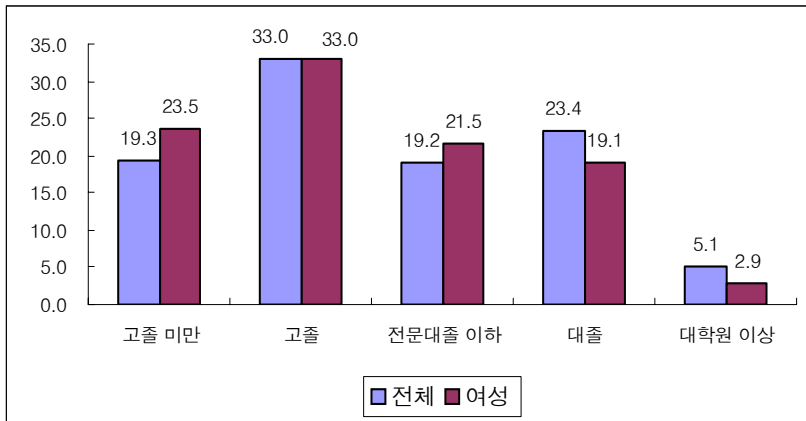
	임금근로자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
	표본수(명)	남성(%)	여성(%)	
1차년도	4,012	62.9	37.1	62.4
2차년도	3,959	59.9	40.1	63.7
3차년도	3,727	60.7	39.3	64.4
4차년도	3,822	59.9	40.1	66.1
5차년도	3,975	59.6	40.5	67.1
6차년도	4,211	59.3	40.7	68.1
7차년도	4,257	59.5	40.5	68.2
8차년도	4,085	60.1	39.9	65.8

주 : 1) '표본수'를 제외하고는 시계열 가중치 적용.

2) 1차년도는 'p01573' 기준으로 계산. 나머지는 개인 데이터의 'jobclass'와 신규 데이터의 '문3. 주된 일자리'를 합쳐서 계산.

〔그림 6-1〕 임금근로자의 학력 분포

(단위 : %)



먼저, 학력별 분포를 보면(그림 6-1 참조), 고졸자의 비중이 33.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대졸자로 23.4%였다. 여성의 경우는 고졸 미만에서 전체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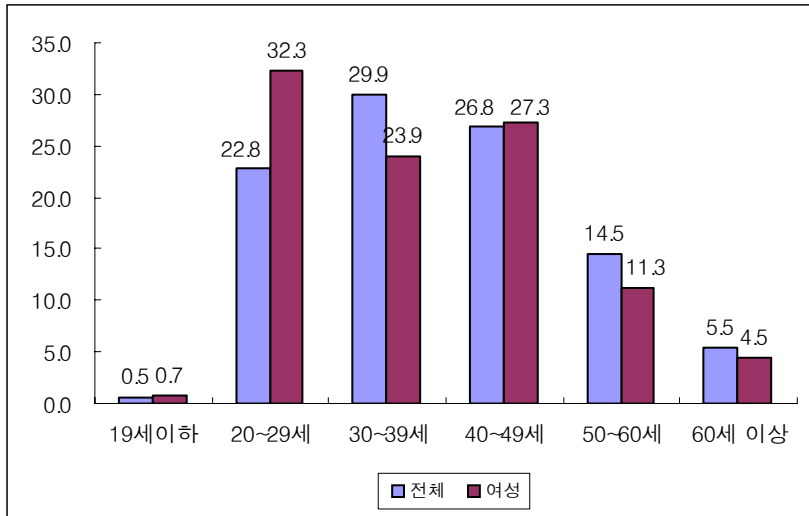
연령별 분포를 보면(그림 6-2 참조), 30대가 29.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40대가 26.8%를 기록했다. 여성의 경우는 20대에서 특히 높은 비중을 나타냈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진출 시기가

빠름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30대 여성의 경우 출산, 육아 등 일시적으로 노동공급이 중단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분포를 보면(표 6-1 참조), 공공서비스업이 3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광공업(24.6%)이 다음을 차지했다. 반면 가사서비스업은 1.4%로 매우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³⁰⁾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38.5%가 공공서비스업 종사자였으나,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산업은 광공업이 아니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5.0%)이었다.

(그림 6-2) 임금근로자의 연령 분포

(단위 : %)



직종에 따라서는 생산직이 38.7%로 가장 많았고, 전문관리직(28.6%)이 그 다음이었다. 그러나 여성은 전체 분포에 비해 사무직(23.0%), 서비스직(22.8%)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규모별로 보면(표 6-2 참조), 10인 미만인 40.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500인 이상(20.7%)이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전체 분포에 비해 10인 미만(46.5%)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30) KLIPS 표본 추출시 도시 지역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농림어업의 비중이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표 6-2〉 임금근로자의 특성별 분포

(단위 : %)

		전체	남성	여성
산업	농림어업	0.7	0.5	1.0
	광공업	24.6	26.6	21.6
	건설업	10.8	16.8	1.8
	전기·가스 및 수도업	0.8	1.2	0.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7.1	11.8	25.0
	운수통신업	6.0	7.8	3.2
	금융 및 부동산업	5.3	5.3	5.4
	공공서비스업	33.4	30.0	38.5
	가사서비스업	1.4	0.1	3.3
직종	전문관리직	28.6	29.8	26.7
	사무직	17.9	14.6	23.0
	서비스직	14.1	8.4	22.8
	농림어업직	0.6	0.5	0.8
	생산직	38.7	46.6	26.8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	40.3	36.2	46.5
	10~29인	14.6	15.0	13.9
	30~99인	12.7	13.6	11.2
	100~299인	8.5	9.4	7.3
	300~499인	3.2	3.1	3.3
	500인 이상	20.7	22.6	17.9
기업 형태	민간회사	73.6	72.8	74.7
	외국인회사	1.3	1.4	1.1
	공기업	3.8	4.7	2.4
	법인단체	4.9	4.0	6.2
	정부기관	9.4	9.2	9.6
	비소속	5.8	6.2	5.1
	기타	1.3	1.5	0.9
교대제 유무 및 형태	교대제 안함	89.8	88.0	92.5
	2조 2교대제	6.3	7.7	4.1
	3조 3교대제	2.7	2.5	2.9
	기타 교대제	1.2	1.7	0.5
종사상 지위	상용직	78.0	80.8	73.7
	임시직	11.1	7.2	16.9
	일용직	11.0	12.1	9.4

주 : 결측치는 계산에서 제외.

기업형태별로는 대다수가 민간회사(73.6%)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정부기관(9.4%)이 그 다음이었다. 성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대제가 이루어지는 곳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10.2%였으며, 남성(12.0%)이 여성(7.5%)보다 많았다. 교대제를 할 경우 대부분이 맞교대제(2조 2교대제)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2 참조).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이 78.0%였고, 임시·일용직은 22.0%였다. 통계청은 2004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47.9%인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KLIPS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 지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조사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퇴직금의 유무 등 부가급여를 받는지 등에 따라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을 구분하는 다른 기준들이 존재하지만, KLIPS의 경우는 기간 이외의 다른 것을 분류기준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상용직과 일용직 비중이, 여성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높은 직장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일용직의 대부분이 존재하는 건설업의 경우 산업특성상 남성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을 반영한 수치로 보인다(표 6-2 참조).

제 2 절 근로시간

제8차년도 KLIPS에서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해 현재의 일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있는지와 정규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고 있다. 정규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및 월평균 근로일수를 질문함으로써 근로시간에 대한 설문이 종료되며, 정규근무시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정규근무시간과 초과근무시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주당 근무시간 및 월평균 근로일수를 질문하게 된다. 또한, 초과근무시간과 관련하여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여부 및 지급방식, 월평균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다.

1. 평균근로시간

우선 평균근로시간의 연도별 추이부터 살펴보자. 여기서 평균근로시간은 정규근로시간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정규근로시간이 있는 근로자는 주당 정규근로시간과 주당 초과근로시간을 합쳐서 계산하였다.

〈표 6-3〉 연도별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 1998~2005년

(단위: 시간, %)

조사시점	평균근로시간	전년 대비 증가율
1차년도	52.3	-
2차년도	52.7	0.8
3차년도	52.3	-0.8
4차년도	51.1	-2.3
5차년도	50.9	-0.4
6차년도	50.5	-0.8
7차년도	50.0	-1.0
8차년도	49.5	-1.0

주: 1) 횡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

2) 증가율은 $\{(\text{해당연도}-\text{전년도})/\text{전년도}\} \times 100$ 으로 계산.

3) 근로시간을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결측처리함.

〈표 6-3〉을 보면 1998년 임금근로자들은 52.3시간을 근무하였으나, 8차년도인 2005년에는 49.5시간만을 근무하고 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2차년도를 제외하면 평균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에 비하여 수준으로는 약 4시간 가량 길었으나,³¹⁾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추세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매월노동통계조사가 5인 이상 상용직의 근로시간만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6-4〉는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51.0시간)이 여성(47.1시

31) 2005년도 『매월노동통계』 연평균으로 매월 총 근로시간은 195.1시간으로, 한 달을 4.3주로 생각하고 계산하면 주당 45.4시간 정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 2004년

(단위: 시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남성	여성
전 체		49.5	51.0	47.1
연령별	19세 미만	41.3	41.4	41.3
	20~29세	48.6	51.9	46.1
	30~39세	49.4	51.4	45.1
	40~49세	49.9	50.2	49.5
	50~59세	49.7	49.2	50.7
	60세 이상	51.1	55.6	42.0
학력별	고졸 미만	50.2	50.7	49.7
	고졸	52.1	54.1	49.0
	전문대졸 이하	48.1	50.6	45.1
	대졸	47.5	49.1	44.1
	대학원 이상	43.5	44.9	38.5

주 : 횡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

간)에 비해 평균적으로 주당 3.9시간을 더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인 응답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1.1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10대가 41.3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남성과 여성의 근로시간은 10대와 60대처럼 노동시장 참가가 그리 높지 않은 연령대를 제외하고 보면 30대에서 가장 격차가 컸는데, 여성의 육아 부담 등이 그 원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60세 여성의 근로시간은 50대에서 가장 길었고, 남성의 경우에는 20대에서 가장 길었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근로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졸 미만과 고졸은 주당 근무시간이 각각 50.2시간과 52.1시간인 데 반해 대졸자는 47.5시간,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43.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51.0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성별로 보아도 상용직인 남성이 52.6시간, 여성은 48.4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임시직인 경우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6.9시간으로 상용직보다 4시간 가량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6-5 참조).

〈표 6-5〉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단위: 시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남성	여성
상용직	51.0	52.6	48.4
임시직	46.9	50.3	44.7
일용직	41.1	40.9	41.4

주: 횡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

〈표 6-6〉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 2005년

(단위: 시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남성	여성
직종별	전문관리직	46.8	48.0	44.6
	사무직	46.4	48.5	44.4
	서비스직	55.1	58.3	53.3
	농림어업직	36.6	41.3	31.8
	생산직	51.0	52.5	47.1
산업별	농림어업	35.7	41.3	31.7
	광공업	51.3	52.0	50.1
	건설업	45.6	45.9	41.5
	전기·가스 및 수도업	42.4	43.1	33.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3.4	55.8	51.7
	운수통신업	52.0	54.5	42.8
	금융 및 부동산업	45.8	47.8	42.9
	공공서비스업	48.2	51.3	44.6
가사서비스업	41.0	35.1	41.2	
종업원 규모별	10인 미만	48.7	49.7	47.6
	10~29인	52.4	54.3	49.3
	30~99인	50.7	53.3	46.0
	100~299인	50.3	52.7	45.7
	300~499인	49.7	52.9	45.0
	500인 이상	47.6	48.7	45.6

한편 <표 6-6>은 임금근로자의 산업·직종·종업원 규모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산업별로는 가사서비스업이나 농림어업에서 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산업에서 임시

혹은 일용직의 비중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산업을 제외하면, 전기·가스·수도업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2.4시간으로 짧은 편이며,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53.4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서비스직이 55.1시간으로 가장 긴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기록했으며, 근로시간이 짧은 직종은 농림어업직을 제외하고는 사무직(46.4시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종업원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10~29인이 52.4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500인 이상이 47.6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7차년도(2004년) 조사와 비교해 볼 때,³²⁾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나, 10~29인 규모의 기업들의 근로시간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주로 이들 기업에 근로하는 여성의 근로시간 증가에 기인하고 있었다.

2. 초과근로시간

다음으로 임금근로자 가운데 정규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초과근로의 유무, 초과급여 지급방식 및 월평균 초과급여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7>에 제시되어 있듯이, 정규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로 일하는 시간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8차년도에 26.4%로 나타나, 비교적 초과근로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8.7시간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초과근로를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초과급여가 지급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58.3%로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였다. 초과급여 지급방식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간에 따라 결정(82.4%)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초과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는 14.9%로 나타났다. 시간당 평균 초과급여는 8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한국노동연구원, 『제7차 2004년도 한국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pp.152~153 참조.

〈표 6-7〉 임금근로자의 초과근로

(단위: %, 시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초과근로를 안함.		59.8	69.5	66.7	68.9	67.5	76.4	74.9	73.6
초과근로를 함.		39.9	30.5	33.3	31.2	32.5	23.6	25.1	26.4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		8.9	8.3	8.5	8.1	8.0	8.4	8.5	8.7
초과급여 지급 안함.		54.5	51.9	45.5	42.9	40.7	43.4	45.8	41.7
초과급여 지급함.		45.4	48.1	54.5	57.1	59.3	56.6	54.2	58.3
초과 급여 지급 방식	시간에 따라 계산	74.2	77.2	83.4	78.4	78.5	85.7	85.2	82.4
	일정 금액	21.9	18.2	11.6	13.9	14.6	10.3	12.8	14.9
	지급 기준 없음.	3.6	4.1	5.0	7.1	7.0	3.0	2.1	2.4
	모름/ 무응답	0.3	0.5	-	0.7	-	-	-	0.3
	시간당 평균초과급여(천원)	4.6	4.7	5.2	5.5	5.9	7.0	7.0	8.2

제 3 절 임 금

KLIPS에서는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의 임금지급주기, 임금산정방식, 임금수준, 성과급적용 여부와 해당 성과급제 그리고 임금내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임금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에 대하여 종사상 지위·인구학적 특성·사업체 특성별로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임금지급주기 및 임금산정방식

〈표 6-8〉을 통해 임금지급주기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92.9% 정도가 ‘한 달’ 주기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수시로 지급받는다’와 ‘매일 지급받는다’는 응답은 각각 3.2%, 3.0%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지급주기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92.1%)과 여성(94.1%)의 대부분이 ‘한 달’ 주기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8〉 임금지급주기 및 임금지급방법 : 2005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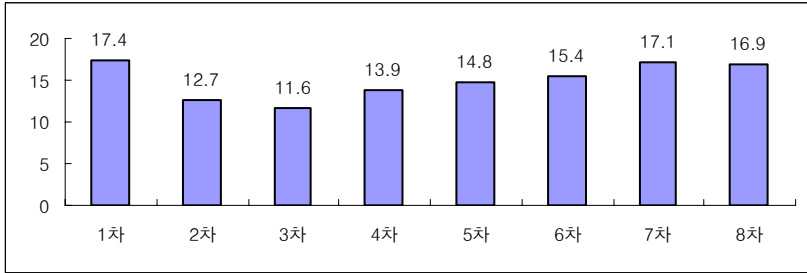
		전 체	남 성	여 성
임금지급주기	한 달	92.9	92.1	94.1
	보름/주	0.6	0.5	0.8
	매일	3.0	2.8	3.3
	수시	3.2	4.2	1.7
	기타	0.1	0.1	0.1
임금지급방법	연봉계약제	9.7	12.3	5.7
	월급	75.9	73.3	79.8
	주급/격주	0.2	0.1	0.2
	일당	9.6	11.5	6.7
	시간급제	2.4	1.1	4.5
	도급제	0.7	0.5	1.0
	실적급	1.4	1.0	2.1
	기타	0.2	0.2	0.1

다음으로 임금산정방식을 살펴보면, 연봉계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도(10.4%)보다 0.7%p 감소한 9.7%로 나타났으며, 월급제의 비중은 75.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73.3%), 여성(79.8%) 모두 월급제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연봉제는 남성(12.3%)이 여성(5.7%)보다 2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났다.

KLIPS에서는 직장에서 임금 결정시에 성과급제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다. [그림 6-3]은 성과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1998년(17.4%)부터 2000년(11.6%)까지는 성과급제의 적용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2000년 이후 2004년(17.1%)까지는 성과급제를 적용받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비중은 8차년도(2005년) 들어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 6-9>는 성과급제 실시 여부를 임금근로자 특성별로 살펴보고 있다. 분석결과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비중은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별로는 금융 및 부동산업이 41.0%인 반면 건설업은 8.6%로 차이가 상당했으며, 직종별로는 전문관리직은 23.2%가 적용받는 반면 생산직은 전문관리직의 절반 가량인 12.0%에 불

〈그림 6-3〉 임금근로자 중 성과급을 받는 사람의 비중 추이 : 2005년 (단위:%)



〈표 6-9〉 임금근로자 특성별 성과급제 실시 여부 : 2005년 (단위:%)

		성과급제 있음	성과급제 없음
성별	남성	18.9	81.1
	여성	13.8	86.2
업종	농림어업	13.7	86.3
	광공업	22.7	77.4
	건설업	8.6	91.4
	전기·가스 및 수도업	30.6	69.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5.4	84.6
	운수통신업	21.8	78.2
	금융 및 부동산업	41.0	59.0
	공공서비스업	11.8	88.2
직종	전문관리직	23.2	76.8
	사무직	19.1	80.9
	서비스직	14.6	85.4
	농림어업직	8.8	91.2
	생산직	12.0	88.0
종사상 지위	상용직	19.7	80.3
	임시직	10.2	89.8
	일용직	3.8	96.3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	8.9	91.1
	10~29인	10.6	89.4
	30~99인	15.6	84.4
	100~299인	16.6	83.4
	300~499인	23.6	76.4
	500인 이상	36.7	63.3

과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예상 가능한 것처럼 상용직에 비해 임시, 일용직은 성과급제 적용비율이 매우 낮았다. 한편 종업원 규모에 따라서는 종업원이 500인 이상인 경우 36.7%가 성과급을 실시하고 있으나,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8.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 월평균 임금

KLIPS에서는 임금산정방식에 따른 항목별 임금수준 이외에도 “현재 이 일자리에서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월평균 임금(세후소득)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표 6-10>에서도 제시되고 있듯이, 지난 8년간 KLIPS에서 조사되고

<표 6-10> 연도별 월평균 임금 비교

(단위: 만원, %)

	전 체		남 성		여 성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임금	실질임금
1차년도	111.1	114.5	130.9	134.9	77.4	79.8
2차년도	103.3	105.6	123.8	126.6	72.6	74.2
	(-7.0)	(-7.8)	(-5.4)	(-6.2)	(-6.2)	(-7.0)
3차년도	109.6	109.6	131.0	131.0	76.7	76.7
	(6.1)	(3.8)	(5.8)	(3.5)	(5.6)	(3.4)
4차년도	121.0	116.2	144.8	139.1	85.7	82.3
	(10.4)	(6.0)	(10.5)	(6.2)	(11.7)	(7.3)
5차년도	131.6	123.1	157.3	147.1	93.7	87.7
	(8.7)	(5.9)	(8.6)	(5.8)	(9.3)	(6.6)
6차년도	144.8	130.8	172.8	156.1	104.3	94.2
	(10.0)	(6.3)	(9.9)	(6.1)	(11.3)	(7.4)
7차년도	158.3	138.0	189.3	165.0	112.6	98.2
	(9.3)	(5.5)	(9.5)	(5.7)	(8.0)	(4.2)
8차년도	168.2	142.8	201.3	170.9	118.2	100.3
	(6.3)	(3.5)	(6.3)	(3.6)	(5.0)	(2.1)

주 : 1) 실질임금 = 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100, (소비자물가지수 2000년=100)

2)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있는 월평균 실질임금은 1차년도 조사(114만 5천원)에 비해 2차년도 조사(105만 6천원)에서 9만원쯤 감소하였으나, 3차년도 이후 꾸준히 증가해 8차년도에는 142만 8천원에 달했다.

성별로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8차년도에 여성의 월평균 명목임금은 118만 2천원으로 남성의 58.7%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월평균 임금의 변동은 「매월노동통계조사」³³⁾와 비교해 볼 때 다소 차이가 있다. 「매월노동통계조사」에 의하면 2005년 월평균 임금액은 240만 4천원인데, KLIPS는 168만 2천원으로 나타났다. 실질임금 증가율을 보더라도 1999년 「매월노동통계조사」는 11.1% 증가했지만, KLIPS의 경우 오히려 7.8% 감소했다. 이렇게 KLIPS에서 추정되고 있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주요하게는 조사대상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KLIPS의 경우는 가구조사로 가구에 속하는 모든 개인들의 임금을 조사하므로 1인 이상 사업장을 모두 포함할 뿐만 아니라, 임시·일용직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이에 반해 「매월노동통계조사」는 기업체 조사로 비농부문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³⁴⁾의 상용근로자가 조사대상이며, 1인 이상 10인 미만의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는 제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는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중 상당수가 조사대상에서 모두 제외되고 있다.

한편 <표 6-11>은 임금소득분배 추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3차년도를 제외하고는 지니계수가 계속 상승해 왔으나, 8차년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임금근로자 사이에서 임금불평등의 심화가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추이와 비교해 보면,³⁵⁾ 지니계수의 수준 자체는 KLIPS가 다소 높지만, 3차년도 지

33)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34) 「매월노동통계조사」는 1999년 이전에는 비농전산업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가 조사대상이었으나, 1999년부터는 5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조사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시계열의 일관성을 위해 10인 이상 자료를 수록한 『2005 KLI 노동통계』(한국노동연구원 발행)의 결과를 참조하였다.

35)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지니계수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0.282, 0.286, 0.299, 0.300, 0.303, 0.311, 0.314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2006 KLI 노동통계』에서 재인용).

〈표 6-11〉 임금소득분배 추이

(단위: %)

	지니계수	P90/50	P50/10	P90/10	중위값
1차년도	0.306	2.00	2.00	4.00	100
2차년도	0.310	2.00	2.25	4.50	90
3차년도	0.300	1.90	2.00	3.80	100
4차년도	0.308	2.10	2.00	4.20	100
5차년도	0.311	2.18	2.20	4.80	110
6차년도	0.322	2.08	2.00	4.17	120
7차년도	0.327	2.30	2.17	5.00	130
8차년도	0.325	2.04	2.23	4.55	147

주: 1) 중위값=P50=임금수준의 순서로 늘어놓았을 때 맨 가운데에 위치한 근로자의 임금수준.

주: 2) 지니계수: 소득분배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고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함을 의미.

주: 3) P90/50은 임금수준을 순서대로 배열하였을 때 가운데(50%)인 근로자의 임금보다 90%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이 몇 배 더 많은지를 표현. P50/10, P90/10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석하면 됨.

니계수가 하락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꾸준히 두 조사에서 모두 지니계수가 악화되어 왔다는 점에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표 6-12>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연령별·교육수준별로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로는 남성의 경우 40대에 월평균 임금이 236.4만원으로 가장 높고, 여성은 30대에 142.5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경우 19세 이하 집단에서 월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반면, 여성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임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은 교육수준별로도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졸자의 경우 고졸보다 150.0%(228만 5천원)의 임금을 받는 반면, 고졸 미만은 고졸의 67.3%(102만 5천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고용형태별로도 뚜렷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13>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187만 6천원으로 임시직은 상용직의 49.9%, 일용직은 55.9%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12〉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 임금 : 2005년

(단위: 만원)

		전 체		남 성		여 성	
		평균임금	상대임금	평균임금	상대임금	평균임금	상대임금
연 령	19세 이하	69.5	53.6	67.8	48.1	71.1	58.7
	20~29세	129.8	100.0	140.9	100.0	121.2	100.0
	30~39세	190.4	146.7	212.9	151.1	142.5	117.6
	40~49세	185.6	143.0	236.4	167.8	111.4	91.9
	50~59세	182.4	140.5	218.2	154.9	102.5	84.6
	60세 이상	94.5	72.8	113.4	80.5	55.3	45.6
학 력	고졸 이하	102.5	67.3	125.3	67.4	78.2	77.0
	고졸	152.3	100.0	185.9	100.0	101.5	100.0
	전문대졸 이하	158.0	103.7	186.3	100.2	123.1	121.3
	대졸	228.5	150.0	252.6	135.9	178.7	176.1
	대학원 이상	281.2	184.6	306.0	164.6	196.8	193.9

주 : 1) 임금수준은 “현재 이 일자리에서 ___님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에 대한 응답내용을 사용하여 계산함.

2) 상대임금은 연령은 20대, 학력은 고졸을 100으로 하여 계산.

〈표 6-13〉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

(단위: 천원)

		월평균 임금	
		평균액(천원)	상대임금
종사상 지위	상용직	187.6	100.0
	임시직	93.7	49.9
	일용직	104.9	55.9

다음으로 <표 6-14>는 산업별·직업별 및 기업체 특성별 임금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산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300만 5천원)의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금융 및 부동산업(236만2천원)과 운수통신업(185만4천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대표적인 서비스업인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광공업 월평균 임금의 75.8%(129만원)로 가사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수준은 직업별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문관리직의 월

〈표 6-14〉 임금근로자의 산업별·직업별 및 사업체 특성별 임금

(단위: 만원)

		전 체		남 성		여 성		
		월평균임금	상대임금	월평균임금	상대임금	월평균임금	상대임금	
직업	전문관리직	226.1	124.8	265.5	118.2	159.8	114.2	
	사무직	181.2	100.0	224.6	100.0	139.9	100.0	
	서비스직	125.4	69.2	182.5	81.3	93.7	67.0	
	농림어업직	85.0	46.9	126.4	56.3	39.8	42.5	
	생산직	136.3	75.2	157.3	70.0	81.3	58.1	
산업	농림어업	82.2	76.7	137.0	66.2	39.9	39.0	
	광공업	170.2	100.0	206.8	100.0	102.2	100.0	
	건설업	160.9	94.5	164.7	79.6	107.5	105.2	
	전기·가스 및 수도업	300.5	176.6	316.4	153.0	99.7	97.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29.0	75.8	168.9	81.7	100.7	98.5	
	운수통신업	185.4	108.9	194.2	93.9	153.1	149.8	
	금융부동산업	236.2	138.8	292.9	112.3	153.9	150.6	
	공공 서비스업	178.3	104.8	212.8	102.9	137.7	134.7	
	가사 서비스업	67.5	39.7	48.1	23.3	68.2	66.7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	143.1	100.5	172.5	104.2	108.4	103.5
		10~29인	142.4	100.0	165.5	100.0	104.7	100.0
30~99인		163.3	114.7	186.9	112.9	120.4	111.1	
100~299인		186.3	128.9	214.2	129.4	132.1	126.2	
300~499인		191.5	134.5	227.9	137.6	139.9	133.6	
500인 이상		227.1	159.5	271.2	163.9	143.1	136.7	
기업 형태 별	민간회사	155.7	62.9	190.1	71.0	105.1	50.9	
	외국인회사	247.5	100.0	267.6	100.0	206.4	100.0	
	공기업	244.4	98.7	276.7	103.4	152.0	73.6	
	법인단체	212.5	85.9	262.0	97.9	164.2	79.6	
	정부기관	241.3	97.5	267.0	99.8	199.4	96.6	
	소속이없음	108.5	43.8	130.6	48.8	67.2	32.6	
	기타	141.7	57.3	154.3	57.7	110.5	53.5	

주 : 1) 임금수준은 “현재 이 일자리에서 ___님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에 대한 응답내용을 사용하여 계산함.

주 : 2) 상대임금은 직종은 사무직, 산업은 광공업, 규모는 10~29인, 기업형태는 외국인 회사를 100으로 하여 계산.

평균 임금은 226만 1천원으로 사무직의 124.8%이며, 생산직과 서비스직은 사무직의 75.2%, 69.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형태별로 보면, 외국인회사가 가장 높은 247만 5천원이었으며, 공기업은 그 다음이었다.

그리고 정부기관이 225만 7천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민간회사는 기타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146만 6천원이었다. 종업원 규모별 임금수준은 300~499인 규모일 때가 194만 2천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월평균 임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4 절 비정규직 근로자

KLIPS는 5차년도부터 통계청이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정규직 관련 부가조사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다양하고 정교하게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먼저, 1~8차년도 조사까지 진행되어 왔던 기존의 조사항목으로는 임금근로자용 유형설문에서 조사되어 오던 종사상 지위(상용·임시·일용) 및 자기 판단에 기초한 정규·비정규 여부, 근로계약기간의 유무 등이 있다. 이 외에 5차년도부터 새롭게 추가된 항목으로는 유형설문에서 조사되고 있는 호출근로(혹은 일용대기근로) 외에 취업자용 설문 중 문9~문14³⁶⁾에서 조사된 근로의 지속가능성 여부, 향후 지속가능기간, 근로지속 불가능 이유, 파견 및 용역근로 여부, 독립도급근로 여부, 가내근로 여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사항목들을 이용하여 아래에서는 다양한 고용유형을 판별하고 각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비정규직의 규모

다음으로 <표 6-15>은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비정규직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 고용형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36) 8차년도 취업자용 설문 문항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6-15〉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과 비정규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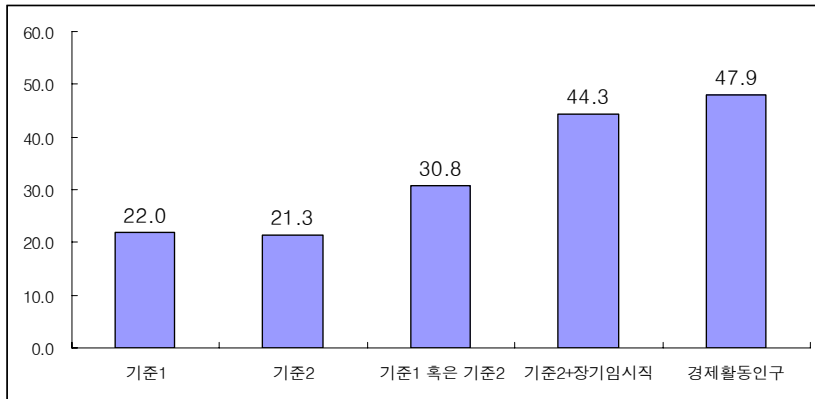
	정규직	일용 대기	파견	용역	독립 도급	가내	시간제	단기 계약	전 체
전체	78.7	3.7	1.0	2.8	4.1	0.9	6.9	1.9	100.0
		17.6	4.7	13.0	19.5	4.0	32.4	8.9	100.0
남성	82.5	5.0	0.8	2.7	3.5	0.3	3.3	2.0	100.0
		28.4	4.5	15.4	19.8	1.8	18.9	11.1	100.0
여성	73.1	1.9	1.3	2.9	5.2	1.7	12.3	1.8	100.0
		7.0	4.9	10.7	19.1	6.2	45.5	6.7	100.0

주: 1) 각 고용형태는 개별 기준에 의해 정의되어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표에서 제시된 항목의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분류된 결과임.

주: 2) 단기계약직이란, 근속이 1년 안 된 사람들 중 향후 계속 근무 가능한 기간이 1년 이하인 노동자를 의미함.

〈그림 6-4〉 다양한 정의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

(단위: %)



주: 기준1은 KLIPS 종사상 지위에서 임시·일용직 비중, 기준2는 위의 고용형태별 정의를 이용. 기준2+ 장기임시직에서 장기임시직은 부가급여를 받는지,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지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 가능한데, 여기서는 퇴직금을 받는지 여부로 통계했음.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005년도 비농가부문 임시·일용직 비중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시간제(32.4%)이며, 독립도급근로(19.5%)와 일용대기근로(17.6%)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간접고용에 해당되는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는 각각 4.7%와 13.0%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기준별로 살펴볼 때 KLIPS에서 나타나는 비정규직

의 규모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할 때에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6-4]에서 볼 수 있듯이, KLIPS에서 임시·일용직 기준으로 나타나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22.0%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47.9%와 비교할 때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종사상 지위에서 임시·일용직에 속하거나 다양한 고용형태에 속하는 경우(기준 1 혹은 기준 2) KLIPS에서 추정될 수 있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30.8%까지 증가한다. 또한 기준 2에 장기임시직을 포함할 경우 비정규직의 규모는 44.3%로 크게 증가해,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거의 같은 비정규직 규모가 추산된다. 결국 두 조사 간 조사방법상의 차이점³⁷⁾을 감안하면 양 조사에서의 비정규직 규모 격차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여기서는 다양한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한 비정규직의 조작적 정의(기준 2)를 기준으로 이들의 임금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6-5]과 같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09만 5천원으로 정규직(183만 9천원) 근로자의 약 59.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6천6백원으로 정규직 근로자(9천원)의 73.3%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각각의 고용형태에 따라 매우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립도급근로(167만 8천원)일 때의 임금은 정규직과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일용대기(133만 7천원), 가내근로(122만 2천원)는 비정규직의 평균임금보다는 높지만 정규직의 65~75%수준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용역(93만 7천원), 파견근로(104만 3천원), 단기계약(103만원), 시간제(69만 3천원) 등에서 더 심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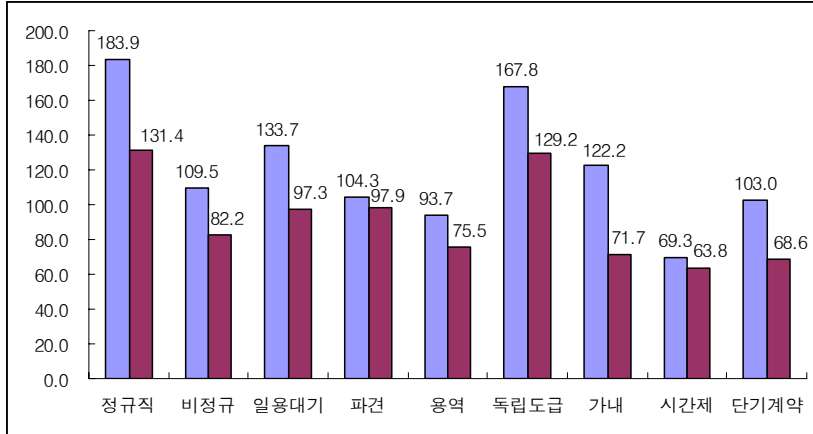
한편, 여성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7) KLIPS에서는 각종 사회보험 및 퇴직금 가입 여부와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만, 상여금 수령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상여금이나 각종 부가급여 제공 등을 감안하여 조사요원이 직접 종사상 지위를 판별하여 기입한다.

130 제8차(2005)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그림 6-5]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및 시간당 임금액

(단위: 만원)



주 : 임금수준은 명목임금임.

제 7 장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에서는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비임금근로자에게도 매년 유형설문과 취업자용 설문을 통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

주요 설문항목으로는 종사상 지위, 사업체의 규모, 월평균 소득과 연간 매출액, 근로시간 규칙성, 주당 근로시간과 월평균 근로일수, 사업체의 창업 및 운영과 관련한 특성들이 조사되고 있다. 특히 5차년도부터는 사업체의 창업자본금 및 화폐가치에 관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어 비임금근로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8차년도 조사부터는 적자를 보는 경우 적자의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문항이 추가되었다.

1~8차년도 조사기간 동안 KLIPS에서 파악되고 있는 비임금근로자의 수는 <표 7-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본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하였다.

제 1 절 종사상 지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는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된다. 이때 고용주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임금을 피고용인에

〈표 7-1〉 각 연도별 비임금근로자의 수와 비중 : 1998~2005년

(단위: 명, %)

	비임금근로자			취업자 대비 비임금근로자(%)
	표본수	남성비중	여성비중	
1차년도	2,415	58.6	41.4	37.6
2차년도	2,262	58.7	41.3	36.3
3차년도	2,082	59.7	40.3	35.6
4차년도	2,005	58.9	41.2	33.9
5차년도	1,980	59.5	40.5	32.9
6차년도	2,000	59.9	40.1	31.9
7차년도	2,027	60.3	39.7	31.8
8차년도	2,125	59.3	40.8	34.2

〈표 7-2〉 1~8차년도 비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비교

(단위: %)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1차년도	20.8	55.1	24.1
2차년도	22.2	54.0	23.8
3차년도	23.1	52.9	24.0
4차년도	24.3	51.8	23.9
5차년도	25.9	50.3	23.9
6차년도	26.3	51.2	22.6
7차년도	26.5	50.8	22.7
8차년도	23.3	57.4	19.4

게 지급하는 경우를 이르며, 자영업자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종업원이 없는 경우, 무급가족종사자는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하고 있지만 돈을 받지 않고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로 각각 정의된다.

먼저 <표 7-2>를 통해 8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용주가 23.3%, 자영업자 57.4%,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는 19.4%인 것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특히,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1차년도에 24.1%였으나 점차 줄어 8차년도 19.4%를 기록했다. 반면 자영업자의 비중은 1차년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8차년도에 크게 증가하여 57.4% 달하였다. 한편 KLIPS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임금근로자의 종

사상 지위별 분포는 통계청의 2005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19.3%로, KILPS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7-3>은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과 산업별 특성으로 살펴본 것이다. 먼저 성별 종사상 지위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자영업자(66.1%), 고용주(30.6%), 가족종사자(3.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가족종사자(42.9%)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종사상 지위의 분포를 살펴보면, 20대와 60대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았으며, 40대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이 51.7%로 20대에 비해 17.8%p 정도 낮게 나타났다. 또한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는

<표 7-3>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산업별 종사상의 지위 분포

(단위:%)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성별	남성	30.6	66.1	3.3
	여성	12.6	44.5	42.9
연령	20~29세	12.3	69.5	18.2
	30~39세	27.9	56.9	15.2
	40~49세	26.7	51.7	21.4
	50~59세	25.4	55.1	19.5
	60세 이상	9.2	70.1	20.7
학력	고졸 미만	11.4	60.9	27.8
	고졸	22.3	58.6	19.1
	전문대졸 이하	28.5	59.3	12.2
	대졸	45.7	46.2	8.2
	대학원 이상	57.8	42.2	0.0
산업	농림어업	4.0	62.9	33.1
	광공업	37.2	40.6	22.2
	건설업	45.3	49.3	5.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6.5	50.7	22.8
	운수통신업	6.0	89.7	4.3
	금융 및 부동산업	18.7	73.9	7.4
	공공서비스업	30.7	55.5	13.8
	가사서비스업	3.6	96.4	0.0

교육수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용주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가족종사자는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별³⁸⁾로는 광공업(37.2%), 건설업(45.3%), 공공서비스업(30.7%)에서 고용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제 2 절 근로시간

본 절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 주당 평균근로일수, 주당 평균근로시간 등과 관련된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설문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 일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여기서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 함은 일거리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사업(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라 함은 사업 또는 일자체를 ‘하다 안하다’ 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또한,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인 경우에는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경우와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로 다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주당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와 관련하여서는 “이 일자리에서 1주일에 몇 시간 일하십니까?”, “1주일에 보통 몇 시간이나 일하십니까?”라고 각각 조사하고 있다.

1. 근로시간의 규칙성과 주 평균근로일수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칙성 여부 및 주 평균근로일수의 분포는 <표 7-4>와 같다. 먼저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에 관해 살펴보면, ‘규칙적’인 경우가 73.5%, 불규칙적인 경우가 26.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이 계절의 영향을 받아 불규칙한 경우가(19.5%)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보다 3배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8) 2000년 개정 산업표준분류.

〈표 7-4〉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 및 주 평균근로일수

(단위 : %, 일)

		규칙적	불규칙적		주 평균 근로일수(일)
			계절영향 없음	계절영향 있음	
전 체		73.5	7.0	19.5	6.2
종사상 지위	고용주	92.0	2.4	5.5	6.4
	자영업자	68.7	8.9	22.3	5.9
	가족종사자	65.5	6.6	27.9	6.6
산업	농림어업	20.2	4.2	75.7	6.6
	광공업	83.4	9.0	7.6	5.8
	건설업	55.5	8.7	35.8	5.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88.2	5.8	6.0	6.6
	운수통신업	65.5	10.0	24.5	5.2
	금융 및 부동산업	88.8	7.2	4.0	6.3
	공공서비스업	88.1	9.1	2.8	6.0
	가사서비스업	90.4	3.3	6.2	3.4

근로시간의 규칙성에 대해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는 응답이 고용주가 92.0%인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는 68.7%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인 경우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는 비중이 고용주(5.5%)보다는 자영업자(22.3%)와 가족종사자(27.9%)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과 건설업 종사자의 79.9%와 44.5%가 근로시간이 규칙적이지 못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각각 75.7%와 35.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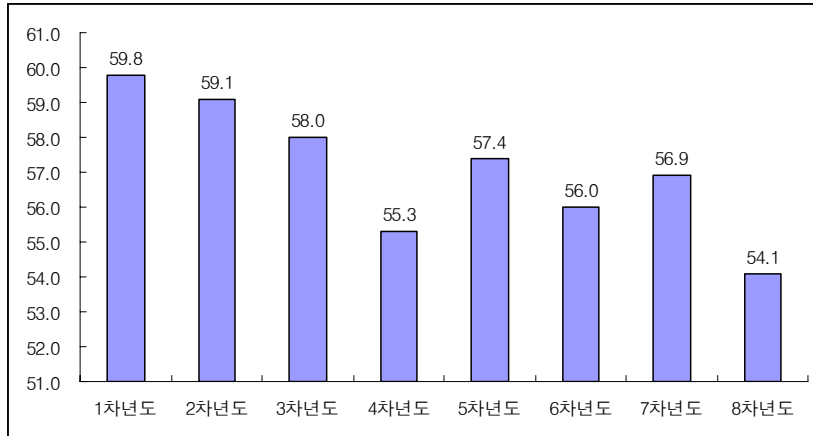
한편, 7차년도에 조사된 비임금근로자의 주 평균근로일수는 6.2일이며 종사상 지위별로 자영업자의 근로일수가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별로 살펴볼 때에는 운수업(5.2일)과 건설업(5.7일)에서 주 평균근로일수가 상대적으로 짧았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농림어업이 6.6일로 길었다.

2. 주당 근로시간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1~4차년도 조사기간 동안 지속

〔그림 7-1〕 1~8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단위: 시간)



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5차년도 조사 이후 증가와 감소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7-1]에서 볼 수 있듯이, 1차년도(59.8시간)와 2차년도(59.1시간)에 조사된 주당 근로시간은 3차년도에 58.0시간, 4차년도에는 55.3시간까지 감소하였다가 5차년도에는 57.4시간으로 2.1시간 가량 증가하였고, 6차년도에 56.0시간으로 1.4시간 감소하였다. 그러나 7차년도에는 다시 0.9시간 증가한 56.9시간으로, 8차년도에는 54.1시간으로 변화했다.

이를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1차년도를 제외하면 고용주가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다. 8차년도의 경우 고용주는 주당 평균 57.2시간, 자영업자는 52.6시간, 가족종사자는 54.9시간을 근로하였다.³⁹⁾

<표 7-6>은 주당 근로시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비임금근로자의 69.6%가 주당 44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며,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54.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임금근로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임금근로자의 약 49.5시간보다 4.6시간 정도 더 긴 수치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주당 71시간 이상 일한다는 응답(19.2%)

39)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168시간이라고 응답한 개인은 하루 24시간 근로를 의미하므로,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표 7-5〉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 평균근로시간

(단위: 시간)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1차년도	59.8	59.1	59.7	60.7
2차년도	59.1	63.1	58.7	58.4
3차년도	58.0	60.4	57.4	57.0
4차년도	55.3	57.8	55.0	53.6
5차년도	57.4	58.9	57.0	57.3
6차년도	56.0	58.2	55.7	54.1
7차년도	56.9	58.6	56.9	55.0
8차년도	54.1	57.2	52.6	54.9

〈표 7-6〉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단위: %, 시간)

		1~18 시간	19~35 시간	36~43 시간	44~54 시간	55~70 시간	71시간 이상	주당 평균 근로시간
전 체		4.3	13.0	13.1	20.1	30.8	18.7	54.1
성별	남성	3.6	9.1	12.2	25.0	31.8	18.3	55.1
	여성	5.4	18.6	14.5	13.0	29.3	19.2	52.6
연령	19세 미만	41.9	-	58.1	-	-	-	29.1
	20~29세	31.7	12.8	9.6	12.3	18.1	15.5	40.2
	30~39세	3.6	9.2	16.0	24.1	29.7	17.6	54.1
	40~49세	1.7	11.6	11.8	21.6	31.4	22.0	56.8
	50~59세	2.0	11.2	12.7	18.0	36.6	19.4	56.4
	60세 이상	6.8	24.0	13.8	17.6	25.4	12.4	48.3
학력	고졸 미만	2.8	17.3	12.0	26.8	33.2	19.6	55.0
	고졸	2.1	9.1	12.9	22.0	32.9	21.1	57.0
	전문대졸 이하	15.8	10.0	10.8	15.4	29.0	18.9	49.9
	대졸	3.2	14.1	17.9	30.4	22.5	11.9	49.5
	대학원 이상	18.5	16.7	15.0	23.1	20.4	6.4	41.7

이 남성보다 0.9%p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2.5시간 가량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임금근로자와 비교해 보면 남성 비임금근로자가 남성 임금근로자보다 주당 4.1시간 정도 더 일했으며, 여성 비임금근로자는 여성 임금근

로자보다 5.5시간 정도 더 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10대를 제외하면 '40~49세'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8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연령대는 40.2시간의 20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자(57.0시간)가 가장 긴 주당 근로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대학원 이상'(41.7시간)의 근로시간과의 차이는 주당 평균 15.3시간이었다. 같은 교육수준의 임금근로자와 비교하면, 비임금근로자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최소 3.2시간 이상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7>은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산업 및 사업체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산업별로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63.2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특히 '71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 응답자가 이 산업에서 33.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업원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가 54.4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10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시간은 5인 미만 사업체에 비해 3.2시간 가량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7>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단위: %, 시간)

		1~18	19~35	36~43	44~54	55~70	71시간	평균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이상	근로시간
산업	농림어업	4.4	29.7	13.8	15.0	30.3	6.8	46.8
	광공업	0.8	9.8	15.4	31.5	30.5	12.0	52.1
	건설업	0.0	8.0	21.0	34.2	27.4	9.3	50.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4	7.3	6.9	14.9	35.4	33.1	63.2
	운수통신업	1.1	12.5	10.0	27.6	34.4	14.5	54.9
	금융 및 부동산업	3.9	5.9	39.0	25.1	22.6	3.5	47.0
	공공서비스업	7.9	15.2	13.4	20.3	26.4	16.8	50.3
	가사서비스업	73.0	14.0	-	3.8	9.2	-	15.6
종업원 규모	1~4인	4.4	13.5	12.8	18.8	31.1	19.4	54.4
	5~9인	2.7	6.5	17.3	44.3	18.7	10.6	50.0
	10인 이상	3.8	4.4	18.4	31.1	37.1	5.2	51.2

제 3 절 근로소득

<표 7-8>은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명목소득(이하 월평균 소득)과 월평균 실질소득을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지난 8년간 월평균 명목소득의 추세를 살펴보면, 1998년 132만 2천원에서 2차년도에 127만 8천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러나 2005년 들어 다시 감소하여 224만 2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소득증가는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2차년도뿐 아니라 6

<표 7-8> 연도별 월평균 소득 비교

(단위: 만원)

	전 체		남 성		여 성	
	명목소득	실질소득	명목소득	실질소득	명목소득	실질소득
1차년도	132.2	136.3	149.2	153.8	88.9	91.6
2차년도	127.8 (-3.3)	130.7 (-4.1)	142.5 (-4.5)	145.7 (-5.3)	83.7 (-5.8)	85.5 (-6.7)
3차년도	144.2 (12.8)	144.2 (10.3)	160.5 (12.6)	160.5 (10.2)	94.4 (12.8)	94.4 (10.4)
4차년도	180.9 (25.5)	173.8 (20.5)	203.3 (26.7)	195.3 (21.7)	118.3 (25.3)	113.7 (20.4)
5차년도	209.8 (16.0)	196.3 (12.9)	232.4 (14.3)	217.4 (11.3)	142.6 (20.5)	133.4 (17.3)
6차년도	214.2 (2.1)	193.5 (-1.4)	238.8 (2.8)	215.7 (-0.8)	144.6 (1.4)	130.7 (-2.0)
7차년도	238.9 (11.5)	208.3 (7.6)	267.6 (12.1)	233.3 (8.2)	151.6 (4.8)	132.2 (1.1)
8차년도	224.2 (-6.2)	190.4 (-8.6)	254.0 (-5.1)	215.6 (-7.6)	152.5 (0.6)	129.4 (-2.1)

주 : 1) 실질소득=명목소득/소비자물가지수*100 (소비자물가지수 2000년=100).

2)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3) 적자를 보는 경우는 표본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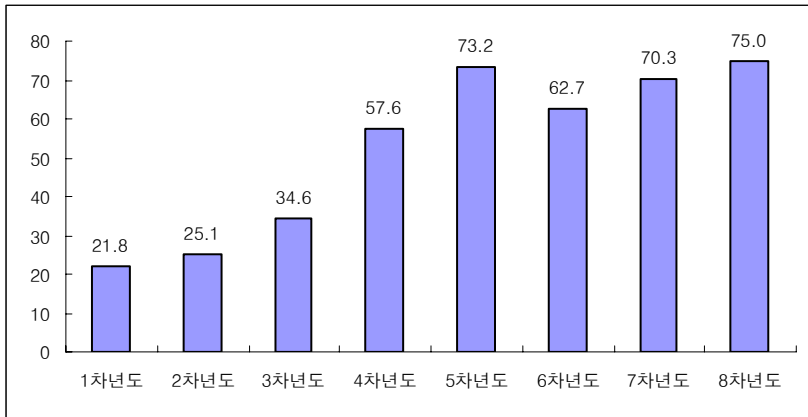
차년도와 8차년도에 (-) 성장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월평균 소득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간 소득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8차년도의 여성 월평균 명목소득은 152만 5천원으로 남성(254만원)의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음으로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소득을 비교한 결과가 [그림 7-2]에 제시되어 있다. KLIPS에서 조사되고 있는 비임금근로자의 실질소득은 임금근로자보다 높으며, 그 격차는 1차년도 21만 8천원에서 5차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다가 6차년도에 62만 7천원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7차년도에 70만 3천원의 차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8차년도들어 그 격차는 다소 감소하여, 47만 6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7-2]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소득 차액 비교

(단위: 만원)



주 : 소득차액 =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소득 -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임금.

한편, <표 7-9>는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연령 및 교육수준별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연령별 월평균 소득액을 보면 30대에서 정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소득이 300만원 이상에 분포하는 사람은 40대가 28.6%로 가장 많았고, 30대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사이에 가장 많은 32.6%가 분포하고 있었다. 이는 50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표 7-9〉 비임금근로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월평균 명목소득 : 2005년

(단위: %, 만원)

		월평균 근로소득 분포					월평균 소득액 (만원)
		적자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전 체		3.7	24.1	29.7	19.1	23.5	224.2
연령	20~29세	6.0	47.5	25.9	11.7	8.8	113.4
	30~39세	4.2	8.7	32.6	26.9	27.6	305.3
	40~49세	2.6	15.3	30.2	23.4	28.6	248.7
	50~59세	4.9	23.2	30.1	17.1	24.7	218.1
	60세 이상	2.8	58.0	24.7	5.2	9.3	108.4
학력	고졸 미만	2.3	44.6	33.1	11.8	8.2	129.4
	고졸	4.2	13.4	32.8	22.7	26.9	233.1
	전문대졸 이하	5.5	25.6	18.8	21.1	29.0	214.0
	대졸 이하	4.1	9.9	25.1	23.7	37.2	373.7
	대학원 이상	2.6	9.2	19.8	19.4	49.0	372.3

주 : 월평균 근로소득 계산시 '적자' 응답자 제외.

교육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소득 및 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자영업자 및 고용주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300만원 이상에 49.0%가 위치하고 있었던 반면, 고졸 미만은 단지 8.2%만이 300만원 이상에 분포하고 있었다.

〈표 7-10〉은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에 대해 사업체 특성 및 매출액 규모별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산업별로는 광공업 종사자의 월평균 소득(315만 6천원)이 가장 높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260만 9천원) 및 건설업(238만 3천원)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업원수가 0(자영업자)인 경우 월평균소득은 155만 4천원이며, 사업체 규모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15.7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10>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월평균 소득 : 2005년

(단위 : %, 만원)

		월평균 근로소득 분포					월평균 소득액 (만원)
		적자	100만원 미만	100만~ 200만원 미만	200만~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산업	농림어업	2.9	53.9	23.1	10.2	9.9	113.1
	광공업	5.3	11.0	28.5	14.2	41.0	315.6
	건설업	2.8	11.9	22.3	28.0	35.0	238.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3	22.1	28.6	21.4	24.7	260.9
	운수통신업	0.0	15.2	48.5	23.5	12.8	171.3
	금융 및 부동산업	6.6	13.6	31.2	19.3	29.3	229.6
	공공서비스업	5.1	19.6	31.6	22.0	21.8	220.1
종업원 규모	0명(자영업자)	2.9	32.5	33.5	18.0	13.1	155.4
	1~4인	6.0	4.0	24.9	24.9	40.3	288.6
	5~9인	6.1	0.0	6.9	14.4	72.6	512.5
	10인 이상	3.6	1.9	4.6	10.4	79.6	989.3

주 : 월평균 근로소득 계산시 '적자' 응답자 제외.

<표 7-11>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적자액 : 2005년

(단위 : %, 만원)

월평균 적자의 분포						
적자 아님	적자임	적자액 분포				월평균 적자액 (만원)
		100만원 미만	100만~ 200만원 미만	200만~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96.4	3.6	36.7	18.6	19.0	25.7	250.6

한편, 8차년도 조사부터 새롭게 추가된 적자액의 규모는 <표 7-11>에서 알 수 있다. 8차년도에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응답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3.6%로 비교적 작은 비중을 보였다. 또한 적자액의 평균은 250만 6천 원으로 상당히 큰 액수를 보였다. 범주별로는 100만원 미만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응답한 비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아 36.7%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 4 절 사업체의 창업

비임금근로자의 고용주와 자영업자 중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가진 경우(유형 7)는 299명으로 조사되고 있으며,⁴⁰⁾ 이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시작한 사업체의 창업과정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7-12〉 사업체의 창업 여부와 상속 여부

(단위:%)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창업	86.0	86.7	85.7
가족 및 친지로부터 물려받음	8.5	12.1	7.1
기타	5.5	1.1	7.2

〈표 7-13〉 종사상 지위별 자본금 구성비

(단위:%)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본인 또는 가족, 친지	77.0	63.3	83.6
동업자	3.8	7.6	2.0
은행 등의 융자	12.4	15.5	10.9
다른 개인으로부터 빌려서	5.2	8.7	3.6
사채업자	0.1	0.4	0.0
정부의 보조	0.0	0.0	0.0
기타	1.5	4.5	0.0

먼저 <표 7-12>를 통해 창업주체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가족 또는 친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기보다는 86.0%가 창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주의 경우가 자영업자보다 창업비율이 다소 더 높았다.

다음으로 창업을 통해 사업체를 시작하는 응답자에게 사업비용을 어떻

40) 주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함.

게 조달하였는지를 <표 7-13>을 통해 보면, 응답대상자의 77.0%가 본인 또는 가족, 친지를 통해 사업비용을 조달하였으며, 정부의 보조 및 지원은 전혀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를 종사상 지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고용주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친지에 의한 자본금 조달비중이 63.3%, 은행 등 금융기관의 용자가 15.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사업규모가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는 가족, 친지에 의한 자본금 조달 비율이 83.6%로 고용주에 비해 20.3%p 정도 높은 데 비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용자는 10.9%로 고용주보다 약 4.6%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8 장

생활·직무 만족도 및 생활과 건강

지금까지 제2~7장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생활과 경제활동을 다루었다. 이제 이 장에서는 응답자 개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개인의 생활과 경제활동의 만족도를 다루고자 한다. 본 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5세 이상의 개인이 응답한 생활 전반에 관한 만족도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직업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건강과 생활에 관한 내용을 알아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1절에서는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이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으로 가족의 수입, 여가생활, 주거환경, 가족관계, 친인척관계 및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다.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와 세부항목 중 친인척 관계 및 사회적 친분관계 항목은 3차년도부터 조사에 포함되었다.

제2절에서는 직업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로 직무 만족도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는 1차년도부터 취업자의 일자리와 관련하여 임금, 취업안정성, 일의 내용, 근무환경, 근무시간, 개인의 발전 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인사고과의 공정성, 복지후생제도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를 묻고 있어서 이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3차년도 조사부터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취업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교육이나 기술(기능) 수준과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교육 혹은 기술(기능) 수준간의 불일치도를 살펴본다. 아울러 본인의 기술(기능) 유용성에 관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

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5차년도 조사부터 취업자를 대상으로 자신이 일하는 사업체 혹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조직몰입도 및 직무만족도에 대해서도 묻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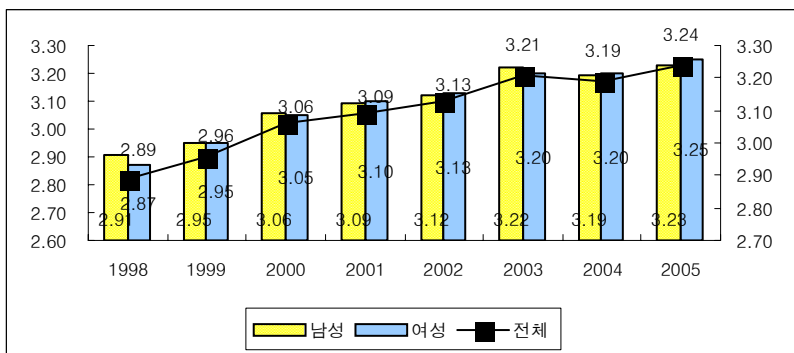
제3절에서는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살펴본다. 개인의 건강에 관한 문항들은 현재의 건강상태, 장애 및 육체적 제약 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 사항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제 1 절 생활 만족도

본 절은 KLIPS에서 조사된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와 가족의 수입, 여가 생활, 주거환경, 가족관계, 친인척관계 및 사회적 친분관계 등 여섯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1차년도부터 8차년도까지 조사대상자들이 응답한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8-1]과 같다. 1998년에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보통 수준에 못미치는 2.89점이었으나 점차 증가하여 2005년에는 3.24점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이는 성별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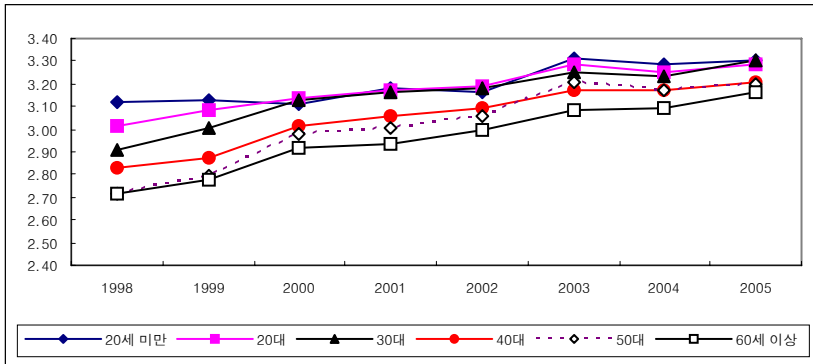
[그림 8-1]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점수 : 1998~2005년



주 : 제시된 결과는 평균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매우 불만족=1~매우 만족=5).

[그림 8-2]는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의 추이를 연령별로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대체로 젊은 층일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 2005년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보면, 20세 미만인 경우가 65.3점, 20대의 경우 65.8점, 30대의 경우 66점, 40대의 경우 64.2점, 50대의 경우 64점, 60세 이상의 경우 63.2점으로 나타났고 있어 해가 거듭될수록 그 간격이 점차 좁아져 2005년에는 연령별로 생활 만족도에 차이가 없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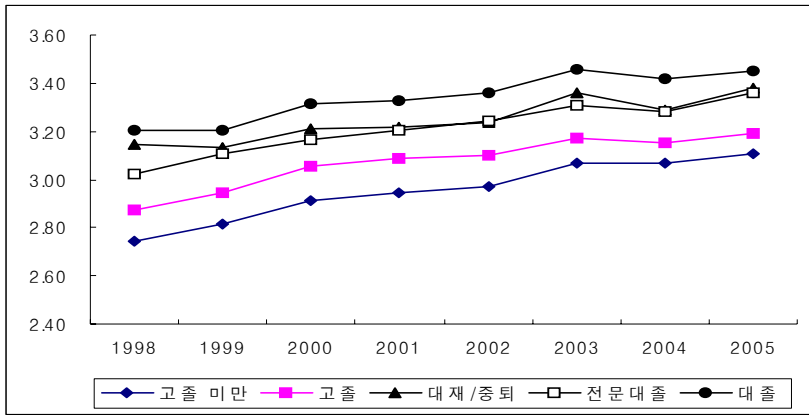
[그림 8-2] 연령별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점수 추이



연도간 추이를 살펴보면, 젊은 층보다는 고령층일수록 전반적인 생활에 관한 만족이 더욱 크게 증가함을 볼 수 있다. 20세 미만의 경우 전반적인 생활에 관한 만족도의 평균점수가 1998년 당시 3.12점에서 2005년 3.30점으로 0.18점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20대의 경우 0.27점(3.02→3.29), 50대의 경우는 0.48점(2.72→3.20) 증가하였다.

[그림 8-3]은 교육수준별로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학력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생활에 관한 만족이 높게 나타난다. 반면 연도에 걸쳐 살펴보면 저학력자일수록 만족도가 좀 더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고졸 미만과 고졸자의 경우는 각각 0.37점(1998→2005 : 2.74→3.11), 0.32점(2.87→3.19) 가량 증가하였으나, 대학 재학 및 중퇴자의 경우는 0.24점(3.14→3.38)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대졸자의 경우 0.24점(3.21→3.45) 상승하는 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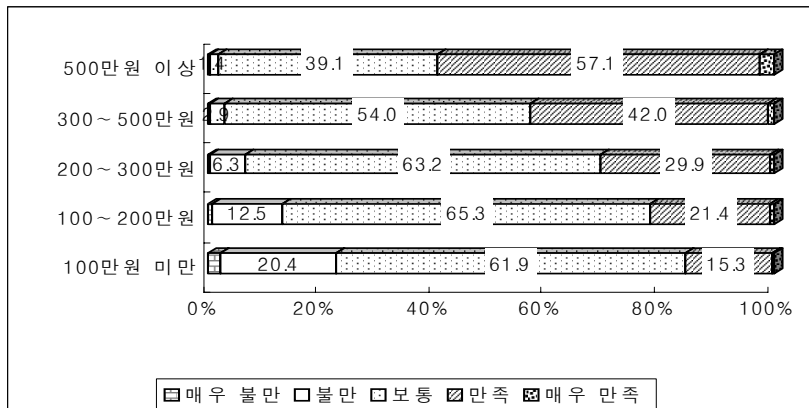
[그림 8-3] 교육수준별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점수 추이



[그림 8-4]는 2005년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를 소득수준별로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재의 생활에 만족한다(매우 만족+만족)는 응답이 53.1%로 나타났으며,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17.0%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아울러 보통이라는 응답은 가구소득이 100만~200만원인 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8-4] 소득수준별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점수 :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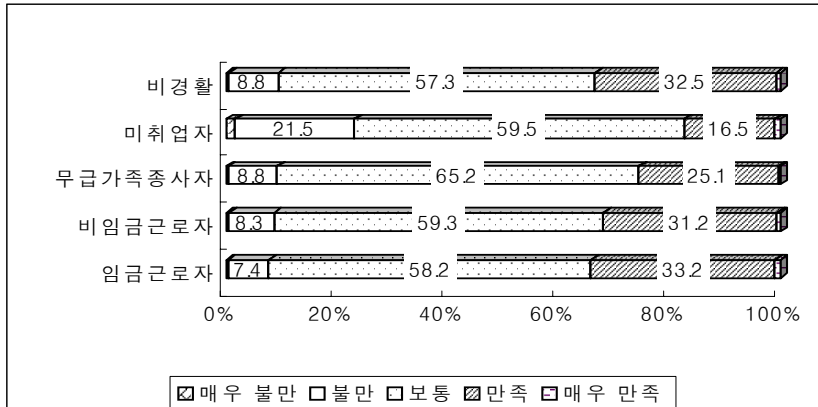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8-5]는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별로 생활 만족도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임금근로자들의 경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34.1%로 가장 높다. 비경활인구의 만족 비율은 33.4%로 임금근로자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미취업자의 경우 불만족스럽다(매우 불만+불만)는 응답이 전체의 23.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부터 우리는 개인의 생활 만족도가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혹은 가구의 소득수준 등과 같은 경제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림 8-5] 경제활동상태별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점수 : 2005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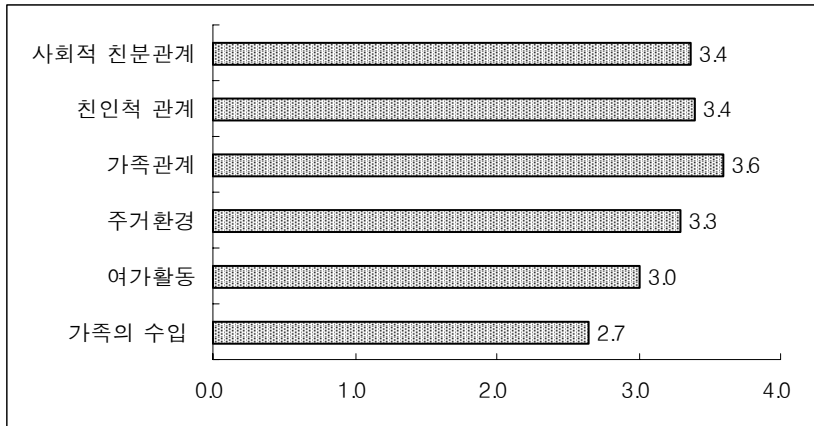
이러한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를 구성하는 각 항목의 생활만족도 분포를 2005년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표 8-1> 및 [그림 8-6]과 같다. 여섯 가지 항목 중 불만족스럽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항목은 가족의 수입(38.2%)과 여가활동(26.7%)으로 나타났고, 만족스럽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은 가족관계(61.2%), 친인척관계(44.4%), 사회적 친분관계(41.0%)였다. 결국 조사대상자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생활의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불만족이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의 만족과 상쇄되어 보통의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8-6]은 각 항목별 생활 만족도의 평균점수를 제시한 것으로, 이 역시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3.6점)이 가장 높고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2.7점)이 가장 낮음을 보여준다.

〈표 8-1〉 항목별 생활 만족도 분포 : 2005년

(단위 : %)

	매우 만족스럽다	만족스럽다	보통이다	불만족스럽다	매우 불만족스럽다
가족의 수입	0.3	13.7	47.8	32.2	6.0
여가활동	0.7	24.2	48.4	24.4	2.3
주거환경	2.1	38.1	46.0	12.6	1.3
가족관계	5.6	55.6	35.2	3.2	0.3
친인척관계	2.5	41.9	50.9	4.2	0.5
사회적 친분관계	2.5	38.5	54.3	4.3	0.4

〔그림 8-6〕 항목별 생활 만족도 점수 비교 : 2005년



제 2 절 직무 만족도 및 불일치도, 조직 몰입도

1. 직무 만족도

본 절에서는 1차년도부터 8차년도까지 조사된 개인응답자의 직무 만족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KLIPS는 1차년도 조사부터 취업자의 일자리와 관련하여 임금 또는 보수, 취업의 안정성, 하고 있는 일의 내용, 근무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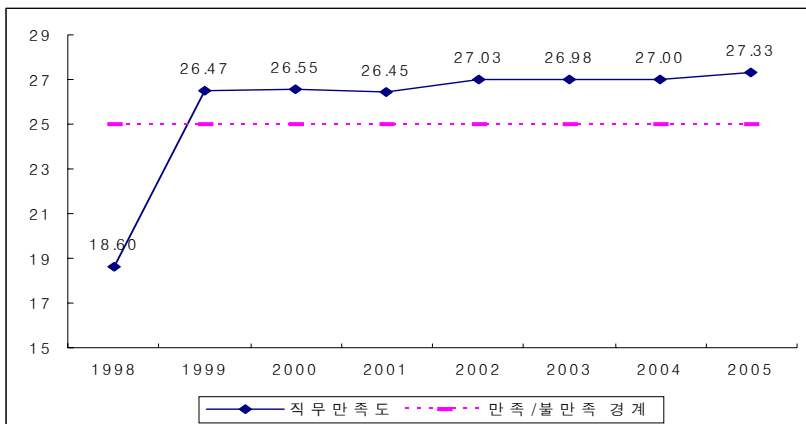
근무시간, 개인의 발전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인사고과의 공정성, 복지후생제도 등 항목별 직무 만족도를 묻고 있어서 이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3차년도 조사부터 전반적인 직무만족에 관한 문항이 추가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 직무 만족도 문항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8-7]은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 추이를 연도별로 보여준다. 3차년도 조사부터 전반적인 직무만족도 문항을 별도로 질문하고 있으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1차년도부터 조사된 아홉 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1998년에는 직무 만족도의 평균점수는 만족보다는 불만족에 대한 응답비중이 높았으나 1999년부터 2005년까지는 만족/불만족 경계를 상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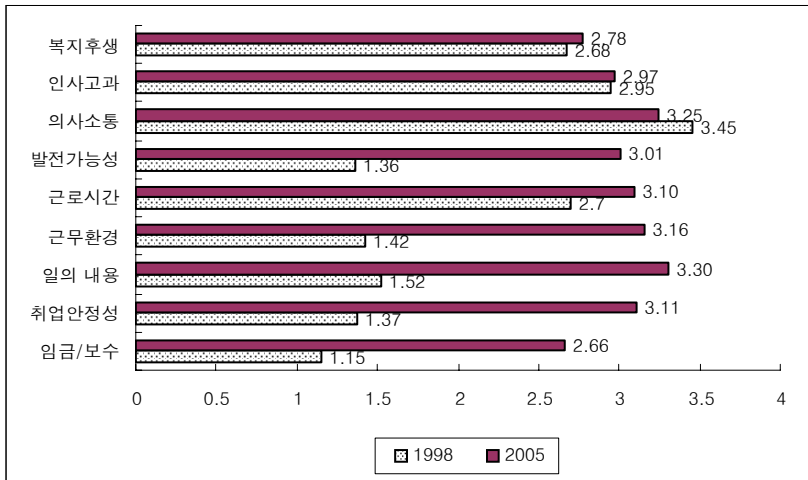
[그림 8-8]은 각 항목별 직무 만족도 점수를 1998년과 2005년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1998년에는 임금/보수 및 취업안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인사고과의 공정성, 복지후생제도에 대한 직무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2005년에는 항목간 만족도 차이가 크지 않고 전반적으로 고르게 나타나지만, 임금/보수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높게 나타난다.

[그림 8-7]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 추이 : 1998~2005년



주 : 제시된 결과는 9개 직무만족 항목의 평균점수의 합임(매우 불만족=5~매우 만족=45).

[그림 8-8] 각 항목별 직무 만족도 점수 비교 : 1998년/2005년



주 : 제시된 결과는 평균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매우 불만족=1~매우 만족=5).

직무만족 점수가 7년 동안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은 일의 내용(1998→2003 = 1.52→3.30)과 취업안정성(1.37→3.11)이며, 가장 낮아진 경우는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3.45→3.25)이다.

다음으로 8차년도를 대상으로 직무만족의 항목별 차이와 인구학적 특성, 산업별·직업별 특성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항목별 직무만족의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표 8-2>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만족스럽다는 응답비중(매우 만족 + 만족)이 높은 항목은 일의 내용(39.1%), 취업의 안정성(32.9%)이며, 불만족스럽다는 응답비중(불만족+매우 불만족)이 높은 항목은 임금/보수(43.3%), 복지후생제도(33.3%)로 보인다.

[그림 8-9]는 성별로 각 항목에 대한 직무 만족도 점수를 보여준다. 먼저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는 여성(3.12점)과 남성(3.11점)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항목별로는 복지후생제도, 인사고과의 공정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개인의 발전가능성 등은 남성의 직무 만족도가 여정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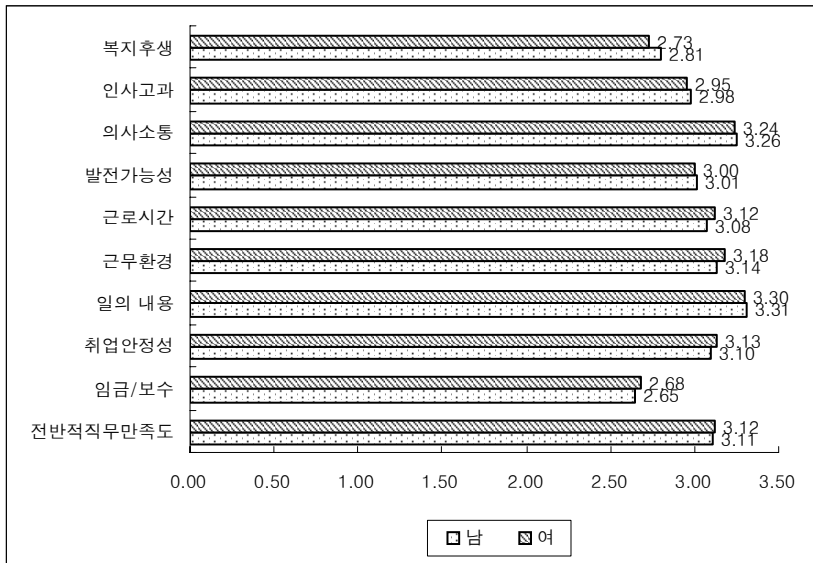
[그림 8-10]은 전반적인 직무만족 점수를 고용형태별로 보여주는데, 임금근로자(3.16점)가 비임금근로자(3.06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다.⁴¹⁾

〈표 8-2〉 항목별 직무 만족도 분포 : 2005년

(단위 : %)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임금/보수	0.4	14.9	41.4	37.0	6.3
취업안정성	2.2	30.7	45.5	19.6	2.0
일의 내용	2.6	36.5	50.4	9.7	0.8
근무환경	1.8	30.4	50.7	16.1	1.1
근로시간	1.8	30.1	45.8	20.3	2.0
발전가능성	1.8	22.4	52.9	20.9	2.1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2.1	31.1	57.1	9.0	0.7
인사고과의 공정성	0.7	16.4	64.3	16.3	2.3
복지후생	0.9	15.5	50.4	26.9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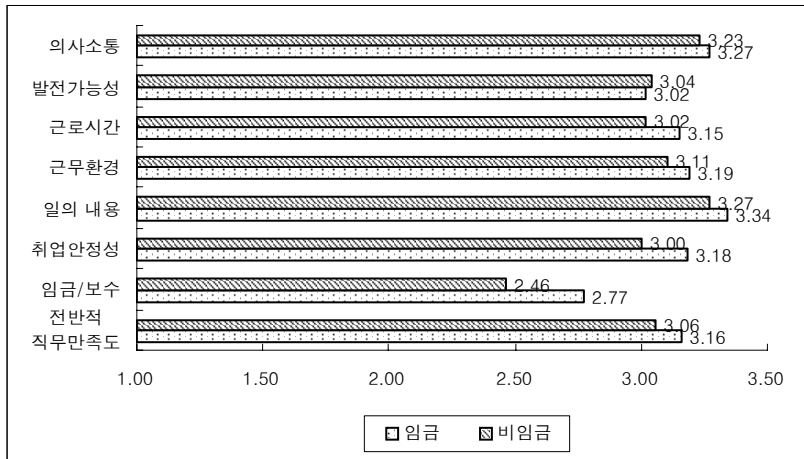
〔그림 8-9〕 성별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 :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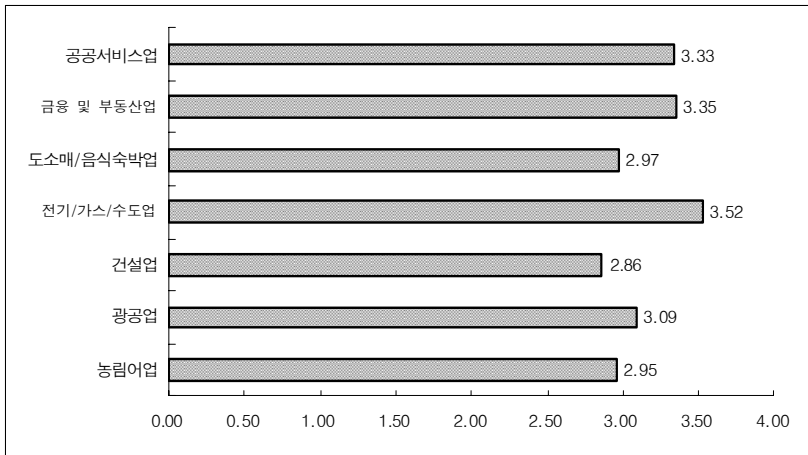
[그림 8-11]과 [그림 8-12]는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를 산업 및 직업별로 비교하여 그린 것이다. [그림 8-11]은 산업별로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전기/가스/수도업에 종사하는

41) 임금근로자만 응답한 인사고과의 공정성(2.97점), 복지후생제도(2.79점) 항목은 비교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다.

[그림 8-10] 고용형태별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 :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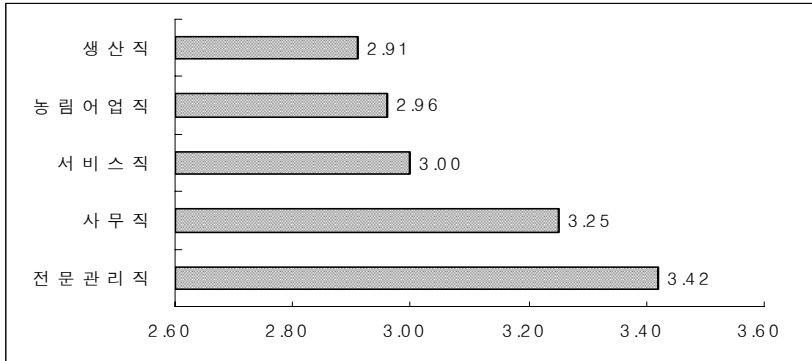
[그림 8-11] 산업별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 : 2005년



응답자의 직무 만족도는 3.52점으로 가장 높고, 금융 및 부동산업 종사자는 3.35점으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농림어업 및 건설업 종사자들은 다른 산업에 비해 직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

다음의 [그림 8-12]는 직업별로 직무 만족도 점수를 보여준 것이다. 그림에서 전문관리직 종사자는 3.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산직 종사자는 2.9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8-12〕 직업별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 : 2005년



2. 직무불일치와 기술(기능)의 유용성

KLIPS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취업자들에게 현재의 일자리에서 일의 내용이 본인의 교육수준이나 기술(기능)수준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 인지를 조사하였다. 2차년도 조사부터 실시한 질문은 “현재 주로 하는 일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본인의 교육수준이나 기술(기능)수준과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있다. 응답 문항은 2차년도에만 3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3차년도부터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여기에서는 다시 3점 척도로 변경하여 과잉(수준이 매우 낮다+수준이 낮은 편이다), 적합(수준이 맞다), 과소(수준이 높은 편이다+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다)로 표기하였다.

이와 함께 KLIPS는 3차년도 조사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기능)의 유용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이에 관한 질문은 “현재의 일자리에서 일하면서 배운 지식이나 기능·기술은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직장에 들어갈 경우 얼마나 유용합니까?”라고 묻고 있으며 “① 현 직장에서의와 거의 똑같이 유용하다, ② 부분적으로만 유용하다, ③ 거의 쓸모가 없다, ④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다”로 문항이 구성되었다.

<표 8-3>과 <표 8-4>는 2005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기술(기능)수준의 직무불일치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 8-3>에서 보듯이 취업자 10명 중 2명 정도(19.8%)는 하향취업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표 8-3〉 인구학적 특성별 교육불일치 결과 : 2005년

(단위 : %)

		과잉(over)	적합(fit)	과소(under)
전 체		19.8	78.6	1.6
성 별	남 성	20.8	77.7	1.6
	여 성	18.3	80.1	1.7
연 령	20~29세	23.0	74.8	2.2
	30~39세	19.1	78.8	2.2
	40~49세	21.6	77.0	1.4
	50~59세	15.4	83.6	1.0
	60세 이상	18.5	80.6	0.9
교 육 수 준	고졸 미만	14.4	85.4	0.2
	고 졸	22.0	76.4	1.6
	대재 및 중퇴	39.3	60.2	0.5
	전문대졸	20.6	76.6	2.9
	대졸 이상	18.0	79.6	2.5

나타난다. 성별로는 남성(20.8%)이 여성(18.3%)에 비해 과잉교육의 비중이 높고,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과잉교육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교육수준별로는 대학 재학 및 중퇴자를 제외하고 고졸자의 하향취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대졸자들의 하향취업 현상이 고졸자들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짐작된다.

이어서 <표 8-4>는 기술(기능) 불일치 정도를 알아본다. 표에서 보듯이 취업자 중 18.4%가 직무에 비해 기술(기능)수준이 과잉으로 나타난다. 성별로는 교육불일치와 유사하게 남성(19.2%)이 여성(17.4%)보다 과잉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교육수준별로도 젊을수록, 대학 재학 및 중퇴인 경우에 과잉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인구학적 특성별로 기술(기능) 유용성에 관한 응답 경향을 <표 8-5>를 통해 살펴본다. 성별로는 본인의 기술(기능)이 유용하다는 응답비중(똑같이 유용+부분 유용)의 경우 남성(84.7%)이 여성(77.7%)보다 7.0%p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의 경우가 유용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8-4〉 인구학적 특성별 기술(기능) 불일치 결과 : 2005년

(단위 : %)

		과잉(over)	적합(fit)	과소(under)
전 체		18.4	80.1	1.5
성 별	남 성	19.2	79.3	1.5
	여 성	17.4	81.3	1.4
연 령	20~29세	20.6	77.8	1.6
	30~39세	18.7	79.0	2.3
	40~49세	19.4	79.5	1.1
	50~59세	14.5	84.4	1.1
	60세 이상	18.3	80.8	0.9
교 육 수 준	고졸 미만	14.4	85.4	0.2
	고 졸	20.4	77.9	1.7
	대재 및 중퇴	36.1	63.7	0.2
	전문대졸	19.0	79.1	2.0
	대졸 이상	16.1	81.7	2.2

〈표 8-5〉 인구학적 특성별 기술(기능) 유용성 결과 :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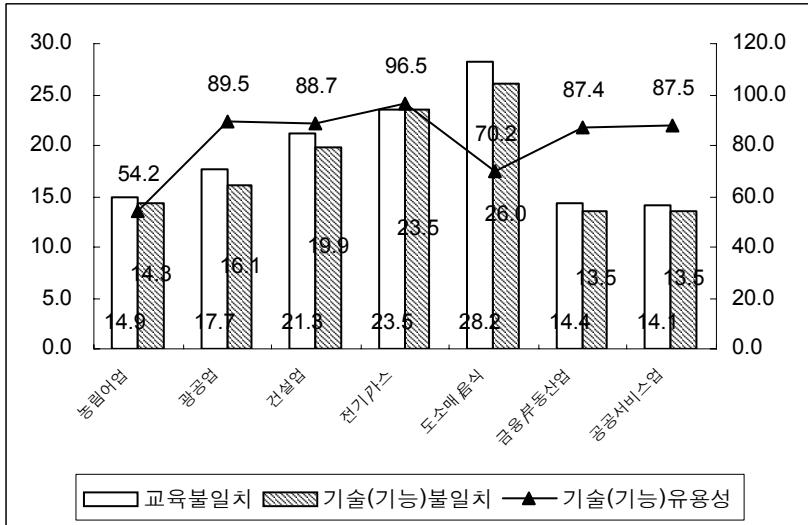
(단위 : %)

		똑같이 유용	부분 유용	거의 쓸모 없음	특별한 기술/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일자리 아님
전 체		52.7	29.2	9.8	8.3
성 별	남 성	55.6	29.1	8.4	7.0
	여 성	48.4	29.3	12.0	10.3
연 령	20~29세	53.3	33.6	7.5	5.7
	30~39세	56.3	31.9	7.1	4.7
	40~49세	54.6	28.2	10.2	7.0
	50~59세	49.9	26.7	11.6	11.9
	60세 이상	40.2	21.6	17.6	20.6
교 육 수 준	고졸 미만	44.5	23.6	16.6	15.3
	고 졸	50.5	32.0	9.3	8.3
	대재 및 중퇴	46.2	34.0	11.8	8.1
	전문대졸	58.1	29.7	6.8	5.4
	대졸 이상	62.8	29.6	4.8	2.8

[그림 8-13]과 [그림 8-14]는 산업 및 직업별로 직무 불일치와 기술(기능) 유용성의 분포⁴²⁾를 그린 것이다. [그림 8-13]에서 보듯이 직무불일치도가 가장 높은 산업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이고, 가장 낮은 것은 공공서비스업이다. 농림어업은 기술(기능) 유용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산업이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직무불일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이며, 기술(기능) 유용성도 높지 않게 나타났다. 반면 공공서비스업은 직무불일치 비중이 낮게 나타났고, 동시에 기술(기능) 유용성 비중도 매우 높게 나타나, 직무 불일치도가 매우 높은 산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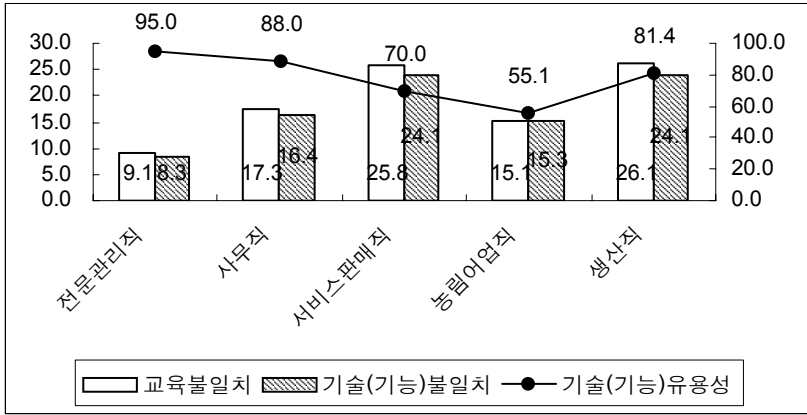
이어서 [그림 8-14]는 직업별 분포를 보여준다. 전문관리직 종사자들은 직무불일치는 가장 낮게, 기술(기능)의 유용성은 가장 높게 나타나 직무 불일치도가 높은 직업으로 분석됐다. 반면 서비스판매직 및 생산직의 경우 직무불일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농림어업직은 기술(기능) 유용성이 가장 낮은 직종으로 55.1%만이 현재 일자리의 기술이 다른 일자리에 들어갈 경우에도 유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림 8-13] 산업별 직무불일치 및 기술(기능) 유용성 비교 : 2005년



42) 직무불일치 비중은 “교육 혹은 기술수준이 직무보다 높을 때(과잉)의 비중”을 의미하며, 기술유용성은 “똑같이 유용+부분 유용의 비중”을 의미한다.

[그림 8-14] 직업별 직무불일치 및 기술(기능) 유용성 비교 : 2005년



3. 조직 몰입도 및 직무 만족도

이제 개인들이 얼마나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일자리)과 하는(말은) 일에 헌신하는지의 정도를 인구학적 특성 및 직업별로 살펴본다. 조직몰입과 직무몰입은 두 가지 개념 모두 직장인의 가치태도를 묻는 것으로, 조직몰입은 일과 관계없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며, 직무몰입은 회사에 대한 태도가 아닌 자신이 맡고 있는 일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KLIPS에서는 2002년 5차년도 조사부터 설문 문항에 취업자를 대상으로 조직몰입에 관한 다섯 문항을 추가하고 있다. 이에 관한 질문은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직장(일자리)에 대한 ___님의 평소 생각은 어떠하십니까?”라고 묻고 있으며, “①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장(일자리)은 다닐 만한 좋은 직장이다, ② 나는 이 직장(일자리)에 들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③ 직장(일자리)을 찾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나는 이 직장을 추천하고 싶다, ④ 나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일자리)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 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이 직장(일자리)을 계속 다니고 싶다”의 다섯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직몰입과 더불어 5차년도 조사부터 취업자를 대상으로 직무만족에 관한 설문 문항이 추가되었다. 질문 문항은 “현재 주로 하시는(맡고 계시는) 일에 대한 ___님의 평소 생각은 어떠하십니까?”라고 묻고 있으며,

〈표 8-6〉 인구학적 특성별 조직 몰입도 및 직무 만족도 점수 결과 : 2005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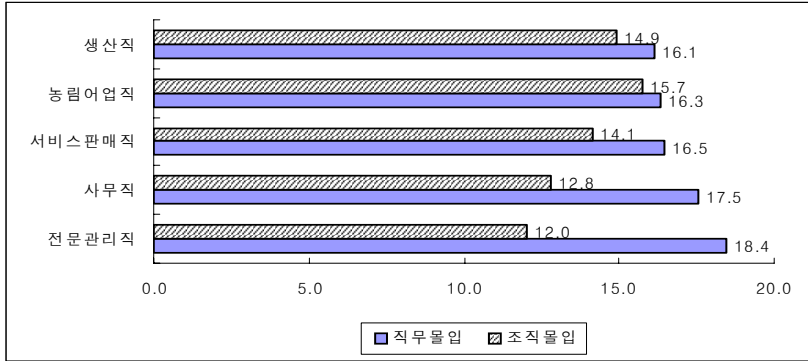
		조직 몰입도	직무 만족도
전 체		13.6	17.0
성 별	남 성	13.6	17.0
	여 성	13.5	17.0
연 령	20세 미만	13.0	18.4
	20~29세	13.5	17.4
	30~39세	13.3	17.4
	40~49세	13.8	16.9
	50~59세	13.8	16.5
	60세 이상	14.5	16.4
교 육 수 준	고졸 미만	15.1	15.7
	고 졸	14.2	16.8
	대재 및 중퇴	13.9	17.2
	전문대졸	13.1	17.3
	대졸 이상	12.0	18.5

“① 나는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 ② 나는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③ 나는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다, ④ 나는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을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다, 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와 같이 다섯 문항으로 구성하며 5점 척도로 묻고 있다. 본 분석에서 제시된 결과는 다섯 문항에 대한 합으로 측정하였다.

8차년도를 대상으로 인구학적 특성별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 점수를 <표 8-6>에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조직몰입의 분석 결과를 보면 성별로는 여성(13.5점)과 남성(13.6점)의 조직 몰입도 점수에 차이가 없게 나타난다. 연령별로는 20~30대의 조직몰입도가 낮은 반면 60세 이상(14.5점)은 높게 나타나고 있어 대비되는 양상을 보인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조직몰입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

이어서 직무 만족도의 결과를 살펴본다. 성별로는 남성(17.0점)과 여성(17.0점)의 직무 만족도 점수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조직 몰입도 점수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림 8-15〕 직업별 조직 몰입도 및 직무 만족도 점수 비교 : 2005년



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직무만족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 한편 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고용형태별로는 임금근로자(17.2점)가 비임금근로자(16.9점)에 비해서 직무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8-15〕에서는 조직몰입 및 직무몰입 점수를 직업별로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관리직의 경우 조직 몰입도와 직무 만족도 점수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대립양상을 보여준다.

제 3 절 생활과 건강

이 절에서는 개인의 건강 생활에 관련된 문항들을 살펴본다. KLIPS는 4차년도 조사에서 건강과 은퇴에 관한 부가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이후 5차년도에는 건강 생활에 관한 문항들을 질문하지 않았으나, 6차년도 조사부터 핵심적인 문항을 중심으로 본 조사(개인용 설문과 신규용 설문)에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KLIPS가 포함하고 있는 건강 관련 문항들은 전반적인 건강상태, 장애 및 육체적 제약 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각 사항들은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표 8-7〉 인구학적 특성별 전반적 건강상태 : 2005년

(단위 : %)

		건강함	보통임	건강하지 않음
전 체		50.7	33.6	15.7
성 별	남 성	55.8	31.4	12.8
	여 성	45.9	35.7	18.4
연 령	20세 미만	79.8	18.9	1.2
	20~29세	72.3	24.5	3.3
	30~39세	60.0	34.0	6.0
	40~49세	49.0	40.4	10.6
	50~59세	37.0	41.0	22.0
	60세 이상	19.1	34.5	46.4
교 육 수 준	고졸 미만	35.3	34.0	30.7
	고 졸	51.8	36.7	11.5
	대재 및 중퇴	74.9	21.3	3.9
	전문대졸	64.7	31.4	3.9
	대졸 이상	60.5	34.5	4.9

KLIPS에서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관련된 문항은 아주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건강이 아주 안 좋다 등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2005년을 대상으로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표 8-7>로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50.7%가 건강한 편이다(아주 건강+건강)라고 응답했으며, 건강하지 않다(건강하지 않음+건강이 아주 안 좋음)는 응답은 15.7%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자신이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55.8%로 여성의 응답 비중 45.9%보다 9.9%p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하다는 응답의 비중(20세 미만 79.8%→60세 이상 19.1%)은 현격하게 감소하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응답자(20세 미만 1.2%→60세 이상 46.4%)가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학력별로는 고졸 미만인 경우에 건강하지 못하다는 응답(30.7%)이 가장 높았고, 대학 재학 및 중퇴자의 경우가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중(74.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대학 재학 및 중퇴자일 경우 청년층의 비중이 높고 고졸 미만인 경우에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학력에 따

〈표 8-8〉 가구 소득수준별 건강상태 비교 : 2005년

(단위 : %)

	전반적 건강상태			장애/육체적 제약 유무	
	건강함	보통	건강하지 않음	있음	없음
100만원 미만	29.7	30.9	39.4	70.1	29.9
100만~200만원	50.0	33.5	16.5	90.9	9.1
200만~500만원	55.2	35.3	9.4	94.5	5.5
500만원 이상	62.0	30.6	7.4	96.7	3.3

른 차이라기보다는 연령으로 인한 차이일 가능성이 높다.

〈표 8-8〉에서 보듯이 가구의 소득수준별로 개인의 건강상태를 비교해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상태도 좋은 것으로 분석된다. 가구의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39.4%가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데 반해,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단지 7.4%만이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장애 혹은 육체적 제약이 있습니까” 질문에 대해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70.1%가 그렇다고 응답해 높은 비중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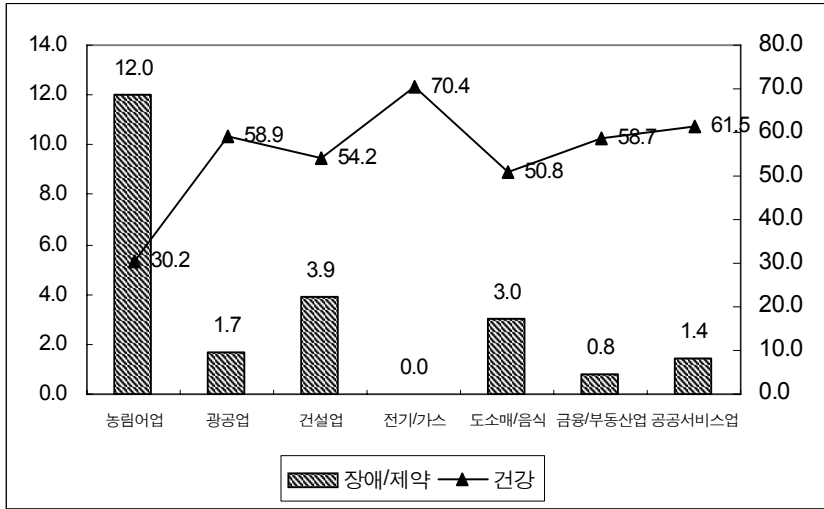
[그림 8-16]과 [그림 8-17]은 산업별과 직종별로 건강상태를 살펴본 것이다. 그림에 의하면 농림어업직일 경우 전반적 건강상태가 좋다는 응답은 30.2%에 불과했으며,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에 제약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2.2%로 가장 건강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전기/가스/수도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의 장애나 제약을 느낀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며,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산업도 전기/가스/수도업(70.4%)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도 농림어업직의 경우가 다른 직종에 비해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농림어업직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다는 응답은 단지 31.1%에 그쳤으며, 12.8%가 일상적인 활동에 장애를 느낀다고 대답하였다.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직종은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농림어업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건강상태

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은 대체로 이들이 강한 육체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 종사자의 상당 부분이 고령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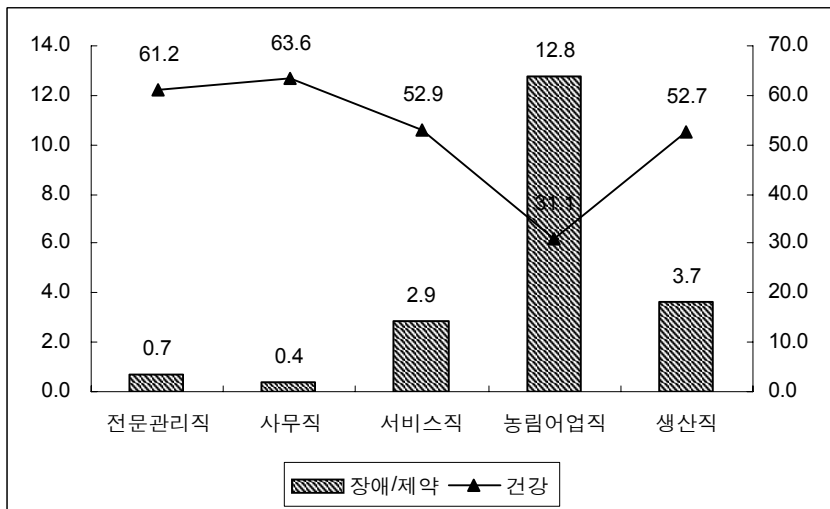
[그림 8-16] 산업별 건강상태 비교 : 2005년

(단위 : %)



[그림 8-17] 직종별 건강상태 비교 : 2005년

(단위 : %)



제 9 장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부가조사

한국노동패널(KLIPS)에서는 당해 주요한 이슈에 대한 심층조사로 부가조사를 하고 있다. 3차년도(2000년)에는 만30세 미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교육 및 경제활동에 대한 심층조사가 이루어졌고, 4차년도(2001년도)에는 ‘건강과 은퇴’의 주제로 만15세 이상 개인의 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노동시장의 활동과 연계된 내용이 다루어졌다. 6차년도(2003년)에는 만50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은퇴자의 은퇴생활과 비은퇴자의 은퇴계획 및 노후생활 준비 그리고 가족관계 및 경제적 부양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7차년도(2004년)에는 근로시간과 여가를 주제로 일자리에서의 시간배분과 결정과정, 휴가, 일상에서의 시간배분과 여가생활에 대해 조사하였다. 8차년도(2005년)에는 노동조합과 노사관계를 주제로 노사관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일자리에서의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인적자원관리 등 노사관계 실태를 조사하였다.

제 1 절 노동조합 가입

KLIPS는 8차년도 부가조사와는 별도로 노동조합이 회사에 있는지, 노동조합원인지 등을 묻는 간단한 설문을 이미 유형설문지에 담고 있었

다.⁴³⁾ 8차년도 유형설문지를 기준으로 설문 구성을 보면, 먼저 직장에 노동조합이 존재하는지를 질문한 후, 직장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지를 묻는다.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왜 가입하고 있지 않은지를 질문한다. 직장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직장에 노동조합이 생길 경우를 가정할 때 가입을 원하는지를 질문한다. 이와 같은 설문구성 체계는 3차년도에 확정된 것으로 1차년도와 2차년도에는 직장에 노동조합이 있는지, 노동조합원인지 정도를 질문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다.

부가조사에서는 노동조합 참가 성향 분석을 보다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위의 문항들을 더욱 확장하여 조합원을 위해서는 탈퇴할 의향이 있는지, 비조합원을 위해서는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추가로 질문하였으며, 노동조합 가입에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되어 온 평소의 정치사회적 가치관, 노조가 근로조건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노조 도구성 인식 등의 설문도 포함하였다. 노동조합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조합원이 아니라면 조합원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얼마나 활동할 것 같은지도 질문하였다.

본 절에서는 노동조합 가입과 관련하여 전체 근로자 중 사업체에 노조가 있는 사람들의 비중, 조합원 추이, 노동조합 탈퇴 성향과 가입 성향을 간단히 분석해 보겠다.

먼저, <표 9-1>은 8차년도 유형설문을 기준으로 사업체에 노조가 있는 근로자 비중을 분석하고 있다. 노조가 있는 사업체(기업)에 근무하고

<표 9-1> 사업체 노조 유무 × 노동조합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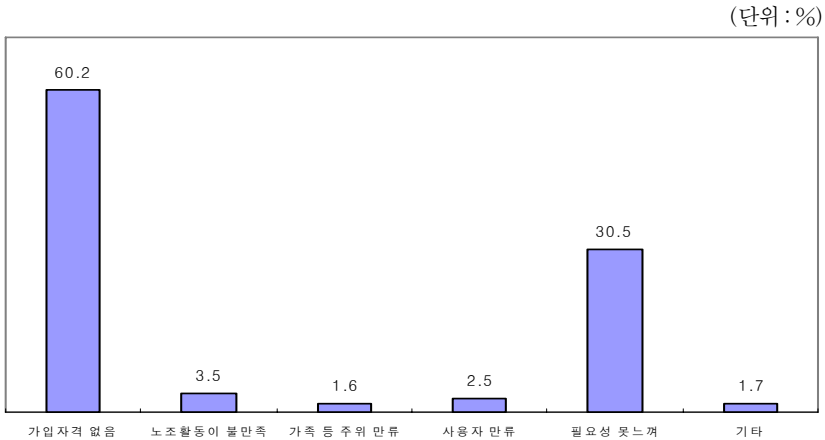
(단위:%)

사업체 노조 유무		노조원 여부	
노조 있다	22.2	노조원이다	50.2
		노조원 아니다	49.6
노조 없다	76.4	-	
모른다	1.4		
전 체	100	전 체	99.8

주 : 노조원이다+노조원 아니다=99.8%인 이유는 항목 무응답 때문.

43) 유형설문지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던 1차년도의 경우에는 임금근로자 설문에 들어 있었다.

[그림 9-1] 유노조 사업체의 비조합원들의 노조 비가입 이유



있는 근로자 비중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22.2%로 나타났다. 이들을 100으로 놓을 때 노조원인 사람은 50.2%였고, 노조원 아닌 사람은 49.6%였다(표 9-1 참조). 이 49.6%에 해당하는 비조합원들의 노조 비가입 이유를 [그림 9-1]에서 보면, 전체의 60.2%가 가입자격이 없어서 가입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30.5%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 가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노조활동에 불만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5%였다.

<표 9-2>에서는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를 살펴보았다. 표의 KLIPS 조직률 추이는 유형설문을 통해 1차년도부터 조사되어 온 노동조합 가입 여부 문항을 이용하여 계산한 것이다. KLIPS의 조직률 추이를 보면 1998년 14.9%, 1999년 11.9%, 2000년 13.4%로 조사 초기에는 수치가 다소 불안하게 움직이지만, 그 이후로는 10~11% 안팎의 안정적인 조직률 추이를 보여준다. KLIPS가 1998년 도시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표집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첫째 줄의 비농가 상시근로자수를 분모로 하여 계산한 조직률 추이와 비슷한 규모를 보여야겠지만,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농촌 지역으로 이동하는 가구들이 많이 나타나므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둘째 줄의 전체 임금근로자수 대비 조직률 추이와 유사해 지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KLIPS의 조직률 추이가 다른 통계치와 대략 유사한 값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9-2〉 KLIPS와 노동부 및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비교
(단위 :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KLIPS 조사연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노동부집계조합원수 +비농가상시근로자수	13.7	14.7	14.3	14.2	13.5	13.0	12.4	-
노동부집계조합원수 +전체 임금근로자수	11.4	11.7	11.4	11.5	10.8	10.8	10.3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	-	-	-	-	-	11.4	12.4	11.8
KLIPS	14.9	11.9	13.4	11.7	10.2	11.6	10.5	11.1

주 : KLIPS 통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2006 KLI 노동통계』(한국노동연구원 간행)에서 인용.

〈표 9-3〉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탈퇴 및 가입 의향

(단위 : %)

노조원	조합원으로 남겠다	탈퇴하고 싶다	전 체
	89.7	10.3	100.0
비노조원	가입하고 싶다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	전 체
	35.6	64.4	100.0

주 : 비노조원 중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에는 부가설문 문3의 가입할 의사가 별로 없다, 가입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 외에도 문2-8에 “가입자격이 있지만 가입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을 포함하였다.

〈표 9-3〉에서는 노조원인 사람들에게는 노동조합 탈퇴 의향을, 비노조원인 사람들에게는 노동조합 가입 의향을 질문한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비노조원이란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의 비노조원과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의 근로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노조원인 사람들은 절대다수가 그대로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있는 것은 비노조원의 결과인데, 35.6%가 노조 가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껏해야 1/3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겠지만, 노조 가입의 장벽이 없어져 이 사람들이 모두 노조에 가입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현행 11% 정도에서 무려 42.4%로 상승하게 된다. 노조원 중 탈퇴 희망자도 있으므로, 탈퇴 희망자는 탈퇴하고 가입 희망자는 가입한다면 41.3%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상승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볼 때, 사용자들의 노조 결성 반대 등 노조 가입에 존재하는 장애물들이 산별노조로의 재편 등 노조 조직구조 재편과정에서 상당히 완화된다면 노동조합을 원하나 가입할 수 없어 좌절되어 있던 수요들이 폭발적인 노조 가입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제 2 절 노사협의회

부가조사에서는 노사협의회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노사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관심이 있는지, 실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노사관계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식으로 근로자측 대표를 선정하는지 등을 14개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부가조사를 분석해 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76.4%는 사업체에 노사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단지 14.4%만이 노사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9.2%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법적으로는 3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자기가 다니는 회사는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50.2%는 법적 설치 의무가 없는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다니고 있었다. 나머지는 노사협의회와 관련된 법을 어기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는 여기서 알 수가 없다. 운영이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거나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면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체 조사가 아니므로, 정확한 수치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표 9-4>에서는 사업체 노조 유무별로 노사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사업체에 노조가 있으면 노사협의회도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조가 없을 경우 노사협의회도 운영되고 있지 않을—또는 유명무실할—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협의회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노사협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여덟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질문해 보았다. <표 9-5>에 결과가 요

〈표 9-4〉 노조 유무별 노사협의회 운영 여부

(단위:%)

	노사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아니다	모른다	전 체
노조 있다	58.1	22.0	19.9	100.0
노조 없다	3.0	90.9	6.1	100.0

〈표 9-5〉 노사협의회 잘 운영되고 있는지

	평균
1. 노사협의회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도움이 된다.	2.43
2. 노사협의회는 직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2.52
3. 노사협의회는 직장에서 근로기준법 준수에 도움이 된다.	2.47
4.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측 위원은 전체 근로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한다.	2.62
5. 노사협의회는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2.68
6. 노사협의회는 근로자들이 기업의 경영정보를 얻는데 기여하고 있다.	2.67
7. 노사협의회는 회사에 대한 근로자들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2.68
8.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논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2.74

〈표 9-6〉 나의 직장에 노조와 노사협의회가 필요한지

(단위:%)

	비중
노조와 노사협의회 둘 다 필요 없다.	32.0
노조만 있으면 된다.	11.3
노사협의회만 있으면 된다.	5.0
노조와 노사협의회 둘 다 필요하다.	25.5
모르겠다.	26.2

약되어 있는데, 5점 척도 문항들로 1점이 매우 그렇다, 5점이 전혀 그렇지 않다, 3점이 보통(그저 그렇다)이므로, 3점 미만으로 평균점수가 나올 경우 잘 운영되고 있다는 편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2.43~2.74점이므로, 노사협의회는 기능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나의 직장에 노조와 노사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노조와 노사협의회 둘 다 필요 없다는 응답이 32.0%를 차지했고, 노조만 있으면 된다 11.3%, 노조와 노사협의회 둘 다 필요하다는

〈표 9-7〉 노조 유무별 노조와 노사협의회가 필요한지

(단위:%)

	노조 있다	노조 없다
노조와 노사협의회 둘 다 필요 없다.	9.2	38.1
노조만 있으면 된다.	13.3	10.8
노사협의회만 있으면 된다.	4.2	5.3
노조와 노사협의회 둘 다 필요하다.	56.7	17.5
모르겠다.	17.6	28.3
전 체	100.0	100.0

〈표 9-8〉 노사협의회 유무별 노조와 노사협의회가 필요한지

(단위:%)

	노사협의회 운영되고 있다	아니다	모른다
노조와 노사협의회 둘 다 필요 없다.	4.5	39.5	13.1
노조만 있으면 된다.	7.3	12.1	10.4
노사협의회만 있으면 된다.	8.6	4.4	4.9
노조와 노사협의회 둘 다 필요하다.	69.0	16.7	30.2
모르겠다.	10.6	27.3	41.4
전 체	100.0	100.0	100.0

응답은 25.5%로 나타났다. 노사협의회만 있으면 된다는 응답은 5.0%였다.

〈표 9-7〉에서는 위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노조 유무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둘 다 필요 없다는 응답이 9.2%에 불과했으며, 노조와 노사협의회가 둘 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은 56.7%였다. 반면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둘 다 필요 없다는 응답이 38.1%로 높게 나타났으며, 둘 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17.5% 뿐이었다. 판단하지 못하겠다는 응답도 28.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대표기구든 필요하다는 응답이 33.6%(=10.8+5.3+17.5)인 셈이므로 노조가 있는 경우에 비해서는 그 필요성을 낮게 느꼈지만, 만만치 않은 인구가 대표기구를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8〉에서는 노사협의회 유무별로 살펴 보았다. 노조 유무별 결과

와 유사하게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대표기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고, 없는 경우에는 둘 다 필요 없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왔다. 대표기구의 경험이 없으므로 모르겠다는 응답도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왔다.

제 3 절 인적자원관리와 근로자대표제도

부가조사는 회사의 인적자원관리와 근로자참여 제도에 대한 질문도 포함하고 있다. 어떤 제도가 존재하는지, 내실있는 운영 여부, 직장에 이런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직장에서 업무나 복리후생 등과 관련하여 개별 근로자들이 행사하는 영향력 정도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또한, 직장에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불만을 느끼고 있는지, 불만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해소하는지도 임금, 근로시간, 노동강도, 승진, 고용계약의 연장 등 11가지 항목을 이용해 조사하였다.

본 절에서는 문 15.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이외에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논의하는 통로가 있는지, 문 16. 제안제도 등 근로자참여제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간단히 기초통계를 뽑는 것으로 내용 소개를 대신하겠다.

〈표 9-9〉 문 15-1.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논의하는 통로 존재 유무

(단위:%)

	있음		없음	전 체
	공식적인 제도로 있음	비공식적인 제도로 있음		
최고 책임자와 전직원이 함께하는 모임	11.8	13.1	75.1	100.0
차상급자 이상의 관리자에게 찾아가 요구할 수 있는 통로	9.8	20.2	70.0	100.0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이외의 근로자 대표 모임	11.0		89.0	100.0

<표 9-9>에서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논의하는 통로에 대한 질문을 분석하고 있다.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질문했는데, 최고 책임자와 전직원이 함께하는 모임이 있는지, 직속상관 위에 있는 차상급자 이상의 관리자에게 찾아가 요구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지,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이외의 근로자 대표 모임이 있는지가 그것이다. 세 제도 각각이 공식적 제도로 있다는 응답은 10% 내외였으며, 비공식적인 제도로 있다는 응답까지 합치면 순서대로 24.9%, 30%, 11%가 있다고 응답했다. “없음”에 응답한 사람은 70% 이상이었다. 이는 상당히 많은 수치이지만, 해석상주의를 요한다. 별도의 매개 없이 기업주와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패널 응답자가 절반 정도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 9-10>에서는 각 제도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람과 그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합치면 긍정적인 답변이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1>에서는 해당 제도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뿐 아니라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도 각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필요 없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그렇지만, 앞서 지적했듯 이 수치는 사업체 규모를 통제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앞서 해당 제도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각각 24.9%, 30%, 11%였던 데에 반해 필요하다고

<표 9-10> 문 15-2. 해당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단위 : %)

	매우 그림	그런 편	그렇지 않은 편	전혀 아님	전 체
최고 책임자와 전직원이 함께하는 모임	5.7	67.0	25.6	1.8	100.0
차상급자 이상의 관리자에게 찾아가 요구할 수 있는 통로	3.7	65.0	29.7	1.5	100.0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이외의 근로자 대표 모임	6.5	75.8	17.4	0.3	100.0

〈표 9-11〉 문 15-3. 해당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단위:%)

	매우 그림	그런 편	그렇지 않은 편	전혀 아님	전 체
최고 책임자와 전직원이 함께하는 모임	5.4	39.1	36.1	19.4	100.0
차상급자 이상의 관리자에게 찾아가 요구할 수 있는 통로	5.5	43.6	32.0	18.9	100.0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이외의 근로자 대표 모임	4.0	32.5	41.7	21.8	100.0

〈표 9-12〉 정기적인 팀(반, 부서) 회의

(단위:%)

존재 여부	있다		없다		전체
	42.7		57.3		100.0
내실있는 운영 여부	매우 그림	그런 편	아닌 편	매우 아님	전체
	8.3	78.5	13.1	0.2	100.0
근로조건 관련 주제 논의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44.7		55.3		100.0
필요성 여부	반드시 필요	필요한 편	별로 불필요	전혀 불필요	전체
	6.1	44.8	32.3	16.9	100.0

생각하는 사람들은 44.5%, 49.1%, 36.5%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관련 제도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갖고 있지 못한 공급-수요의 괴리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인적자원관리체제로서 정기적인 팀 회의가 존재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절반 가까운 42.7%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존재한다고 말한 사람들은 86.8%가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해 운영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로조건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람은 절반 정도였으며,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가 필요하냐고 질문했을 때, 절반 정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품질개선, 생산성 향상, 고객불만 등의 문제해결 및 개선을 위한 태스

크로스 팀 활동과 같은 소집단 활동이 존재한다는 응답자는 28.7%였다. 존재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대체로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근로조건 관련 주제가 논의된다는 응답은 절반을 조금 넘었다.

〈표 9-13〉 소집단 활동

(단위:%)

존재 여부	있으며, 참여함		있지만, 참여 안함		없음	전체
	21.7		7.0		71.3	100.0
내실있는 운영 여부	매우 그림	그런 편	아닌 편	매우 아님		전체
	10.8	75.8	13.3	-		100.0
근로조건 관련 주제 논의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52.8		47.2			100.0
필요성 여부	반드시 필요	필요한 편	별로 불필요	전혀 불필요		전체
	5.5	39.4	35.9	19.1		100.0

직장생활의 애로나 고충을 최고 책임자에게 직접 청원 또는 소원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30%의 응답자가 있다고 했다.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대체로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했으며, 전체 응답자 중 과반수 조금 넘는 사람들이 필요한 제도라고 응답했다.

〈표 9-14〉 청원 통로

(단위:%)

존재 여부	공식적 제도로 있음		비공식적 제도로 있음		없음	전체
	10.8		19.2		70.0	100.0
내실있는 운영 여부	매우 그림	그런 편	아닌 편	매우 아님		전체
	5.5	67.8	24.7	2.0		100.0
필요성 여부	반드시 필요	필요한 편	별로 불필요	전혀 불필요		전체
	7.2	48.7	27.1	17.1		100.0

회사 운영, 근로조건 등 회사 전반에 대한 공식적인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22.1%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대체로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

했다. 근로조건 관련 주제도 제안에 포함된다는 비율은 61.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제안 빈도는 가끔한다는 사람이 가장 많은 49.8%였으며, 거의 안 해보았다는 사람도 33.7%나 되었다.

〈표 9-15〉 제안 제도

(단위:%)					
존재 여부	있음		없음		전체
	22.1		77.9		100.0
내실있는 운영 여부	매우 그림	그런 편	아닌 편	매우 아님	전체
	6.6	78.2	14.5	0.8	100.0
근로조건 관련 주제 논의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61.4		38.6		100.0
필요성 여부	반드시 필요	필요한 편	별로 불필요	전혀 불필요	전체
	5.9	42.8	33.0	18.4	100.0
제안 빈도	자주	가끔	거의 안함	한번도 안함	전체
	6.5	49.8	33.7	10.0	100.0

제 4 절 노동조합에 대한 의견

부가조사는 노동조합에 대한 여론 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여론 조사에서는 노동조합의 근로조건 영향력, 노동조합이 선거나 법률 제정 등에 미치는 영향력, 사회경제적 역할, 기타 노동조합의 역할들에 대해 모든 패널 참가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노동조합의 근로조건 영향력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은 <표 9-16>에서 처럼 세 가지로 나누어 측정해 보았다. 5점 척도 설문이며, 1은 매우 동의, 5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이다. 3이 보통이므로 점수가 3점을 넘을 경우 동의하지 않는 의견에 더 가까운 것이고, 3점 미만일 경우에는 동의하는 의견에 더 가까운 것이다. 전체 응답자 평균을 보면 3점을 넘어 동의하지 않는 의견에 더 가까운 의식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동

〈표 9-16〉 문 23. 노동조합의 근로조건 영향력

	노조원	전체
노동조합은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한다.	2.66	3.20
노동조합은 근로자를 해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	2.64	3.20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시킨다.	2.47	3.04

〈표 9-17〉 임금근로자 임금분위별 노동조합의 근로조건 영향력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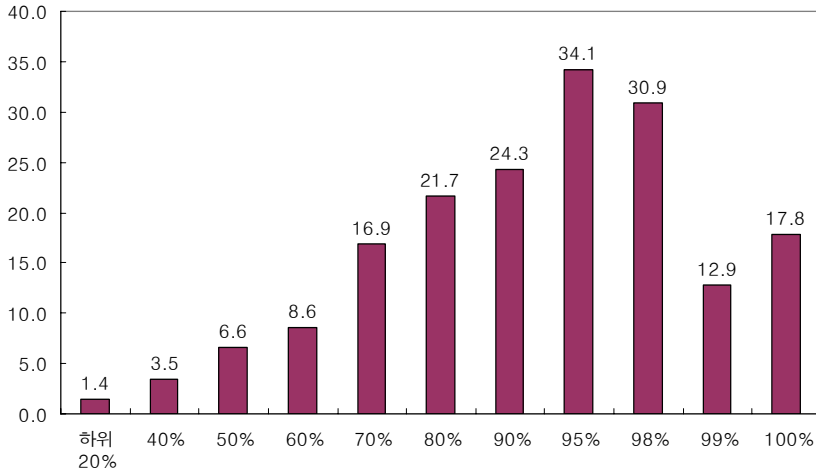
	하위 20%	40 %	50 %	60 %	70 %	80 %	90 %	95 %	98 %	99 %	100 %	전 체
1. 노동조합은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한다.	3.1	3.0	3.0	3.1	2.9	2.8	2.9	2.8	2.8	2.7	3.3	3.0
2. 노동조합은 근로자를 해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	3.2	3.0	3.1	3.0	2.9	2.7	2.9	2.8	2.7	2.7	3.3	3.0
3.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시킨다.	3.0	2.9	2.9	2.8	2.8	2.6	2.7	2.5	2.6	2.4	3.2	2.8

조합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노조원의 경우 동의하는 의견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험의 차이가 노동조합의 유용성에 대해 상이한 의식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근로조건 영향력에 대한 인식은 노동조합에의 참가 결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평가된다. 근로조건 영향력은 보통 학계에서는 노동조합의 도구성 인식이라는 용어로 번역되곤 하는데, 이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노동조합에 참가할 성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서는 임금근로자의 임금분위별로 근로조건에 대한 영향력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흥미 있게도 하위 20% 이하, 21~40% 같은 저임금 계층보다 61~99%의 계층이 더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임금근로자의 상위 1%는 그 어느 계층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하위나 최상위보다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가

[그림 9-2] 임금 근로자의 임금 분위별 노조원 비율

(단위: %)



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 활발히 조직되던 시기에 제3차 개입금지 등의 영향으로 노조가 기업의 수준을 넘어 산업별이나 지역별로 조직되지 못하고 기업별 조직으로 남은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기업별로 조직이 되다 보니 근로조건이 좋지 않으나 기업주의 영향력이 매우 강해 노동조합을 만들기는 어려운 소규모 기업보다 중대규모 기업 위주로 노조가 발달했고, 그러다 보니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위주로 노동조합이 조직되고, 노동조합이 도움이 되었다는 간접적인 경험도 그런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이 공유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는 임금분포별로 노동조합원 비율을 계산해 보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91~95%에 속하는 소득이 높은 임금근로자 중 노조원 비율이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 20% 이하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겨우 1.4%만이 노조원이었다.

<표 9-18>은 노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은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낮다는 것이었다. 노조원의 경우에도 선거에 대한 영향력, 지도부가 조합원의 의사결정에 대해 갖는 영향력을 제외하면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18〉 문 24. 노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노조원	전체
노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 각종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	2.96	3.34
노조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	3.08	3.42
노조는 고용주보다 힘이 세다.	3.51	3.67
노조는 국정운영방식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	3.25	3.50
노조는 지도부는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	2.86	3.30

〈표 9-19〉 문 25. 노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역할

	노조원	전체
노동조합은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2.78	3.34
노동조합은 분배구조 개선에 기여한다.	2.80	3.37
노동조합은 정치적 민주화에 기여한다.	2.97	3.45

〈표 9-20〉 문 26. 노동조합에 대한 견해

	노조원	전체
노조들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에는 힘이 너무 없다.	2.95	3.38
노조들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3.53	3.52
노조들은 기업의 성장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3.64	3.63
노조가 없는 기업에 비해 노조가 있는 기업의 도산 가능성이 높다.	3.65	3.59
노조 때문에 근로자와 기업 사이의 갈등이 더 커진다.	3.31	3.29
노조는 편한 작업방식을 추구하여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3.60	3.53
노조가 일으키는 파업은 대부분 정당하지 못하다.	3.58	3.43
노조는 너무 투쟁적이다.	3.08	2.91
노조들은 조합원들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	3.12	3.17
노조들은 비노조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2.85	3.12
노조가 최근의 비정규직 증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2.97	3.14
대기업 노조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3.09	3.19
회사들은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2.74	3.12
회사들은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3.03	3.32
근로자들이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면 해고될 가능성이 높다.	2.86	3.17
노동법은 근로자들의 노조 활동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2.88	3.25

노동조합이 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기능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표 9-19>를 보면, 전체 응답자가 생각하는 것과 노조원이 생각하는 것의 차이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표 9-20>은 노동조합에 대한 견해를 광범하게 묻고 있다. 노조원들은 노조가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기에는 힘이 별로 없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며, 기업의 성장에 관심이 있고, 노조가 있다고 도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노조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아니며, 파업은 정당하고, 투쟁적이지 않으며, 이기주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비노조원의 이익을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증가에 노조 책임도 있다고 생각했다. 대기업 노조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으며, 회사는 노조활동을 막으려 하고, 노조 만들려다가는 해고되기 쉽다고 생각했다. 노동법은 노조활동 보장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보면, 노조가 근로자 권익을 보호할 힘이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노조원과 생각이 달랐고, 노조가 너무 투쟁적이라고 본다는 점에서도 생각이 달랐다. 노조가 비노조원도 생각한다고 본 점, 비정규직 증가에서 노조 책임을 노조원보다 작게 생각한다는 점, 회사가 노조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편이라고 보는 점에서도 생각이 달랐다.

◆ 執筆陣

- 남재량(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성재민(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상호(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 최효미(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 신선옥(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제8차(2005)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 | | |
|---------|--|
| • 발행연월일 | 2007년 6월 25일 인쇄
2007년 6월 30일 발행 |
| • 발행인 | 최영기 |
| • 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
☎ 150-01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 대표 (02) 782-0141 Fax (02) 786-1862 |
| • 조판·인쇄 | 거목정보산업(주) (02) 2164-3232 |
| • 등록일자 | 1988년 9월 13일 |
| • 등록번호 | 제13-155호 |

© 한국노동연구원 정가 9,000원

ISBN 978-89-7356-634-2